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

2015. 08.

저자

책임연구원 이 재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별연구원 ▶ 알제리:

박 영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다 연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튀니지: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Maher Gassab Université Hassan, 1^{er}

▶ 모로코: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Driss Baakil L'école supérieur de commerce

▶ 세네갈: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 건 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 민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코트디부아르: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윤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신 혜 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서 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획하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한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즉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겪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정세불안이 지속되며 경기침체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식수 부족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등의 보건 문제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여러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한국의 비중점 협력국으로서 체계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 향후 협력증대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환경 분석 및 구체적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KOICA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불어권 5개국을 대상으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KDS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기본적인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협력틀을 바탕으로 대상국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파악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상기의 협력틀과 실행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흐름과의 일치 여부와 더불어, 국제사회 여러 지원 기관과의 구체적 공조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별로 일반현황 및 개발환경 조사를 통해 개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가개발전략 및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여 해당 정부가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형태별·분야별·규모별로 분석하고 주체별로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KOICA를 비롯한 한국 지원 기관들의 협력현황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기본 목표와 함께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과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은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 방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며 실제적인 현지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수요와 공여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정량적 분석 방법과 정책적 타당성,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KOICA의 지원경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중점지원 분야를 모색하되, 수원국의 실질적인 「니즈」와 KOICA의 공급능력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채용한 첫 연구 사례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연구위원, 안동대 박찬용 교수, KDS 전홍민 연구위원 등 주 연구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황재상 KOICA 서아프리카팀장과 라갑채 과장, 송은의 과장, 김정민 대리, 이규홍 대리, 이지현 대리 등 서아프리카팀원을 비롯하여, 정회진 모로코 사무소장, 김상철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 송기정 세네갈 사무소장, 서호진 알제리 사무소장, 윤지현 튀니지 사무소장 등 KOICA 현지 사무소장과 사무소 직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S 최다연, 이은샘, 김민주, 이윤주, 신혜림 연구원 등 실무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KOICA의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과의 향후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에 있어 생생한 정보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양국간 협력효과가 주변 국가들의 국가발전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5년 8월
연구책임자 이재훈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8
1. 연구의 의의	8
2. 연구의 한계	9
제2장 튀니지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11
제1절 일반현황	13
1. 국가일반 개황	14
2. 정치 현황	15
3. 경제 현황	23
4. 사회·문화 현황	35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38
1. 개발환경	38
2. 분야별 개발과제	49
제3절 국가개발정책	52
1. 국가개발전략(NDS)	52
2. 신정부의 국가개발전략 방향	55
3. 분야별 전략	56
제3장 국제사회의 튀니지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61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63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63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68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91
4. 국제사회의 ODA 특징 비교 및 시사점	102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06
1. 한-튀니지 협력현황	106
2. KOICA의 지원현황	106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111
 제4장 KOICA의 튀니지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115
제1절 기본방향	117
1. 튀니지의 개발과제 및 특징	117
2. 튀니지 지원 기본방향	119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120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120
2. 분석 결과	129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134
1. 공공행정	134
2. 산업에너지	135
3. 교육	140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142
 제5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9
 부록	 159

표 목차

〈표 2-1〉 튀니지 개황	13
〈표 2-2〉 중앙부처 변화	16
〈표 2-3〉 주요 경제지표	24
〈표 2-4〉 대외무역-수출입	26
〈표 2-5〉 튀니지의 주요 교역국	27
〈표 2-6〉 유로 및 달러 대비 튀니지 디나르 환율변동 추이	28
〈표 2-7〉 MENA 국가들의 15세 이상 실업률	28
〈표 2-8〉 농업부문 주요 품목의 생산량 추이	30
〈표 2-9〉 광업생산량	30
〈표 2-10〉 관광산업 현황(2005-2013)	31
〈표 2-11〉 자동차 보유가정 비율	32
〈표 2-12〉 핸드폰 보유대수	32
〈표 2-13〉 인터넷 망 이용자 수	32
〈표 2-14〉 MDG 분석결과	38
〈표 2-15〉 HDI 비교	42
〈표 2-16〉 역내 주변국 간 HDI 세부지표 비교	43
〈표 2-17〉 튀니지의 UNESCO 교육 지표	44
〈표 2-18〉 WHO 보건/의료 지표	44
〈표 2-19〉 World Bank 농업 수치	45
〈표 2-20〉 World Bank 산업 수치	45
〈표 2-21〉 인프라 현황(2007-2012)	46
〈표 2-22〉 튀니지의 거버넌스 지수	47
〈표 2-23〉 튀니지의 거버넌스 세부지수(2012)	47
〈표 2-24〉 부패인식지수 연도별 추이	47
〈표 2-25〉 튀니지의 경제자유지수	48
〈표 2-26〉 역내 국가들 간 환경지표 비교	48
〈표 2-27〉 튀니지 성평등 환경	49
〈표 2-28〉 실업률 비교	50
〈표 3-1〉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 현황	63

〈표 3-2〉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 현황	64
〈표 3-3〉 국제사회의 다자 주체별 지원현황	65
〈표 3-4〉 자금 형태별 ODA	65
〈표 3-5〉 분야별 지원현황	66
〈표 3-6〉 對 튀니지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67
〈표 3-7〉 프랑스 ODA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지원금액(2007-2009)	68
〈표 3-8〉 프랑스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70
〈표 3-9〉 프랑스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71
〈표 3-10〉 프랑스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71
〈표 3-11〉 프랑스의 다부문 지원 추이	72
〈표 3-12〉 프랑스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72
〈표 3-13〉 프랑스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73
〈표 3-14〉 AFD의 튀니지 지원 프로젝트	74
〈표 3-15〉 JICA의 튀니지 지원현황	78
〈표 3-16〉 일본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79
〈표 3-17〉 일본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80
〈표 3-18〉 일본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80
〈표 3-19〉 일본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81
〈표 3-20〉 일본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82
〈표 3-21〉 일본의 다부문 지원 추이	82
〈표 3-22〉 독일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86
〈표 3-23〉 독일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87
〈표 3-24〉 독일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87
〈표 3-25〉 독일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88
〈표 3-26〉 독일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88
〈표 3-27〉 독일의 다부문 지원 추이	89
〈표 3-28〉 EU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92
〈표 3-29〉 EU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93
〈표 3-30〉 EU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93
〈표 3-31〉 EU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94
〈표 3-32〉 EU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94

〈표 3-33〉 EU의 다부문 지원 추이 -----	95
〈표 3-34〉 아랍펀드의 주요 지원 분야 프로젝트 투입금액 -----	97
〈표 3-35〉 AFESD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	97
〈표 3-36〉 AFESD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	98
〈표 3-37〉 AFESD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	98
〈표 3-38〉 AFESD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	99
〈표 3-39〉 AFESD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	99
〈표 3-40〉 AFESD의 다부문 지원 추이 -----	99
〈표 3-41〉 OPEC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	100
〈표 3-42〉 OPEC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	101
〈표 3-43〉 OPEC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	101
〈표 3-44〉 OPEC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	101
〈표 3-45〉 OPEC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	102
〈표 3-46〉 對 튀니지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순위 -----	102
〈표 3-47〉 對 튀니지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순위 -----	103
〈표 3-48〉 한-튀니지 교역 규모 -----	106
〈표 3-49〉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 현황 -----	107
〈표 3-50〉 사업 유형별 지원 실적 -----	108
〈표 4-1〉 분야별 지표선정 근거 및 데이터 출처 -----	122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	123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	123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	127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	128
〈표 4-6〉 정량분석 결과 -----	130
〈표 4-7〉 정성분석 결과 -----	132
〈표 4-8〉 종합분석 결과 -----	133

그림 목차

[그림 1-1]	정량분석모형에 의한 지원분야 분포도	6
[그림 2-1]	튀니지 지도	13
[그림 2-2]	튀니지 인플레이션율 변화(1990-2013)	29
[그림 3-1]	ODA 현황	66
[그림 3-2]	JICA 프로젝트 진행 현황	83
[그림 3-3]	KOICA의 튀니지 지원 추이	107
[그림 3-4]	농촌진흥청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111
[그림 3-5]	교육부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112
[그림 3-6]	산업자원부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112
[그림 3-7]	미래창조과학부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113
[그림 3-8]	방송통신위원회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113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121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125
[그림 4-3]	KOICA-튀니지 간 협력 프레임워크	142

글상자 목차

[글상자 3-1]	시민권리 접근성 격차 해소와 시민의식 고양	75
[글상자 3-2]	소외지역 경제활동 촉진대책	75
[글상자 3-3]	노조의 연대의식	76
[글상자 3-4]	사헬(Sahel)지역과 스팍스(Sfax)지역 식수 공급	76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124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124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129
[글상자 4-4]	소외지역 경제활동 촉진대책	141

주요 약어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佛개발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AFESD	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
AU	African Union(아프리카연맹)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캐나다국제개발청)
CIF	Climate Investment Funds(기후투자기금)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부패인식지수)
CSP	Country Strategic Partnership(국가전략파트너십)
CTB	Coopération Technique Belge(벨기에개발협력청)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개발컨설팅프로젝트)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Korea(대외경제협력기금)
EDI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교육지표)
EPI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환경수행지수)
EU	European Union(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세계경쟁력지수)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獨국제개발본부)
HDI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日국제개발청)

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한-아프리카장관급회의)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OCI	Organisation de la coopération islamique(이슬람협력기구)
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아프리카단결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UMA	Union du Maghrabe Arabe(마그레브아랍연합)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유엔인구기금)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유엔아동기금)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공업개발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미국국제개발청)
WDI	World Development Index(세계개발지수)
WEF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
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s(세계거버넌스지수)
WFP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요 약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도국의 다양한 언어·문화적 차이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별 ODA 전문가와 개도국에 대한 정보 및 연구가 대단히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와 매우 이질적인 튀니지와 같은 국가를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려면 튀니지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근을 종합하여 개발협력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선진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튀니지의 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튀니지와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의 틀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분야별 핵심 지표와 벤치마킹 국가의 차이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급능력을 정량화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수요와 개발의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으려고 노력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튀니지는 2011년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으로 23년 간 집권한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한 뒤 과도정부를 거쳐 2014년 12월 세속주의 성향의 베지 카이드 에셉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재스민 혁명의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지역 간 격차, 낮은 생활수준 등이었다.

튀니지의 MDG 경과 추세분석을 보면 절대빈곤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도농 간 빈곤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육의 경우 거의 모든 어린이가 이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여성차별이 심하고 특히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 영·유아 사망률은 확실히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도·농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튀니지의 심각한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는 시디 부지드(Sidi Bouzid), 카세린(Kasserine), 탈라(Thala) 등 내륙의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튀니지 사회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니지는 불어권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HDI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불평등도도 제일 낮고 문해율은 제일 높다. 또한 교육, 보건/의

료, 인프라,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경제자유 지수 등도 불어권 북아프리카 3국 중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튀니지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이러한 발전추세는 재스민 혁명 이후 멈추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에 수립된 과도정부 국가발전 전략은 좋은 거버넌스와 기업 환경 개선의 기초 확립, 경제 구조의 현대화, 세계경제로의 통합 강화 및 파트너십 발전 등에 맞추었다.

튀니지의 분야별 개발전략은 먼저 경제의 경우 기업 설립과 투자 절차 간소화, 무역 자유화, 금융 시스템 개혁, 재정 효율성 개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촉진, 보험 분야 발전, 보험회사 수익 강화 등이다. 인프라 개발전략은 철도 인프라 개선, 지역 및 지방 도로 네트워크 개선,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를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 등이다. 농업은 농업부문 성장속도 가속, 농업관련 연구와 교육, 농업 현대화 추진 등이다.

산업은 항공, 자동차, 제약, 섬유/의류 및 음식 등 5개 분야의 유망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협력, 공공 조달 프로세스 개혁, 물류 시스템 개혁, 인프라 강화 (산업 단지, 테크노파크 등)와 같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발굴이 필요하며 관광 부문은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관광 품질 제고와 관광인력 훈련 시스템 구축, 마케팅의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 시스템 확립과 사회 정보시스템 개발, 교육의 질 향상 및 대학교육 확대 등 사회분야 발전전략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11~2013)평균 지원 규모는 프랑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자 주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EU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AfDB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AFD는 1992년부터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튀니지를 지원하고 있다. ① 튀니지 기업 수준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②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튀니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이다. 프랑스의 대 튀니지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 환경, 그리고 교통 및 물류보관 순이었다.

일본의 대 튀니지 중점 원조 전략은 ①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 ② 국가의 평화와 부흥을 공고히 함, ③ 이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활동 지원, ④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발전에 기여 등과 같다. 중점 지원 부문은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물·위생, 산업·광업·건설업, 농업·임업·어업, 교육 순으로 나타난다.

독일 국제협력 공사(GIZ)는 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② 천연자원 보호, ③ 지역·거버넌스·민주주의 발전 도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 식수위생, 정부 시민사회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EU의 대 튀니지 협력 전략은 민주주의와 경제 거버넌스 발전, 사회 불평등 해소와 지역개발 지원, 튀니지 시민사회 역할 강화와 인권 분야의 발전 지원 등이다. 2014년-2015년 협력 전략의 우선순위는 포괄적 성장,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 개혁,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 강화, 지역 및 지방의 지속적인 개발 등이다. EU는 튀니지에게 유럽근린파트너십 기금(ENPI) 및 유럽근린기금(ENI) 이외에도 각 분야별 기금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한다.

튀니지는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AFESD)의 회원국으로 경제 및 사회개발 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AFESD는 기초 서비스 제공, 생산 역량 향상, 투자 환경 향상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AFESD는 튀니지의 농업, 에너지, 산업, 사회 서비스, 교통, 물 관련(댐, 하수)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ODA 특징 비교 및 시사점을 보면 먼저 중점지원 분야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교육과 식수위생에 중점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교통과 물류 및 식수위생, 미국은 시민사회(거버넌스), EU는 에너지와 은행·금융 분야, AFESD는 에너지와 식수위생 등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여파로 시민사회(거버넌스)

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에너지와 식수위생에 대한 지원도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튀니지의 공여국 중 9위이며 2014년도 사업으로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기타 분야에서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범사업,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배전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 역량강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튀니지에 무상원조를 지원한 바 있다.

튀니지가 당면한 과제들은 정치·경제 불안, 지역 간 격차, 높은 실업률로 요약된다. 따라서 KOICA는 튀니지의 민주화 및 지역불균형 해소지원을 협력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튀니지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을 위해 시도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함께 본 최종 종합평가를 보면 공공행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산업에너지, 교육 순으로 도출되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튀니지는 2015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정치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OICA가 튀니지에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자조달 시스템 지원 사업을 심화 및 확대발전하는 것을 제안한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튀니지의 민주화 요구에 부합한다. 따라서 향후 현지의 수요가 높은 통관, 조세, 연기금 관리 등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테크노파크 및 지역 산업발전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 튀니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전국에 8개의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테크노파크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련 유사경험이 풍부하며 선행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개발컨설팅(DEEP) 또는 프로젝트 형태의 KOICA 단독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에너지 부문에서 두 번째로 제안하는 사업은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가 필요한 실정이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를 위해 전력송배전 효율화 관련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튀니지는 물 부족 국가로서 수자원관리 타당성 조사와 해수 담수화 등의 사업을 우리나라와 기술협력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에너지 및 수자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 관련 유사경험이 풍부하며 국내에 GCF, GGGI와 같은 국제기구가 있으므로 이들과 협력하여 개발컨설팅(DEEP) 또는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역 특산물 개발사업(DEEP, 연수)을 산업에너지 부문의 사업으로 제안한다. 튀니지 정국불안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튀니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튀니지의 관광산업은 4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2010년 관광객수가 771만 5,000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545만 1,000명으로 격감했다. 튀니지 서비스 산업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에서 막상 구매할 지역 특산물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추가적인 소득증대를 못하고 있으며 튀니지 정부 및 관광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시급하게 논의 중이다.

KOICA를 통해 제안하는 사업은 관광지 당 하나 이상의 특산물을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튀니지는 지역별로 상품화할 수 있는 특산물이 상당히 존재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별 특산물 지정과 이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 또는 DEEP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 부문에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튀니지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튀니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의 경우 고용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교육훈련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튀니지의 실업 및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지원의 경우 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창업지원을 통해 실업 및 빈곤을 퇴치하고 소득 증

대 및 자생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Microcredit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용하여 실제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사업은 지역적 고려가 중요한데 특히 내륙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점을 고려, 직업훈련센터를 저소득 밀집지역인 남부지역 등에 신설하여 저소득지역 주민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튀니지의 국가적 과제, KOICA의 기본 협력방향 및 중점지원 분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협력 프레임워크의 도출이 가능하다. 튀니지는 민주화 정착과 지역불균형 해소지원을 협력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는 1) 민주주의 정착 및 사회안정 회복과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둘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교육 분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튀니지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프랑스와 같은 공여국과의 협력이 바람직하며 이들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KOICA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Abstract



Korea has to secure more local ODA experts and information-research on developing countries to lower the cultural and linguistic barriers between Korea and ODA recipient countries. To enable understanding a country like Tunisia which is very heterogeneous with us and promoting long-term and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rovision of capacity-building measures is pre-required. That is a capacity to establish the strategi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 by encompass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approach on Tunisia.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framework of the basic strategy and specific practice plans of the KOICA's ODA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circumstance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unisia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on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far.

To this end, this study did a quantit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expert group meetings, fieldwork etc.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the first, we quantified the development needs of Tunisia and the assistance capacity of Korea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ctoral key indicators and the benchmark countries) and w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development needs of Tunisia through fieldwork.

"The Jasmine Revolution" caused by high unemployment, huge local disparities and low living standards made the 23 years ruling president Ben Ali flee to Saudi Arabia, then by way of the transitional government in December 2014, Mr. Beji Caid Essebsi was elected as a new president.

In the MDG trend analysis on Tunisia, the absolute poverty alleviation target is achieved but the disparity in poverty level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till grave.

Almost all children complete primary education, however the ratio of children who do not go to school is showing largely different by region. The seve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society in general is increasingly go deep into senior positions. The infant mortality rate is definitely reduced, however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till quite large.

Tunisia has experienced quite serious local development imbalances. Those among the Sidi Bouzid, Kasserine, Thala in the midwest of inland appear most dramatically and they have become a major cause of social unrest in Tunisia.

Nevertheless, Tunisia recorded the highest HDI levels, the narrowest gender gap and the highest literacy rates etc. among French-speaking countries in North Africa. In addition, education, health/medical, infrastructure,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economic freedom indexes are also rated as ahead among those French-speaking countries in North Africa.

Tunisia has made a balanced progress according to the five-year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60s. This development trend has stopped after the Jasmine Revolution.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transitional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in January 2011. The strategy included good governance,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modernization of economic structure, active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and partnership development etc.

The sectoral development strategy is as follows; the economy strategy consists of streamlining establishment and investment procedures of corporate, trade liberalization, financial system reform, fiscal efficiency improvements, promo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insurance sector development etc. The infrastructure strategy is improve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regional and

local road network improvements, construction of a railway connecting Tunisia, Algeria and Libya. Agriculture strategy consists of an acceleration of its growth rate, promoting related research and education and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dustry strategy is based on the promising five areas (aerospace, automotive, pharmaceutical, textile/clothing and food). In order to develop the industry sector, the following strategic efforts are requir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public procurement process reform, logistics system reform and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industrial parks, techno-parks etc.).

For the energy industry, the excav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s necessary. For the tourism industry, diversification of tourism program, promotion of tourism quality, establishment of tourism personnel training system, and modernization of marketing are necessary.

Along with th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mentioned above, the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also included; strengthening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establishing social protection systems, social alarm system development,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sector and expanding high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ODA data of Tunisia over the last three years (2011-2013), France has supported the most in terms of ODA amount, then Germany and Japan are following suit.

Looking into the ODA of multilateral entities, the EU has supported the most by far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multilateral entities and the support of the AfDB was much smaller than anticipated.

Since 1992, the AFD of France has been supporting Tunisia for the next two goals; ① enhancing the Tunisian enterprise level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②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enhancing basic infrastructure etc. The focused support areas of France have been education, environment, transport and logistics in order.

Japan's assistance strategy for Tunisia focused on ① promoting political stability, ② consolidating peace and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 ③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Japanese companies in the region, etc. Japan's focus support sectors in 2013 were water, sanitation, industry, mining, construction,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education in order.

The GIZ of Germany has helped focus on ①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②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③ governance, regional, and intensive assistance to promote democratic development. Its focus supporting sectors are education, sanitatio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upport in order.

The EU's cooperation strategy for Tunisia has been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governance and economy, elimination of social inequality,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strengthen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supporting human rights.

In 2014-2015, the priority of cooperation strategy has been inclusive growth, competitiveness and social integr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reforms, strengthening democracy, fundamental factors, loc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rovince.

The EU has supported Tunisia by the European Neighborhood Partnership Fund (ENPI) and the European Neighborhood Fund (ENI) etc.

Tunisia is und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fund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Arab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und (AFESD). AFESD has put a priority on basic infrastructure sector and mainly invested in the field of agriculture, energy, industry, social services, and transportation.

As to the features of ODA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implications, first, France and Germany have supported with the emphasis on education and water sanitation, Japan's focus support sectors have bee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nd water sanitatio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institu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US: civil society (governance), the EU: energy and bank financial sector, the AFESD: energy and water and sanitation. Tunisia has been relatively more supported in the field of civil society (governance) and education in the wake of the Arab Spring.

Korea is the ninth donor for Tunisia. In 2014, the following projects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a pilot project to restore cork oak forest, a project for recycl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a project for improving distribution reliability in industrial energy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Ministry fo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etc. also have supported Tunisia.

Tunisia is facing the challenges, that is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inter-regional disparities, and high unemployment rate.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KOICA set up a goal for a democracy and an alleviation of regional imbalances.

To select focus sectors for support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were attempted. As a result, public administration was selected as

the best focus sector for supporting, and then the energy industry and the education were followed in order

In the cas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new government was elected early in the 2015 however, Tunisia has failed to stabilize the political, democratic demands of people. Considering the unstable situation, it is suggested to intensify the development of the e-procurement systems support project of the KOICA which received good reviews. The e-procurement system that can prevent a corruption of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democracy in Tunisi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e-government system to highly demanded areas such as customs, tax, pension fund management etc.

In the case of energy sector, it is proposed to support techno parks in marginalized areas and local industr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unisian government currently operates eight techno parks in nationwide for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job creation.

Korea is rich in experiences related to similar case of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through an establishment of techno-park. Also the leading projects were successfully promoted, therefore the KOICA could be available to carry it out in the form of single project.

The secondly proposed project in industrial energy sector is the technology cooperation for water resources and renewable energy. In the energy sector, current budget deficit situation continues and requires a rationalization of national energy consumption. To do so through improved energy supply system, there is a need to pursue and expand the technology transmission and the capacity building.

Tunisia is a water shortage country. So the feasibility studies on optimal use of water resources and seawater desalination are recommended and viable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with Korea. With regard to energy and water resources projects, Korea has similar experience abounds and the concer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CF and the GGGI are in Korea.

Development projects of local specialties (consulting, training) is suggested to activate tourism industry. As an impact of political unrest in Tunisia, the tourism industry which is a main source of income of Tunisia received a severe blow, then it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economy of Tunisia. The Tunisian tourist industry has provided jobs to about 400 thousand people. For example, in 2010 the number of tourists was 7.71 million, however in 2011 it has plummeted to 5.45 million.

The portion of the tourism industry in GDP has been significantly great share so far. However, since Tunisia has not developed enough local specialties to sell at the tourist places, local residents in the tourist places failed to get additional income. So what we propose is to contribute to tourism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local specialties by developing more than one local specialty per tourist place. Tunisia has quite good natural resources and culture to commercialize regionally. Thus, we propose to promote it in the form of consulting.

As to educational sector, extremely high unemployment in Tunisia is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lead to social unrest in Tunisia. In general, support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not been well connected with labor market, so it has been often resulted in being insufficient. Thus, to support the low income families by alleviat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poverty in Tunisia, it is recommended to support those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vocational training courses to find a job or to start up small business with the

microcredit funds. This is targeted to strengthen low-income families' capacity to combat unemployment and poverty through vocational training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build-up of new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areas suffering by low-income or high unemployment rate to expand more equitable opportunities.

Taken together the Tunisian national strategies, the main cooperation directions, the key support areas and sectoral cooperation programs, the following cooperation framework is recommended. The cooperation objective is a democratic settlement and resolving regional disparities. The strategic priorities are 1) democratic settlement and recovery of social stability and 2) promotion of local economy and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focus support sectors are public administration, energy industry and education in order.

It is advisable to cooperate with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such as France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in Tunisia. For the successful cooperation with them, it is pre-required to adequately train local Korean experts who can communicate and work in French with the locals.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Résumé



La Corée doit s'assurer plus des experts locaux d'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et de l'information-recherche sur les pays en développement pour réduire les barrières culturelles et linguistiques entre la Corée et les pays bénéficiaires d'APD. La mise à disposition de mesures d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est pré-requis pour permettre de comprendre un pays comme la Tunisie qui est très hétérogène avec la Corée et pour la promotion à long terme et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efficace. Voilà une capacité à établir les stratégies de soutien au dé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en englobant approches économique, sociale, culturelle et politique sur la Tunisie.

Cette étude vise à établir un cadre des plans stratégiques et des pratiques spécifiques de base de l'APD de KOICA (Agenc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Coréenne) en enquêtant sur les circonstances de développement et les stratégies nationales de développement en Tunisie et de la coopération pour le développement fait par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à ce jour.

À cette fin, cette étude fait une analyse quantitative, revue de la littérature, des réunions de groupes d'experts, le travail de terrain, etc. Cette étude a la signification suivante; la première, nous avons quantifié les besoins de développement de la Tunisie et de la capacité d'assistance de la Corée (basé sur la différence entre les indicateurs clés sectoriels et les pays de référence), et nous avons analysé en détail les besoins de développement de la Tunisie à travers le terrain.

"La révolution du jasmin" causé par un chômage élevé, de fortes disparités locales et faible niveau de vie a fait le président Ben Ali qui a été au pouvoir pendant les 23 ans fuit en Arabie Saoudite, puis par l'intermédiaire du gouvernement de transition, en Décembre 2014, M. Béji Caïd Essebsi a été élu un nouveau président.

Dans l'analyse des tendances de l'OMD (Objectifs du Millénaire pour le développement) sur la Tunisie, la cible de réduction absolue de la pauvreté est atteinte, mais la disparité des niveaux de pauvreté entre les zones urbaines et rurales est encore grave. Presque tous les enfants achèvent l'enseignement primaire, mais le rapport des enfants qui ne vont pas à l'école montre largement différente par région. La grave discrimination contre les femmes dans la société en général est de plus en plus aller en profondeur dans des postes supérieurs. Le taux de mortalité infantile est nettement réduit, cependant, l'écart entre les zones urbaines et rurales est encore assez grande.

La Tunisie a connu assez graves déséquilibres de développement local. Ceux parmi les Sidi Bouzid, Kasserine, Thala dans le Mid-ouest de l'intérieur semble plus spectaculaires et ils sont devenus une cause majeure de troubles sociaux en Tunisie.

Néanmoins, la Tunisie a enregistré les niveaux les plus élevés de l'IDH (Indice de Développement Humain), l'écart le plus faible entre les sexes et les taux d'alphabétisation les plus élevés, etc. parmi les pays francophones en Afrique du Nord. En outre, l'éducation, la santé/médicaux, les infrastructures, les droits politiques et les libertés civiles, les indices de liberté économique sont également classés comme avancé parmi les pays francophones en Afrique du Nord.

La Tunisie a fait un progrès équilibré selon le plan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cinq ans depuis les années 1960. Cette tendance de développement a été stoppé après la Révolution du Jasmin.

Une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 gouvernement de transition a été créé en Janvier 2011. La stratégie comprenait la bonne gouvernance, l'amélioration de l'environnement des affaires, la modernisation de la structure économique, intégration active dans l'économie mondiale et le développement de partenariat, etc.

L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sectorielle est la suivante; la stratégie de l'économie se compose de la rationalisation des procédures d'établissement et d'investissement de l'entreprise, libéralisation de commerce, la réforme du système financier, amélioration de l'efficacité fiscale, la promotion de la coopération du secteur public et privé, le développement du secteur de l'assurance, etc.

La stratégie d'infrastructure est l'amélioration d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l'amélioration du réseau routier régional et local, et la construction d'un chemin de fer reliant la Tunisie, l'Algérie et la Libye.

Stratégie de l'agriculture se compose d'une accélération de son taux de croissance, la promotion de la recherche connexe et de l'éducation et de la modernisation agricole. Stratégie de l'industrie est basée sur les prometteurs de cinq domaines (aéronautique, automobile, pharmaceutique, textile/habillement et nourriture). Afin de développer le secteur de l'industrie, les efforts stratégiques suivantes sont requises; partenariats public-privé, la réforme du processus de passation des marchés publics, la réforme du système de la logistique et le renforcement des infrastructures (parcs industriels, parcs technologiques, etc.).

Pour l'industrie de l'énergie, l'excavation des sources d'énergie renouvelables est nécessaire. Pour l'industrie du tourisme, la diversification d'un programme de tourisme, la promotion de la qualité du tourisme, l'établissement du système de formation du personnel du tourisme, et la modernisation du marketing sont nécessaires.

Avec les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mentionnés ci-dessus, les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social suivants sont également inclus; le renforcement des politiques de redistribution des revenus, la création de systèmes de protection sociale, le développement du système d'alarme sociale,

l'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secteur éducatif et l'expans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Selon les données de l'APD de la Tunisie au cours des trois dernières années (2011-2013), la France a soutenu le plus en termes du montant d'APD, puis l'Allemagne et le Japon emboîtent le pas. En regardant dans l'APD des entités multilatérales, l'UE a soutenu le plus loin écrasante majorité des entités multilatérales, et le soutien de la BAD était beaucoup plus petit que prévu.

Depuis 1992, l'AFD de la France soutenait la Tunisie pour les deux objectifs suivant; ① le relèvement du niveau de l'entreprise tunisienne et de renforcer leur compétitivité, ② l'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a vie à travers le renforcement des infrastructures de base, etc. Les zones ciblées de soutien de la France ont été l'éducation, l'environnement, le transport et la logistique dans l'ordre.

La stratégie d'assistance du Japon pour la Tunisie axé sur ① promouvoir la stabilité politique, ② consolidation de la paix et de la reconstruction du pays, ③ soutenir les activités des entreprises japonaises dans la région, etc. Les secteurs de soutien de mise au point du Japon en 2013 était de l'eau, de l'assainissement, de l'industrie, des mines, de la construction, l'agriculture, la foresterie, la pêche, l'éducation dans l'ordre.

La GIZ d'Allemagne a aidé en mettant l'accent sur ①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rable et la création d'emplois, ② protec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③ le développement de démocratie, de gouvernance et de région. Ses secteurs de soutien prioritaire sont l'éducation, l'assainissement, la société civile dans l'ordre.

La stratégie de coopération de l'UE pour la Tunisie a été axée sur le développement de la démocratie, de la gouvernance et de l'économie,

l'élimination de l'inégalité sociale, le soutien du développement régional, le renforcement du rôle de la société civile, et de soutenir les droits humains. En 2014-2015, la priorité de la stratégie de coopération a été la croissance inclusive, la compétitivité et l'intégration sociale pour des réformes sociales et économiques, le renforcement de la démocratie, des facteurs fondamentaux, le développement local et durable de la province. L'UE a soutenu la Tunisie par le Fonds européen de Voisinage de Partenariat (IEVP) et le Fonds européen de voisinage (IEV), etc.

La Tunisie est dans le cadre de projet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et sociaux financés par les États membres du Fonds social e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arabe (AFESD). L'AFESD a mis une priorité sur le secteur de l'infrastructure de base et a investi principalement dans le domaine de l'agriculture, l'énergie, l'industrie, les services sociaux et le transport.

Quant aux caractéristiques de l'APD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t ses conséquences, en premier lieu, la France et l'Allemagne ont pris en charge avec l'accent mis sur l'éducation et l'assainissement de l'eau, les secteurs de soutien prioritaire du Japon ont été le transport et la logistique et de l'assainissement de l'eau. Celui des États-Unis est la société civile (gouvernance), ceux de l'UE sont l'énergie et le secteur financier de la banque, ceux de l'AFESD sont l'énergie et l'assainissement de l'eau. La Tunisie a été relativement plus soutenue dans le domaine de la société civile (de gouvernance) et de l'éducation dans le sillage du Printemps arabe.

La Corée est le neuvième donateur pour la Tunisie. En 2014, les projets suivants ont été réalisés avec succès; un projet pilote visant à restaurer la forêt de chêne-liège, un projet de recyclage des 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et un projet pour améliorer la fiabilité de la distribution dans la gestion de l'énergie industrielle. En outre, le Ministère Coréen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et des Affaires Rurales, le Ministère de l'Education, etc. aussi ont soutenu la Tunisie.

La Tunisie est confrontée à des défis qui sont l'instabilité politique et économique, les disparités inter-régionales, et le taux de chômage élevé. Par conséquent, il est proposé que la KOICA a mis en place un objectif d'une démocratie et d'une réduction des déséquilibres régionaux.

Pour sélectionner les secteurs de soutien prioritaire, les évaluations quantitatives et qualitatives ont été tentées. En conséquence, l'administration publique a été choisie comme le meilleur secteur de concentration pour supporter, puis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 l'éducation ont été suivis dans l'ordre

Dans le cas de l'administration publique, le nouveau gouvernement a été élu au début de 2015 cependant, la Tunisie n'a pas réussi à stabiliser les exigences démocratiques et politiques. Compte tenu de la situation instable, il est suggéré d'intensifier le développement du projet des systèmes d'approvisionnement électronique de la KOICA, qui a reçu de bonnes critiques. Le système d'e-procurement qui peut empêcher une corruption des autorités publiques doit se conformer aux exigences de la démocratie en Tunisie. Par conséquent, il est recommandé d'étendre le système e-gouvernement pour les domaines très demandés tels que les douanes, la fiscalité, la gestion de fonds de pension, etc.

Dans le cas du secteur de l'énergie, il est proposé de soutenir les parcs technologiques dans les zones marginalisées et l'industrie locale pour un développement régional équilibré. Gouvernement tunisien exploite actuellement 8 parcs technologiques à l'échelle nationale pour activer l'économie locale et la création d'emploi.

La Corée est riche en expériences liées au cas similaire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locale à travers l'établissement d'une technopole. Aussi, les projets principaux ont été promus avec succès, donc la KOICA pourrait être disponible pour le réaliser sous la forme d'un projet unique.

Le projet proposé d'autre part dans le secteur de l'énergie industrielle est la coopération technologique pour les ressources en eau et les énergies renouvelables. Dans le secteur de l'énergie, la situation de déficit budgétaire actuelle se poursuit et nécessite une rationalisation de la consommation énergétique nationale. Pour ce faire grâce à l'amélioration du système d'approvisionnement en énergie, il est nécessaire de poursuivre et d'étendre la transmission de technologie et d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La Tunisie est un pays de pénurie d'eau. Ainsi, les études de faisabilité sur l'utilisation optimale des ressources en eau et le dessalement d'eau sont recommandés et viable grâce à la coopération technique avec la Corée. En ce qui concerne les projets d'énergie et de ressources en eau, la Corée possède une expérience similaire abonde et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concernées telles que le GCF et le GGGI sont en Corée.

Les projets de développement de spécialités locales (Consulation, formation) est suggérée pour activer l'industrie du tourisme. Comme un impact de l'instabilité politique en Tunisie, l'industrie du tourisme qui est une source principale de revenus de la Tunisie a reçu un coup sévère, alors il a eu un impact négatif sur l'ensemble de l'économie de la Tunisie. L'industrie touristique tunisienne a fourni des emplois à environ 400 mille personnes. Par exemple, en 2010, le nombre de touristes a été 7,71 millions, cependant, en 2011, il a chuté à 5,45 millions.

La partie de l'industrie du tourisme dans le PIB était nettement grande part jusqu'à présent. Cependant, puisque la Tunisie n'a pas développé suffisamment

de spécialités locales à vendre à des lieux touristiques, les résidents locaux dans les lieux touristiques n'ont pas pu obtenir un revenu supplémentaire. Donc, ce que nous proposons est de contribuer au développement et à la commercialisation de spécialités locales du tourisme en développant plus d'une spécialité locale par lieu touristique. La Tunisie a de bonnes ressources naturelles et de la culture à commercialiser. Ainsi, nous proposons de le promouvoir dans la forme de conseil.

Quant au secteur de l'éducation, le taux de chômage extrêmement élevé en Tunisie est l'un des principaux facteurs qui conduisent à des troubles sociaux en Tunisie. En général, le soutien à l'éducation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n'avait pas été bien connecté avec le marché du travail, de sorte qu'il avait été souvent entraîné à être insuffisante. Ainsi, pour soutenir les familles à faible revenu en allégeant le problème du chômage et de la pauvreté en Tunisie, il est recommandé de soutenir ceux qui ont terminé avec succès des cour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pour faire trouver un emploi ou à démarrer de petites entreprises avec les fonds de microcrédit. Ceci est ciblé à renforcer la capacité des familles à faible revenu pour lutter contre le chômage et la pauvreté à travers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le soutien à l'entrepreneuriat. À cette fin, il est nécessaire d'envisager un établissement de nouveaux centre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dans les zones souffrant de faible revenu ou taux de chômage élevé à élargir les opportunités plus équitables.

En considérant ensemble les stratégies nationales tunisiennes, les grandes orientations de la coopération, les domaines clés de soutien et d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sectorielle, un cadre de coopération suivant peut être recommandé. L'objectif de la coopération est une stabilisation démocratique et de résoudre les disparités régionales. Les priorités stratégiques sont: 1) la stabilisation démocratique et le rétablissement de la stabilité sociale et 2) la promotion de l'économie locale et la compétitivité industrielle nationale. Les

secteurs de soutien de mise au point sont l'administration publique,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 l'éducation dans l'ordre.

Il est conseillé de coopérer avec les pays donateurs de pointe, comme la France pour améliorer l'efficacité de l'aide en Tunisie. Pour le succès de la coopération avec eux, il est pré-requis pour former adéquatement experts coréens locaux qui peuvent communiquer et travailler en français avec les habitants.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ODA 예산은 2013년 현재 약 2조원으로, OECD/DAC에 가입한 2010년의 약1조 3천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ODA 지원방식 발전 및 지원효과 제고는 이런 빠른 예산 증가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아직 개도국의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별 ODA 전문가와 개도국에 대한 정보 및 연구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랍어를 국어로,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¹⁾ 이슬람국가인 튀니지에 대한 정보와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와는 매우 이질적인 튀니지와 같은 국가를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려면, 튀니지에 대한 경제적·사회·문화적·정치적 접근을 종합하여 개발협력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선진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011년은 튀니지에 매우 특별한 해로 기록되어 있다. 2010년 12월, 한 청년의 분신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2011년의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으로 발전하여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 불리는 지역 초유의 상향식(bottom-up) 정치·사회적인 변혁으로 이어졌다. “아랍의 봄”이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랍 사회에 남긴 흔적은 매우 크다. 이집트, 튀니지, 예멘, 리비아 등에서 정권 교체가 발생하는 등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아랍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 마그레브는 지형학적으로 이집트를 경계로 북서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한다. 아틀라스 산맥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의 국가가 이 지역에 속해 있다. 1989년에는 “아랍 마그레브 연합(Arab Maghreb Union)”이 결성되어 모리타니와 분쟁지역인 서부사하라를 포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스민 혁명을 유발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 튀니지의 높은 청년 실업률,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에게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재의 경제·산업 구조와 더불어 이에서 연유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내일에 대한 불안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KOICA가 튀니지를 포함, 북아프리카 전반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준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튀니지의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튀니지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 틀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KOICA의 향후 협력 사업이 튀니지는 물론 튀니지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인근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기획 및 수행 프로세스를 구조화하려는 KOICA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KOICA가 수행하고자 하는 튀니지와의 협력사업이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기구 및 다른 지원 공여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공조 가능 분야도 가늠해 보아, KOICA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KOICA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가능성 타진도 연구 목적의 하나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면적인 조사방법과 분석기법을 채용하였다. 자료조사에 있어서 튀니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NGO 등이 발표한 개발협력 전략 등 기존 출간자료 조사와 더불어 튀니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헌조사는 기존 출판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가 연구목적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점 등 문헌자료의 분명한 한계를 노정한다. 따라서 문헌조사가 내재한 이와 같은 한계점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미니포럼, 튀니지 내 개발협력에 관련된 기관/기구 방문 및 국제기구, 他공여국 및 NGO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1차 자료를 취득, 종합하였다. 이와 같이 현지조사에서 취합된 자료를 문헌조사에서 취득한 2차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튀니지의 개발협력 “니즈”는 이와 같이 다면적인 조사 방법을 통하여 파악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 가능성이 높은 협력 분야, 즉 KOICA의 중점지원 분야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중점지원 분야의 도출에는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각 분석기법이 가지는 한계를 상호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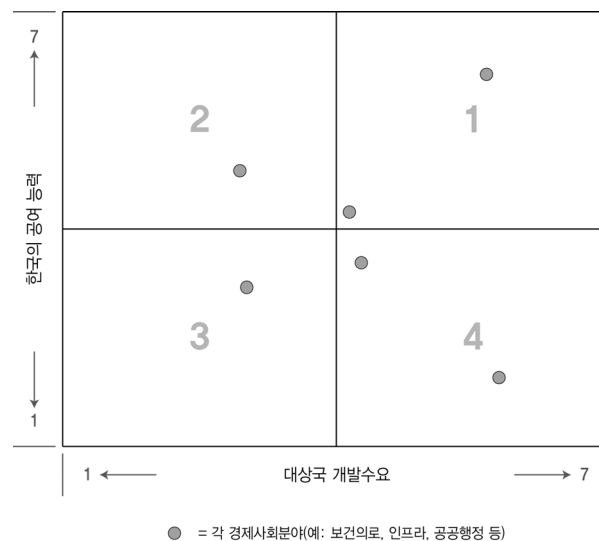
정량분석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하여, 6개의 경제·사회 분야, 즉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인프라 등 대표적인 경제·사회 분야의 발전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여러 국가단위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추가하여 선행연구의 지표를 보완, 실증하였다.²⁾ 이 과정에서는 세계경쟁력지수(GCI), 인간개발지수(HDI), 세계개발지수(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악하려는 수원국, 즉, 여기서는 튀니지보다 한 단계 높은 경

2)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제발전 수준에 이른 국가들(경제발전 수준 기준 차상위 peer group)과 대비하여 분야별 발전수준의 상대적 격차(Relative Gap)를 파악하고, 이 같은 양적인 격차를 한국의 공여 능력과 비교하였다. 한국의 공여 능력은 수원국의 분야별 발전수준에 대비한 한국의 발전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역시 계량화하여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유사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그룹과 비교한 수원국의 각 분야별 발전수준의 격차는 수원국 개발수요의 대리변수로, 한국과 비교한 수원국의 분야별 양적 차이는 한국의 공여 능력, 즉 수원국 지원에 있어 한국이 가지는 분야별 비교우위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적 분야의 상대적 격차를 1-7 사이의 값으로 지수화 하여 한국의 공여능력과 비교하여 개발수요와의 교차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 분포도에서 각 축을 임의로 양분하여 사분면을 도출하였다([그림]참조). 여기서 어떤 한 수원국의 “개발수요”가 높고,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일사분면을 최적의 지원 대상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사분면은 수원국의 수요는 비교적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로, 삼사분면은 수원국의 수요도 낮으며 한국의 역량도 부족한 분야로, 그리고 사사분면은 수원국의 개발 수요는 비교적 높지만 한국의 역량이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비교적 낮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 정량분석모형에 의한 지원분야 분포도



자료: 박영호 외. 2012.

벤치마킹 기법에 기반을 둔 분석은 수원국의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수준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늠할 수 있으며, 한국의 공여능력과 비교하여 최적의 교차점을 탐색할 수 있는 반면, 개발협력의 주체인 수원국의 의중과 개발 “니즈”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원국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의 지표를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앞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이 정성분석 모형은 1점(매우 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5점(매우 높음)의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부여된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얻은 값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상이한 두 지표 값을 표준화(normalise)하여, 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어진 지표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최종적인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얻은 분석결과는 아프리카 5개국 전체 연구진이 참여한 심층 분석 과정을 거쳐, KOICA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결과로 도출되었다.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튀니지 ODA는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마그레브 지역의 중소규모 개발협력 대상국인 튀니지에 대해 큰 틀에서 우리의 ODA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튀니지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부실하였다.

셋째,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인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일반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 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튀니지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튀니지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튀니지에 대한 기존문헌은 국제기구 및 제3국의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튀니지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와 국제기구 및 제3국의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진전에 있어 한계선을 설정하였다.

튀니지에서의 테러와 리비아 사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마그레브 지역의 치안불안 등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 점도 연구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채용한 모형은 동태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에 내생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의 모형은 “시간”이란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태적(情態的)인 모델로서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량분석 모형은 최근 것이지만 역시 한 해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계점을 현지조사를 통한 “오늘”의 데이터로 보완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이에 따른 현지의 개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KOICA의 전략 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지표 등 주요 개발환경 지표가 시시각각으로 쉬이 변화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한 전략 방향과 실행 분야는 “최근(up-to-date)” 수원국의 개발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한계점은 KOICA가 향후 일정한 시점에서,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제2장 튀니지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제1절 일반현황

[그림 2-1] 튀니지 지도



자료: CIA World Factbook

<표 2-1> 튀니지 개황

면적	162,155 km ² (한반도의 3/4)	위치	북부 아프리카 중앙지중해연안
인구	10,937,521명(2014년 추정)	언어	아랍어(공용), 불어(상용)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기후	북부 및 북서부 연안(지중해성) 내륙 및 남부(사막성)
수도	튀니스(Tunis)	주요 도시	튀니스(Tunis), 스팍스(Sfax), 수스(Sousse) ³⁾
행정구역	24개의 행정단위(wilayah)	통화 단위	TD(Tunisien Dinar) 1\$ = 1.6TD
독립일	1956.3.20 프랑스로부터 독립		

자료: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3) Tunis(1002 천 명) Sfax(944 천 명) Sousse(622 천 명) Bizerte(551 천 명) Gabès(366 천 명)

1. 국가일반 개황

가. 국가개황

튀니지의 정식 국명은 튀니지 공화국(프랑스어로 La République Tunisienne, 영어로 Republic of Tunisia)이고 수도는 튀니스. 위치는 북부 아프리카 중앙 지중해 연안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리비아, 서쪽으로는 알제리가 위치해 있다. 면적은 162,155 km²로 한반도의 3/4이며, 북부 및 북서부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이고 내륙 및 남부지역은 사막성 기후이다. 전국에 24개의 행정단위가 있으며 인구는 2014년 현재 약1,100만 명이다. 이중 수도인 튀니스(Tunis)에 1백만 명, 스팍스에 94만5천명, 수스에 62만2천명 등 인구의 약 7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민족은 아랍인이 98%, 유럽계가 1%, 그리고 유태인 및 기타가 1% 정도이며, 언어는 아랍어가 공용어이고, 불어는 상용어인데, 인구의 대다수가 불어를 유창히 사용한다. 종교는 이슬람이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튀니지는 1956년에 프랑스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하여 대통령 중심의 공화국을 건립하였고 우리나라와는 1969년에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7년 공화제로 이행해 초대 대통령으로 부르기바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부르기바 대통령은 1987년 당시 수상이던 벤 알리에 의하여 축출되었고, 이후 벤 알리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벤 알리 대통령은 튀니지의 근대화, 서구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주의 운동, 이슬람 과격주의 운동을 탄압,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2010년 12월 17일 26세 대졸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튀니지 중부 시디 부지드 지역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하면서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되었다. 23년간 집권한 벤 알리 대통령이 물가상승과 실업률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에 밀려 2011년 1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한 뒤 여야 통합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과도정부는 튀니지의 정치,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사범 전원 석방, 언론자유 보장을 내세웠으나, 간수치 총리를 비롯한 구세력이 요직을 차지하자 시위가 지속되었다. 서구 언론과 네티즌들은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 재스민의 이름을 따 이들의 거사에 ‘재스민 혁명’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되었다.⁴⁾

4) KOTRA Globalwindow 국가정보 내용을 재구성

2. 정치 현황

가. 정치적 상황⁵⁾

2014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세속주의 성향의 베지 카이드 에셉시(88)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튀니지는 이슬람주의 정권에서 다시 세속주의 정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임시 대통령이었던 몬세프 마르주키(67)가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동안 2년 넘게 과도기 집권당 역할을 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 엔나흐다(Ennahdha)는 2011년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랍의 봄’ 이후 치러진 첫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실정에 따른 반감에 경제적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올해 두 번째 총선과 대선에서 패하였다.

튀니지는 2015년 2월 4일 새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된 후부터 계속돼온 정권 이행 과정이 완료되었다.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중동 각지에 ‘아랍의 봄’ 정변이 일어났지만, 튀니지는 독재에서 민주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 침체와 치안 회복이 새 정권의 최대 과제이다. 튀니지는 이러한 변혁을 거치면서 정부조직도 여러 번 변화를 거듭하다 새 내각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부를 조직하였다. 과도정부의 중앙 부처조직과 새 정부의 조직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5)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표 2-2> 중앙부처 변화

과도 정부		새 정부
총리실 (Chef du Gouvernement)	⇒ 존속	총리실 (Chef du Gouvernement)
내무부 (Ministère de l'intérieur)	⇒ 존속	내무부 (Ministère de l'intérieur)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justice transitionnelle)	⇒ 부처명 변경 존속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
외교부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존속	외교부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국방부 (Ministère de la défense nationale)	⇒ 존속	국방부 (Ministère de la défense nationale)
교통부 (Ministère du Transport)	⇒ 존속	교통부 (Ministère du Transport)
종교부 (Ministère des affaires religieuses)	⇒ 존속	종교부 (Ministère des affaires religieuses)
재경부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 부처명 변경 존속	재정부 (Ministère des Finances)
농업부 (Ministère de l'Agriculture)	⇒ 부처명 변경 존속	농업·수자원·어업부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s ressources hydrauliques et de la pêche)
산업자원부 (Ministère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s mines)	⇒ 존속	산업자원부 (Ministère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s mines)
건설부 (Ministère de l'équipemen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 폐지	-
관광부 (Ministère du tourisme)	⇒ 폐지	-
통상수공업부 (Ministre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 폐지	-
청년스포츠여성가족부 (Ministère de la jeunesse, des sports, de la femme et de la famille)	⇒ 폐지	-

과도 정부		새 정부
문화부 (Ministère de la Culture)	⇒ 부서명 변경 존속	문화·문화재보존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sauvegarde du patrimoine)
보건부 (Ministère de la santé publique)	⇒ 존속	보건부 (Ministère de la santé publique)
사회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 존속	사회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교육부 (Ministère de l'éducation)	⇒ 존속	교육부 (Ministère de l'éducation)
고등교육과학기술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부처명 변경 존속	고등교육·과학연구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고용·직업훈련부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부처명 변경 존속	직업훈련·고용부 (Ministèr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 l'emploi)
신설		투자·국제협력부 (Ministère des Investissements et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국토부 (Ministère des Domaines de l'Etat et des affaires foncières)
		환경·지속가능발전부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설비·주거·지역개발부 (Ministère de l'Équipement, l'habitat et l'aménagement du territoire)
		관광·수공업부 (Ministère du tourisme et de l'Artisanat)
		통상부 (Ministre du Commerce)
		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Ministère des Technologies de la communication et de l'économie numérique)
		여성·가족·유아부 (Ministère de la Femm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청년·스포츠부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자료: 튀니지 중앙정부 공식 포탈, 연구진 재구성.

위의 새 정부 조직에서 신설된 부처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처는 투자·국제협력부이다. 이는 해외자본 유치 및 개발협력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튀니지의 새 정부가 개발자본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점이다.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2011년에서부터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의 정치적 변화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년 1월 전 대통령 벤 알리 망명

튀니지의 전 대통령 벤 알리는 23년간 정치권력을 유지해 오다가 재스민 혁명으로 인해 2011년 1월 14일 망명을 떠났다. 벤 알리의 퇴진 이후, 마르주키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슬람 정통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살라피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시민단체는 자유롭고 투명한 제헌국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정부를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 2011년 10월 제헌의회 총선과 엔나흐다(Ennahdha)당 승리

2011년 10월 23일 치러진 제헌의회 총선에서 튀니지 등록유권자의 90%가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의회는 새 헌법을 마련하고 2013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튀니지를 이끌 과도정부 수반을 지명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총 90석을 차지하여 제1당에 오른 엔나흐다(Ennahdha)당은 벤 알리 전 대통령 시절 탄압으로 와해됐으나 선거를 통해 부활했다. 이 선거에서 엔나흐다(Ennahdha)당은 중도좌파정당인 공화국을 위한 회의(CPR)와 사회민주당(Ettakatol)과 연정을 하였고, 초기에 이 연립정권의 목표는 1년 안에 새로운 헌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3) 2011년 12월 과도정부 수립과 소요사태

2011년 12월에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대통령에는 몬세프 마주르키(Moncef Marzouki), 총리는 메흐디 조마(Mehdi Jomâa), 그리고 주요 정당으로는 엔나흐다(Ennahdha)당 외에 공화국을 위한 회의(CPR), 사회민주당(MDS), 진보민주당(PDP)이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단원제, 217석)은 국민이 선출하되, 임기는 5년으로 하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은 총리가 관할하며, 대통령이 내각 각료 및 13개 주의 주지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도정부 이후에도 수차례 시위가 있었는데, 특히 2012년 말에서 2013년 11월 사이 발생한 소요사태는 정치적 수습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과도정부가 내무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네 개의 주요 장관 임명 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임하였고, 국가안전과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4) 2014년 1월 새 헌법 채택

2013년 10월 주요 정당에 의해 서명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비로소 2014년 1월 새 헌법의 채택과 새로운 정부 수립이 발표되어 6개월 이상 지속된 튀니지의 정치적 위기가 종식되었으며, 비상사태도 해제되었다.

이후 튀니지 증권거래소가 정상화되었고, 튀니지의 화폐인 디나르(DT)도 달러와 유로화에 대해 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IMF는 5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하는 등 경제도 정상을 찾아갔다. 2014년에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정치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새로이 발표된 헌법은 종교의 자유, 남녀평등권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담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가 국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율법을 법의 근간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아랍국 헌법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가 환경보호, 부패방지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나. 외교⁶⁾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튀니지는 독립 이래 부르기바 정권 하에서 정착된 친서방, 온건 외교노선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의 우호정책을 통한 지역안정과 서방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외교 목표로 두었다. 그리고 아랍연맹, 아프리카 연합, 마그레브 지역연맹 및 지중해 연합의 일원으로서 다자관계 외교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경안전과 지역정세 안정에 최우선 외교적 목표를 두고 아랍 및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의 우호친선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르기바 정권에서 친서방 및 대 이스라엘 유화정책이 가져온 아랍국들과의 불화 및 이에 따른 안보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요 대외정책 목표는 ① 온건 친서방 노선을 통한 안보확보, ② EU와의 경제·사회 통합에 준하는 관계강화, ③ 아랍, 아프리카와의 연대강화, ④ 아시아 등 여타국과의 협력발전 등이다.

1) 대 알제리 관계

튀니지는 1960년대 초 알제리 독립전쟁 발발 시 프랑스와의 갈등을 무릅쓰며 튀니지 내 알제리 임시정부를 허용하고 후방 보급기지로서 또는 게릴라전으로 알제리를 지원한 바 있으나, 양국은 알제리 독립직후 국경분쟁을 겪었다. 특히 친서방 노선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견지하는 튀니지 외교노선은 독립 직후 급진 아랍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알제리와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의 관계는 모로코와 알제리의 사하라 분쟁 및 리비아의 튀니지 저항세력 선동으로 부딪침을 거듭하다 1970년 국경조약을 체결하고 1983년 장기우호조약을 체결한 이래 안정적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6)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2) 대 EU 및 프랑스와의 관계

튀니지는 아랍권 국가로서는 특수하게 서구와 오랫동안 문화, 역사를 공유하며, 오늘날에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EU-남부 지중해 연안국의 간의 협력체인 Barcelona Process 및 지중해 연합의 일원으로서 EU와 경제·사회적 통합수준의 관계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U와 튀니지는 마그레브 지역의 정세안정을 공동목표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EU로서는 남부 국경에 해당하는 마그레브 지역의 안정이 불법이민 단속과 국경 및 치안 유지에 필수적이고, 튀니지로서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외경제의 80% 이상을 점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튀니지 교민이 거주하는 유럽과의 관계강화가 최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암묵적으로 튀니지의 긴급위기 시 구조책임을 자임⁷⁾하는 등, 튀니지 안보와 정세안정에 유의하고 있다.

3) 대미관계

튀니지는 독립운동 시절부터 친서방, 친미 정책을 견지하며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독립 후에도 비동맹 및 아랍권에서 친미입장을 유지, 미국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의 경제원조 및 안보협력의 큰 수혜자가 되었다. 1980년 초 부르기바 대통령의 방미 시, 레이건 대통령은 튀니지의 영토 및 안전보장을 확인하고 튀니지 군 현대화를 약속한 바 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은 주요 경제파트너이며, 주로 튀니지의 자원에 투자하고 있다.

튀니지는 중요한 안보협력국인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외교의 최우선에 두고 있었으나, 아랍권과의 유대 및 국내적 이슬람 정서를 의식하여, 팔레스타인, 이라크 및 리비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7) 1980년 리비아 선동 저항군의 튀니지 공격 시 프랑스 군함 파견 등

4) 지역기구들과의 관계

튀니지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시 아프리카 국가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으며, 독립 후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의 창설멤버이자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로서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랍연맹의 일원이기도 한 튀니지는 아랍연맹에 비해 단결력이 큰 아프리카연합(AU)과의 외교적 연대감을 외교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9년 2월 마그레브 5국(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아)은 지역 내 단일시장 창설을 목표로 마그레브아랍연합(UMA)을 설립, 본부를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⁸⁾에 두고 각국이 1년 순환 의장국을 맡고 있으나, 94년 제 6차 정상회담을 끝으로 정상회담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모로코가 서부 사하라 독립을 지지하는 알제리에 반발하여 1994년 의장국인 알제리의 정상회담 소집을 거부한 이래, 계속 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튀니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그레브아랍연합(UMA)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튀니지의 이니셔티브로 2001년 1월 마그레브아랍연합(UMA) 재활성화에 합의한 마그레브 5국은 자문이사회, 재판소, 마그레브대학 및 과학 아카데미, 마그레브 투자무역은행(본부 튀니스)을 창설하였다. 최근에 청년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경제적, 사회적 개발 전망을 논의하였고, 마그레브아랍연합(UMA)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별 산업화를 도모하는 세미나가 열렸으며, 마그레브 경제 공동체 창립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었다.

한편, 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OIC)는 1969년 9월에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1971년 5월 정식 출범하였다. 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젓다에 소재하며, 이슬람 57개국 회원국 간 이슬람 유대강화와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다.⁸⁾ 최근 2014년 3월 8일 처음으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감사의 의사를 밝혔다.

8) 2011년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음.

튀니지는 자원빈국이자 인구나 면적 면에서도 아프리카의 소국가로서, 친서방, 자유경제, 중도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역내 분쟁에 연계되지 않고 인접국들과 우호적인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마그레브 및 아프리카 불어사용국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온건·중립적 입장을 취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여 왔다.

튀니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적 및 기술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및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대 아프리카 외교의 기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이 튀니스에 임시본부를 둔 것을 계기로, 아프리카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였다.

5)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튀니지는 서구 일변도의 경제·통상관계를 탈피하고 대외경제 다변화 및 자립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삼아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였고, 중국, 일본과는 정상급 교환 등으로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3. 경제 현황⁹⁾ 10)

가. 경제지표¹¹⁾

튀니지는 베알리 정권 하에서 착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재스민 혁명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2008년에 발생했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불황, 수출 상대국인 유럽국가의 수요둔화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쳤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9) RFI 프랑스(2013-05-3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Country Report: Tunisia".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자료

10) KOTRA Globalwindow 국가정보: 튀니지 내용 재구성

11)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참조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하에 관광, 운송, 통신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섬유, 전기/전자 등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까지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1년 재스민 혁명 후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벤 알리 정권 붕괴 후, 2011년에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다.

재스민 혁명의 원인인 높은 실업률과 지역 간 격차, 낮은 생활수준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서 혁명 이후 계속되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튀니지 국영기업들 다수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¹²⁾

튀니지의 주요경제 지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먼저, 2011년과 2012년 사이 GDP와 1인당 GDP가 재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2012년부터는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튀니지는 재스민 혁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성장률의 회복세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명목상으로 4,213 달러이지만 PPP(실질구매력)기준으로는 약 8,963 달러로 충분한 구매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표 2-3>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443	464	454	484	515
	1인당 GDP	달러	4,199	4,350	4,213	4,431	4,654
	경제성장률	%	2.9	-1.9	3.6	3.0	3.7
	예산적자	백만 디나르	-651	-2,128	-3,641	-1,181	
	재정수지/GDP	%	-0.9	-3.4	-4.9	-6.8	-4.3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3.5	5.6	6.0	4.7

12) 신용평가 리포트(2012.11)

	경 제 지 표	단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 외 거 래	환율(\$, 연중)	TD	1.4	1.4	1.6	1.6	1.7
	경상수지	백만 달러	-2,105	-3,402	-3,674	-3,868	-3,390
	상품수지	〃	-4,512	-4,747	-6,301	-7,487	-7,467
	수 출	〃	16,493	17,876	17,071	17,459	18,029
	수 입	〃	21,005	22,623	23,102	24,946	25,496
	서비스수지	〃	2,397	1,440	1,829	2,037	2,159
	자본수지	〃	1,839	1,619	5,013	-	-
	외국 직접투자	백만 디나르	2417.7	1711.3	1809.7		
	외환보유액	〃	9,462	7,457	8,360	8,113	8,320
	국가신용등급	Moody's	Baa2	Baa3	Baa3		
외 채 현 황	총외채잔액	〃	21,400	22,000	24,200	26,100	27,700
	단기 외채	〃	4,979	5,495	4,795	-	-
	총외채잔액/GDP	%	48.3	47.4	53.3	53.9	53.8
	외채상환액/총수출	%	9.5	10.7	9.5	9.0	8.4
산업구조(2013)		농업 8.6%, 제조업 30.4%, 서비스업 61.0%					
주요 수출품(2012)		의류 및 직물, 반제품, 농산물, 화학제품					
주요 수입품(2012)		직물, 기계 및 운송장비, 탄화수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Business News

그러나, 정부의 2013년도 예산적자 규모는 11.8억 디나르로 현금보유고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2011년 혁명 이후 튀니지 임시정부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해외투자 유치와 함께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연합정부 내에서 관점의 차이, 산업의 침체, 실업률 증가, 그리고 장기 정책수립의 어려움 등이 튀니지의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한 차관을 제공한 국가들이 튀니지 정부에 공공지출과 국가부채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알카에다 세력은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외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튀니지의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를 보면, 주요 수출품은 양말/의류, 과자, 원유, 실, 전기 케이블, 인산이암모늄, 인산염이고, 주요 수출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리비아, 영국 등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 수입품은 정제된 제품, 식물, 철, 강철, 플라스틱, 용구, 원유 등이고, 주요 수입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리비아 등으로 주요 수출국가와 대동소이하다. 수출입 품목 구성 및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대외무역-수출입

(단위: 백만 디나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전체수출	13,794	15,558	19,410	23,637	19,469	23,519	25,092	26,548	27,701
아프리카로 수출	1,242	1,518	1,893	2,428	2,554	2,759	2,844	3,163	3,315
주요품목									
양말, 의류	4,005	3,972	4,523	4,564	4,172	4,379	4,614	4,207	4,499
원유	1,416	1,564	2,632	3,219	2,093	2,979	3,218	2,928	2,839
전기 케이블	763	773	1,003	1,254	1,354	1,850	...	...	...
인산이 암모늄	329	389	509	1,074	502	768	334	504	491
인산	283	317	344	887	418	519	333	488	349
주요 수출국									
프랑스	4,525.1	5,020.7	6,239.2	6,735.3	5,770.5	6,750.0	7695.0	7,154.0	7,305.5
이탈리아	3,308.2	3,437.0	4,519.2	4,883.9	4,095.1	4,675.0	5,432.0	5,013.0	5,116.7
독일	1,156.5	1,220.3	1,596.7	1,637.1	1,711.8	1,987.0	2,271.0	2,183.0	2,489.8
리비아	622.6	825.8	892.7	1,065.2	1,121.2	1,048.5	1,103.3	1,293.2	1,411.0
영국	394.0	452.4	835.5	1,099.4	925.5	1,181.0	702.0	8,26.0	1,045.9
수입									
전체수입	17,292	20,004	24,437	30,241	25,878	31,817	33,695	38,178	39,509
아프리카로 부터 수입	1,092	1,545	1,712	2,755	1,852	1,817	1,419	2,777	3,277
주요품목									
정제제품	1,571	1,932	1,936	3,084	1,691	3,033	3,692	3,616	3,550
섬유	1,757	1,735	2,120	2,121	1,901	2,069	2,218	2,022	2,128
철강	583	746	1,048	1,407	749	1,084	1,188	970	101
플라스틱 구성재료	816	926	1,132	1,264	1,197	1,488	1,690	1,819	2,094
원유	561	710	746	1,149	676	233	385	1,342	1,55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요 수입국									
프랑스	4,023.0	4,525.9	5,226.9	5,585.7	5,334.0	6,019.2	6,164.7	6,280.5	7,215.3
이탈리아	3,708.9	3,857.8	4,764.1	5,213.4	4,184.0	5,596.0	5,332.0	5,415.0	5,721.8
독일	1,418.0	1,573.7	N/A	2,109.1	2,250.9	2,429.7	2,487.7	2,630.8	2,826.7
러시아	487.1	755.5	1,042.0	2,279.5	961.6	1,481.3	1,936.9	1,575.9	1,064.2
리비아	661.9	965.9	826.7	1319.2	754.4	406.3	31.5	492.6	664.6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4

한편,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튀니지의 주요 교역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튀니지의 주요 교역국

(1995-2011, %)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	비중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	비중
프랑스	29.42	프랑스	21.25
이탈리아	19.22	이탈리아	17.74
독일	10.29	독일	8.95
리비아	6.63	스페인	5.00
스페인	3.83	중국	4.76
벨기에	3.08	러시아	4.51
알제리	2.42	리비아	3.61
네덜란드	2.28	터키	3.43
미국	2.01	알제리	2.91
영국	1.91	미국	2.51

자료: AfDB. Open Data for Africa.

튀니지의 아프리카 내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에티오피아, 이집트로의 수출비중이 대 아프리카 수출의 86.3%를 차지한다. 또한,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코트디부아르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대 아프리카 수입비중의 97.3%에 달한다. 튀니지의 아프리카 지역 내 총교역액은 전체 GDP 중 4%(1996-2000년), 5.1%(2001-2006년), 8.2%(2007-2011년)를 차지하였다.¹³⁾

13) UNCTA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Report 2013 - Intrafrican Trade: Unlocking Private Sector Dynamism"

재스민 혁명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대규모의 무역적자, 외환수익 감소, 수입규제, 투자가치 상실 및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유로·달러 대비 튀니지 화폐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에,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달러·유로에 대한 고정 환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대두되어 왔다.

<표 2-6> 유로 및 달러 대비 튀니지 디나르 환율변동 추이

(단위: 달러, 유로)

	2010.12	2011.12	2012.12	2013.4	2015.4
TND/USD	1.438	1.499	1.572	1.610	1.951
TND/Euro	1.922	1.938	2.042	2.092	2.121

자료: 튀니지 중앙은행

튀니지의 국가신용등급은 초크리 벨라이드(Chokri Belaid) 야당 정치인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정치·사회적 불안증대로 BB에서 BB-로 강등되었고, 이에 따라 200억 유로가 넘는 튀니지 대외채무 상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튀니지의 높은 실업률과 중산층 축소는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3년도 튀니지의 15세 이상 실업률은 15.9%인데, 해당 수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2-7> MENA 국가들의 15세 이상 실업률

(단위: %)

Country	2010	2011	2012	2013	2014
알제리	10	10	11	9.8	-
이집트	9	12	12.7	13.2	-
이란	13.5	-	-	10.4	-
이라크	-	8	-	-	-
요르단	12.5	12.9	12.2	12.6	-
리비아	-	-	19	-	-
모로코	9.1	8.9	9	9.2	9.7
카타르		0.6	0.5	0.3	
사우디아라비아	5.5	5.8	5.6	5.7	5.9
시리아	8.6	14.9	-	-	-
튀니지	13	18.3	17.6	1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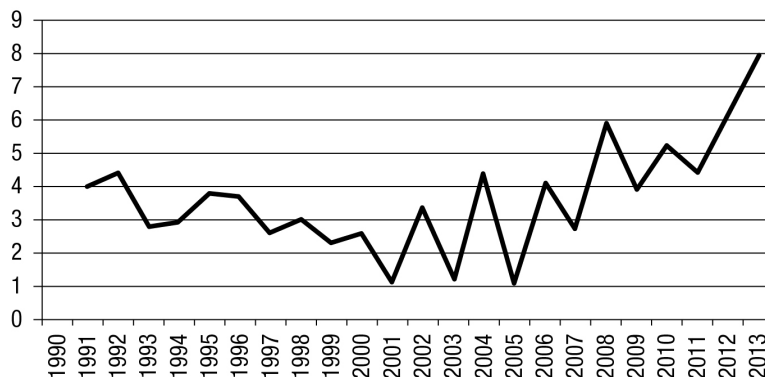
자료: ILO, LFS - Enquête Emploi auprès des Ménages

튀니지의 실업률은 2010년에 13%에서 2011년에 18.3%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2012년에는 17.6%로 소폭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15.9%까지 하락하였다. 튀니지 실업률의 3분의 1은 젊은 대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없고 구한다고 해도 월 급여 600디나르(약 373달러) 내외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튀니지의 고실업과 함께 물가도 치솟았다. 2012년 공식 인플레이션률은 5.6%이지만, 튀니지 소비자보호협회는 실제 인플레이션률은 10-15%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튀니지는 견실한 중산층을 갖고 있던 국가였으나 인플레이션 증가, 가계부채 심화 및 임시고용 현상 확산으로 중산층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하루 2-4달러(약 5디나르) 이하의 수입을 빈곤층으로 구분할 때 현재 튀니지 중산층의 빈곤화가 두드러지는 상태이며 빈곤층 비율은 총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2] 튀니지 인플레이션율 변화(1990-2013)

(단위: %)



자료: 튀니지 국립 통계연구소(INS)

나. 산업부문별 현황

산업 부문별 현황을 보면, 먼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¹⁴⁾에서 산업별 GDP 비중은 농업 8.6%, 제조업 30.4%, 서비스 61%이다. 관광 부문에서 얻는 외화와 산업 활동이

14) CIA World Factbook, 2013년 추정치

많으며, 2009년 추정치에 따르면 직업별 분포도는 농업 18.3%, 제조업 31.9%, 서비스 49.8%이다.

튀니지의 농업부문은 전체 수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산업부문은 2012년까지 7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주 생산품은 올리브, 올리브 오일, 곡물, 토마토, 감귤, 사탕무, 대추야자, 아몬드, 소고기, 낙농 제품이다.¹⁵⁾

〈표 2-8〉 농업부문 주요 품목의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곡류	2,097	1,610	1,988	1,188	2,534	1,080	2,310	2,273	1,295
올리브유	650	1,050	900	1,000	800	750	600	900	1,194
대추야자	113	131	124	145	162	174	190	192	190
감귤류	243	262	247	300	297	308	352	360	362
우유	920	979	1,006	1,010	1,048	1,054	1,088	1,124	1,160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제조업/광업/서비스업의 경우, 석유, 광업(인산염, 철광석), 관광, 직물, 신발류, 농산업/식품, 음료가 주 생산품이다. 한편 에너지 산업에서 탄화수소는 튀니지 GDP의 7.4%를 기여하고 있다.¹⁶⁾

〈표 2-9〉 광업생산량

(단위: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산염	8220.4	7800.8	8001.8	7691.7	7409.0	8148.5	...	...	...
납광석	13.6	...	...	...	...	...	...	...	...
철광석	206.4	214.3	180.4	206.5	151.3	180.5	171.1	279.0	...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15) Ibid.

16) Ibid.

튀니지의 관광산업은 튀니지 GDP의 15%를 차지하고 4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0> 관광산업 현황(2005-2013)

관광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튀니지 방문 관광객수(1,000)	6,975	7,176	7,512	7,750	7,611	7,715	5,451	7,635	6,000
호텔 객실 수 (1,000)	816	825	834	836	856	856	861	846	...
관광 수입 (US\$1,000,000)	2,128	2,256	2,555	2,931	2,751	2,623	1,894	2,203	2,167
GDP 대비 관광 수입비중(%)	19.5	20.0	19.5	19.1	18.4	17.6	14.7	15.7	15.2
총고용 대비 관광 산업 고용비중(%)	17.5	18.0	17.6	17.2	16.6	15.9	13.7	14.2	13.8

자료: Trape, Philippe. And Mickaëlle Chauvin. 2015. "Tunisia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2000년 이후 튀니지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2012년에는 동 분야의 수출이 3.870 백만 TND에 도달하였으며, 고용도 60,000명에 달했다. 튀니지는 현재 자동차부품 산업에 230개의 회사가 있으며, 이중 134개의 회사가 자체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튀니지 자동차부품 산업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첫째, 4,5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 등 숙련된 인적자원의 가용성, 둘째, 15개의 전자, 통신, 일반 기계, 플라스틱, 유지 보수, 에너지, 금속, 건설에 대한 교육훈련센터들을 포함한 높은 품질의 교육 인프라, 셋째, 경쟁력 있는 생산비용 등이다. 업계는 초기에 조립을 주로 하는 낮은 부가가치 활동이 위주였으나, 성공적인 국제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튀니지의 자동차 보유가정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자동차 보유가정 비율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율	20.0	21.3	22.7	22.6	19.0

자료: Trape, Philippe, Mickaëlle Chauvin. 2015. "Tunisia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튀니지는 경제·사회 발전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여기에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에 정보통신 산업은 튀니지 국내 총생산(GDP)의 7.5%까지 기여했고 3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튀니지는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이 풍부한데, 매년 직업 시장에 진입하는 70,000명의 학생들 중 13,000명이 ICT 분야이다. 또한 높은 품질의 ICT 플랫폼을 들 수 있는데, 튀니지는 글로벌 IT보고서에서 지중해 남쪽 국가들 중에서 네트워크 준비 지수의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인적자원 및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 때문에 정보통신 산업은 튀니지의 주요 소득창출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튀니지 통신분야에서 핸드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과 인터넷 망 이용자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튀니지 총 인구 수 10,880,000명 중 37%(2012년)가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는 기존 25%(2008년)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표 2-12> 핸드폰 보유대수

	보유대수(천대)
2008	8,602
2009	9,797
2010	11,114
2011	12,387
2012	12,841

<표 2-13> 인터넷 망 이용자 수

	이용자 수
2008	2,800,000
2009	3,500,000
2010	3,900,000
2011	4,200,000
2012	4,100,000

자료: Trape, Philippe. And Mickaëlle Chauvin. 2015. "Tunisia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튀니지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다. 해당 산업은 튀니지 GDP의 4% 이상을 차지하고, 23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튀니지 수출의 25% 이상을 기여함으로써 무역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문제는 현재 낮은 부가가치에 있으므로 향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 둘째,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며, 셋째,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발달된 교육훈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튀니지는 앞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에 있어 자동차, 항공, 의료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마그레브 시장 및 유럽과 협력뿐 아니라 합작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튀니지에서 선도적인 산업이 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이 산업의 수출은 25백만 TND를 기록하였고, 7,500개의 일자리를 생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550백만 TND까지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튀니지에는 세계적인 대형 항공기업의 하청 업체가 65개 있다. 튀니지에서 항공산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훈련센터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 200 헥타르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전문 “Mghira”라는 항공 테크노 폴이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튀니지 항공부품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성장했다. 이는 플라스틱 부품의 표면 처리, 얇은 시트 금속, 3차원 부품 모델링 등 더 높은 부가 가치를 가진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튀니지에서 전기장비 부품산업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전기 및 전자산업은 2013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의 3.4%를 차지했으며, 국가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에너지 분야는 최근 몇 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로의 발전원을 다각화 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전력 생산의 3%에 불과하나, 태양에너지 관

런, 튀니지는 높은 햇빛 비율(연평균 1,400에서 1,600시간)을 갖고 있는 등, 비교 우위를 자랑한다.

의료 분야는 역대 튀니지 정부가 우선순위를 부여해 온 부문으로서, 의료기술과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 서비스의 수출이 확대되었다. 튀니지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데, 2013년에 의료서비스를 위해 튀니지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376,000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의료서비스 수출액이 7배가 더 커졌다. 따라서 튀니지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의료 관광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다. 향후 경제전망

튀니지 경제를 압박해오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개선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튀니지의 주요 산업인 인산염 채광산업은 계속되는 정국불안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모로코 등에 주 고객을 넘겨주었으며, 아주 느린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국불안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튀니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튀니지 경제의 회복세를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금융지원이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튀니지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이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며, 경영환경 또한 악화되어 튀니지 시장의 매력력이 저하되었다.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2014년 중 튀니스에서 아비장(Abidjan)으로 이전한 부분은 향후 튀니지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튀니지의 경제 성장률은 2013년 2.6%에서 2014년 3.0%로 소폭 확대된 후, 2015년에 이르러 4.5% 내외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6.1%

에서 2014년 5.5%, 2015년 5.0%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4-2015년에도 GDP 대비 평균 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2014년 GDP 대비 7.1%, 2015년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수지 적자는 튀니지 경제의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된다.¹⁷⁾

4. 사회·문화 현황

가. 아랍의 봄 이후 사회현상

튀니지는 그동안 민주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봄 이후 나타난 사회불안과 정치소요는 고학력실업, 부패 등 튀니지의 개발과제 중 많은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정부는 2011년 1월 구정권이 퇴출당한 이후로 지속되었던 비상사태를 연장하였다. 비록 정치 안정성은 혁명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정치적 폭력성과 사회 및 산업 불안은 지속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대부분의 정치적 폭력들은 살라피스¹⁸⁾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세속적인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에 대한 살라피스의 공격은 최근 몇 주간 증가하였고, 그들은 특히 이슬람교에 반대되는 알콜을 판매하는 호텔, 바, 레스토랑이나 미술전시관, 영화관, 코미디 쇼에 공격을 단행하였다.

17) 산업연구원. 2014. “2014년 2분기 글로벌 이머징 시장 국가별 경제 전망 보고서(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40502171758829771)

18) 이슬람국가들에는 살라피스트(Salafist)들이 있다. 이들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서 이슬람국가들이 7세기 이전의 이슬람 순수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또는 그 세력집단이다. 살라프(Salaf)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의 동료, 직계 제자를 뜻하는 말로 살라피스트는 「살라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원리주의 성향을 보이며 순수 이슬람 세계 건설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급진적 세력이다. 튀니지에도 살라피스트들이 있는데 이들은 튀니지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종종 다량의 흉기(칼 등)와 화염병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곤 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 민족구성 및 언어, 종교

튀니지 국민은 대부분 이슬람교의 아랍인이며 유럽인, 유대인, 베르베르족 같은 소수집단도 있다.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99%이다. 시민혁명 이후 많은 여성들이 히잡, 니캅 등을 착용하는 등 이슬람의 전통과 관습을 보다 충실히 지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로 되어있고 프랑스어가 상용어로 되어있으나, 튀니지 아랍어는 중동지역의 아랍어와는 상당히 다른 사투리격의 아랍어를 사용하며 외국인과의 대화는 주로 불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불어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의학이나 공학 등의 강좌와 비즈니스 언어는 거의 100% 불어로 이루어진다.

다. 문화적 요소

튀니지는 고유의 베르베르 문명과 기원전 1100년경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페니키아 문명, 카르타고, 로마, 반달, 비잔틴, 이슬람 문명이 혼합된 고유의 폭넓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 이래 형성되어 온 베르베르 문명과 기원후 7세기경부터 유입된 이슬람 문명이 튀니지 문화의 두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문화와 고유의 유산 보존을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튀니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튀니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튀니지가 있는 지역에는 BC 1100년경부터 베르베르족이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지역에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여 오면서 기원전 814년경에는 카르타고가 건국되었다. 그러나 로마와 시칠리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을 겪은 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한니발 바르카 장군이 활약을 펼쳤지만,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기원전 146년에 멸망했다. 현재의 튀니지와 리비아는 로마 지배 하의 아프리카 속령이 되었다. 로마 지배 하에서 로마화가 진행되어 기독교도 전래되었다. 439년에는 반달족이 침입하여, 카르타고에 반달 왕국을 세웠다. 반달 왕국은 534년에 비잔티움 제국에 멸망, 동로마 제국에 포함되었다.

7세기에는 이슬람교의 아랍인이 침입하여 베르베르인과 동로마 제국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 지역을 이슬람 세계에 편입시켰다. 1229년에 튀니지에 하프스 왕조가 성립되었는데 하프스 왕조는 서쪽으로는 알제리에서 동쪽으로 트리폴리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하프스 왕조는 1574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 1705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퇴조한 틈을 타서 튀니지에는 후세인 왕조가 성립되었다. 이 후세인 왕조는 252년에 걸쳐 이 지역을 지배하였으나 1883년 《마르사 협정》으로 튀니지는 1956년에 독립할 때까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튀니지는 베르베르 문화에 페니키아, 로마, 게르만 계통의 반달족, 아랍, 오스만 터키, 스페인과 프랑스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1. 개발환경

가. MDG 경과 추세분석

튀니지의 개발환경 및 주요 개발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MDG의 달성여부와 인간개발지수(HDI) 등 분야별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튀니지의 MDG 경과추세는 다음과 같다.

<표 2-14> MDG 분석결과

목표		결과	달성 여부
MDG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지표의 추세	1-a: 하루 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에서 2015사이에 1/2로 줄임	하루 1.25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 5.90 %(1990) 1.06 %(2010)	○
	1-b: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함	실업률: 14.3%(2012) 실업자 수: 378,500명(1994) 704,900명(2011)	X
MDG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지표의 추세	2: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6세-11세 아동 초등학교 등록률 87.4%(1990) 99.0%(2012)	△
MDG3: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제고 지표의 추세	3: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 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에 도달	여학생 비율 공립초등학교 0.83(1989/1990) 0.93(2012/2013) 중등학교 0.82(1989/1990) 1.17(2012/2013)	○
MDG4: 유아사망률 감소 지표의 추세	4: 1990년의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을 2015년까지 2/3로 감소시킴	영·유아출생 1000명당 사망률 43.8(1990/1994) 16.7(2005/2010)	○

목표		결과	달성 여부
MDG 5: 산모건강 증진 지표의 추세	5-a: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3/4 으로 감소시킴	산모사망률(100,000명당) 74.8(1990) 44.8(2008)	O
	5-b: 2015년까지 출산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피임보급률 49.8%(1990) 62.5%(2011) 출산 전 진료를 최소한 1번 이상 받은 여성의 비율 91.9%(2001) 98.2%(2011)	△
MDG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표의 추세	6-a: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음	HIV/AIDS에 감염된 경우 69(1990) 89(2012)	X
	6-b: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음	말라리아 감염통보 수 47(2000) 70(2012) 결핵발생 건수 (10만 명당) 27.2(1995) 21.5(2011)	X
MDG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지표의 추세	7-a: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	숲 면적/국토면적 비율 4.14%(1990) 6.58%(2011)	△
	7-b: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가스 배출량을 줄임	1인당 이산화가스 배출 1.63(1990) 2.41(2009)	X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1/2로 줄임	식수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85.7%(1994) 98.8%(2012)	O

자료: Nations Unies. 2014. Tunisie, Rapport National de Suivi 2013

주: O: 달성, △: 달성 가능성 있음, X: 달성 실패

목표 1-a는 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1/2로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튀니지의 빈곤률은 UNDP와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하루 1달러의 빈곤선으로 측정한 빈곤률은 없고, 대신 하루 1.25달러의 빈곤선으로 측정한 빈곤률이 1990년에 5.9%이었으나 2000년에 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루 1달러보다 높은 빈곤선을 적용하였을 때도 이미 2015년의 목표치인 2.95%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의 빈곤률이 2005년의 경우 3.8%였으나 농촌의 빈곤률은 7.1%, 도시의 빈곤률은 1.9%로 도농 간 빈곤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목표 1-a는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지역 간 빈곤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fDB의 Statistical Yearbook 2014를 보면 튀니지의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로 0.414(2005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도·농간 소득수준의 차이가 큰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목표 1-b는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여성과 청년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괜찮은 직업을 갖은 자들의 비율은 대단히 낮은 상태이다. 2015년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랍의 봄 이후 흐트러진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고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개발 전략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목표 2는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튀니지에서 초등교육의 경우 거의 이수한다고 보이지만 농촌지역 어린이의 일부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왔다. 그리고 6-11세 아동 중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37%가 튀니지 중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북서부에 18%, 중동부가 15%이고 수도 튀니스 지역에는 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3은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는 성차별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여성차별이 대단히 심하고 특히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

목표 4는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을 2/3로 감소하는 것이다. 영·유아 사망률은 확실히 감소하여 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5-2010년의 영·유아 1000명당 사망률이 도시의 경우 12.2였으나 농촌의 경우 24.6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목표 5-a는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모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3/4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1/2로의 감소는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5-b는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임 접근성의 경우 약 60%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전 보건혜택은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심한데 산전 보건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목표 6-a는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 것이다. 전체 인구 대비 신규 감염자의 발생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매년 약 70건의 새로운 보균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균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HIV/AIDS에 대한 튀니지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목표 6-b는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확산을 감소세로 돌려놓는 것인데, 전체 인구 대비 신규 감염자의 비율은 매우 낮으나, 여전히 말라리아는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 7에서, 숲을 복원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나 이산화가스 배출 감소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튀니지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다.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는 시디 부지드(Sidi Bouzid), 카세린(Kasserine), 탈라(Thala) 등 내

륙의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튀니지 사회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나. HDI 자료¹⁹⁾

튀니지와 기타 4개 연구대상국(모로코, 알제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간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비교해 보면, 튀니지가 HDI, 기대수명, 예상취학년수, 1인당 GNI에서 모두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취학년수는 알제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2-15> HDI 비교

HDI 순위 (총187개국중)		HDI 값 (2013)	기대수명 (2013)	평균 취학년수 (2012)	기대 취학년수 (2012)	1인당GNI (2011 PPP \$) (2013)
90	튀니지	0.721	75.9	6.5	14.6	10,440
93	알제리	0.717	71.0	7.6	14.0	12,555
129	모로코	0.617	70.9	4.4	11.6	6,905
163	세네갈	0.485	63.5	4.5	7.9	2,169
171	코트디부아르	0.452	50.7	4.3	8.9	2,774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한편, 튀니지는 모로코와 알제리에 비해 성불평등도도 제일 낮고, 여성 HDI / 남성 HDI 의 비율은 제일 높으며, 그리고 문자 해독율도 제일 높은 편이다. 반면에 튀니지는 알제리와 모로코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실업률과 실업률 모두 이들 두 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는 모로코나 알제리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회적 측면, 즉, 교육과 양성평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다.

19) UNDP. 2014. "Tunisia" In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http://hdr.undp.org/sites/all/themes/hdr_theme/country-notes/TUN.pdf

〈표 2-16〉 역내 주변국 간 HDI 세부지표 비교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HDI순위 (187개국 중)		90	93	129
Gini계수 (2003-2012)		0.361	-	0.409
성불평등 지수 (2013)		0.265	0.425	0.460
여성 HDI/ 남성 HDI (2013)		0.891	0.843	0.828
문해율 (2005-2012)	15세 이상	79.1	72.6	67.1
	15-24세	97.2	91.8	81.5
고용률 (전체 인구에서 25세 이상인면서 고용된 자의 비율)		47.1	45.4	51.5
실업률 (15세 이상)		17.6	9.8	9.0
청년 실업률 (15-24세)		42.3	22.4	18.6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다. 분야별 지표 분석

1) 교육

UNESCO 교육지표에 따르면, 튀니지 교육은 총 113개국 중 7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튀니지는 0.919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지표’인 EDI(The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는 초등학교 입학률, 성인 문자해독율, 성별 교육 평등지수, 교육의 질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가 84위, 모로코가 86위에 위치한 것을 보았을 때 튀니지의 교육 지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률은 몇몇 선진국 보다 더 높다.

<표 2-17> 튀니지의 UNESCO 교육 지표

EDI 순위	초등학교 입학률	성인 문해율	성별 교육 평등지수	교육의 질
75위(0.919)	0.999	0.797	0.916	0.962

자료: UNESCO Global Monitoring Reports 2015

2) 보건의료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의료 지표들을 보면 튀니지의 5세 이하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16.6명으로 알제리나 모로코에 비해 월등히 낮다. 그리고 안전식수 접근률은 96%로 알제리와 모로코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기대수명 역시 75세로 알제리와 모로코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튀니지의 보건/의료 수준은 북아프리카 불어권 3국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8> WHO 보건/의료 지표

지표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5세 이하 영아사망	16.6명/1000명당(2013년)	31.4명/1000명당(2013년)	31.4명/1000명당(2013년)
안전식수 접근률	96%(2011년)	84%(2011년)	82%(2011년)
기대수명	75세(2012년)	73세(2013년)	72.4세(2013년)

자료: AfDB Statistical Yearbook, 2014

3) 농업

튀니지는 총 토지면적 중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농업용 토지에서 관개설비를 갖춘 토지의 비중이 2011년 현재 3.8%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비료 소비율은 북아프리카 평균인 15kg보다 7적은 8kg을 기록했다. 농촌지역의 수자원 접근률은 북아프리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9> World Bank 농업 수치

지표	튀니지	북아프리카 지역평균	년도
관개설비를 갖춘 농토 (총 농지 중 비율)	3.8%	-	2011
경작지(한 사람당)	0.26 ha	-	2012
농업에 이용되는 땅의 비율	63%	28.9%	2009
비료 소비율 (경작지와 영구작물에 헥타르 당 kg)	8 kg	15 kg	2009
농촌지역 수자원 접근률	91%	49%	2012

자료: World Bank Agriculture indicator

4) 산업

튀니지는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현재 61%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변국인 알제리(41.9%), 모로코(54.9%)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에서 대표적인 분야로 평가되는 관광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4.9%²⁰⁾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자료에 따르면 튀니지의 관광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17.6%이었으나 2011년에는 14.6%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2013년에 14.9%로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0> World Bank 산업 수치

지수	수치	년도
농업 부가가치(GDP %)	8.6%	2013
산업 부가가치(GDP %)	30.4%	2013
서비스 부가가치(GDP %)	61.0%	2013

자료: World Bank indicator

20)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자료, <http://www.wttc.org/datagateway/>

5) 인프라

튀니지의 인프라는 북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다.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99.5%가 전기공급을 받고 있으며, 도로 포장률도 76.3%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011년 현재 130대로 알제리의 120대나 모로코의 100대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튀니지는 일반 유선전화 회선설비 상태가 미흡하여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쪽이 더 쉬운 관계로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표 2-21> 인프라 현황(2007-2012)

인프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기 공급(인구 %)	-	-	-
	99.5	99.5	
도로 포장률(%)	-	75.2	75.2
	76.0	76.3	
1,000명당 자동차 수(대)	115.8	113.9	118.3
	124.6	130.0	
항공운수, 승객수	2,054,679.0	2,274,580.0	2,278,964.0
	2,739,634.0	2,749,847.0	3,283,597.0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TEU: 20ft 컨테이너 1개)	420,501.0	424,780.0	418,883.9
	466,397.9	492,982.6	512,701.9
도로밀도 (토지면적 100 sq.km 당 도로 km)	-	11.8	11.8
	11.9	11.9	
100명당 유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0.9	2.2	3.5
	4.5	5.1	4.9
100만 명당 안전한 인터넷 서버	8.9	10.6	12.5
	14.1	19.3	13.1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가입자 수	12.4	11.9	12.2
	12.1	11.3	10.2

자료: World Bank Indicator

6) 거버넌스 및 사회통합

거버넌스 측면에서 튀니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프리덤 하우스는 보고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튀니지의 거버넌스 지수(IIAG,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는 100점 중 66점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 8위를 기록하였다.

<표 2-22> 튀니지의 거버넌스 지수

연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점수/100	61.6	64.8	62.0	61.9	60.7	65.3	66.0

자료: 2013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SUMMARY

<표 2-23> 튀니지의 거버넌스 세부지수(2012)

종합 점수	안전 및 법규		참여 및 인권		지속가능한 경제기회		인간개발	
66.0	58.0	17위	56.0	17위	65.8	4위	83.3	3위

자료: 2013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SUMMARY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 발표한 튀니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41/100점으로써, 177개국 중 77위이다. 이는 세계 평균 43/100점과 비슷하다.

<표 2-24> 부패인식지수 연도별 추이

국가 \ 연도	2012	2013	2014
튀니지	41/75위	41/77위	40/79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4: Results"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7) 경제자유도

튀니지의 경제자유 지수는 57.3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178개국 중 109위를 기록하였고, MENA 15개국 중 1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낮은 경제자유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표 2-25〉 튀니지의 경제자유지수

튀니지	2014	세계 순위	MENA 순위
	57.3	109위 (총 178개국중)	11위 (총 15개국중)

자료: Ambassador Terry Miller, Anthony B. Kim, Kim R. Holmes, PhD.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index/pdf/2014/book/index_2014.pdf)

8) 환경

튀니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을 기준으로 25,878kt로 주변국인 알제리(123,475kt)와 모로코(50,608kt)와 비교했을 때 튀니지의 배출량이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산림지역도 알제리(0.6%) 보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모로코(11.5%) 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분야 메탄 배출량은 알제리(10.2%)보다 높고 모로코(49.1%)보다 적다. 이상을 놓고 볼 때 튀니지의 환경여건은 북아프리카 3국 중에서 다소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6〉 역내 국가들 간 환경지표 비교

지표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년도
이산화탄소 배출(kt)	25,878	50,608	123,457	2010
산림지역(총 면적 중)	6.7%	11.5%	0.6%	2012
농업분야 메탄 배출량	28.7%	49.1%	10.2%	2010

자료: World Bank indicator

9) 젠더

튀니지 남자 어린이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여자 어린이의 취학률은 2008년에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5세 이상 연령의 식자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87%로 여성의 71%보다 앞서고 있다. 양성간의 실업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UNDP가 발표한 2012년도 성평등 세계순위는 186개 국가 중 46위를 한 것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볼 때 튀니지의 사회개발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27> 튀니지 성평등 환경

지표	수치(여성/남성)	년도
취학률(초등학교)	100%/100%	2008
식자율(15세 이상)	71%/87%	2010
실업률(15-24세)	14.3%/14.3%	2011
UNDP 성평등	0.261(46위/186)	2012

자료: AfDB Statistical Yearbook, 2014

2. 분야별 개발과제

튀니지는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공 스토리의 사례로 여겨져 왔으며 2012년에는 3.6%의 경제성장률로 경제위기에서 조기회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계속되는 사회불안과 정치소요로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주요 개발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고학력 실업문제 해결

고학력 실업문제는 지난 수년간 튀니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젊은이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였다. 2013년 현재 전체 실업률은 15.9%이나 대졸자 실업률은 32.6%, 특히 여성 대졸자 실업률은 43.6%인 바, 이는 젊은 층의 증가, 대학 졸업생 양산, 숙련근로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의 질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28〉 실업률 비교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자	전체 실업률	18.8	18.9	27.8	25.3	22.7
	대졸자 실업률	34.9	32.9	44.0	45.9	43.6
남자	전체 실업률	11.3	10.9	15.2	14.4	13.3
	대졸자 실업률	14.6	15.8	23.2	19.5	22.1
전체	실업률	13.3	13.0	18.3	17.6	15.9
	대졸자 실업률	23.4	23.3	33.4	31.8	32.6

자료: ILO, LFS, 2014

대학졸업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고학력실업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재스민 혁명 이후 정치·사회불안으로 경제활동은 단기적으로 위축되었는데, 특히 제조업 및 관광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나.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튀니지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 문제이다. 2011년 현재, 튀니지의 전체인구 중 66.3%는 도시에, 33.7%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는 시디부지드(Sidi Bouzid), 카세린(Kasserine), 탈라(Thala) 등 내륙 중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들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와 경제활동은 주로 북동부(튀니스 주)와 중동부(스팍스 주)에 집중되어 있는 바, 연안지역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으며, 공공투자의 65%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내륙지역은 공공투자 부문에서도 외면을 받아온 바, 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도 악화된 상태이다.

다. 전략적 성장동력 마련²¹⁾

튀니지는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가계소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제 구조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저가의 생산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튀니지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과 서비스분야(보건, 항공, 통신)가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방향전환과 더불어 단순한 유럽의 하청기지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역통로를 다양화하는 것도 튀니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의 무역 관계 확장은 튀니지 성장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 튀니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제정책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해외무역과 외국인투자는 튀니지의 성장 동력이다. 유럽지역과 지리적 근접성도 성장을 위한 이점이기 때문이다.

튀니지의 경제는 관광,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1) AfDB. 2014. "Tunisie: Document de Stratégie Pays Intérimaire". Abidjan: AfDB. (http://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roject-and-Operations/2014-2015_-_Tunisie_-_Document_de_strat%C3%A9gie_pays_int%C3%A9rimaire.pdf)

제3절 국가개발정책

1. 국가개발전략(NDS)

튀니지는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실현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그 결과, 튀니지는 지난 20년 동안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튀니지를 신흥경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추세는 재스민 혁명 이후 멈추고 말았으며, 과도정부를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튀니지의 국가발전 계획도 중도에 수차례 수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스민 혁명 발생 이전의 마지막 국가개발전략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개발전략을 수립한 제12차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제12차 개발계획은 완성되지 못하고, 재스민 계획이라고 불리는 튀니지의 새로운 개발계획이 2012년 5월에 수립되었다.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구호는 “다함께 도전하자”이었으며, 목표는 다음과 같이 7개로 설정되었다.

- 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질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
- ② 일인당 소득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고, 빈곤은 최저수준으로 감소
- ③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든 분야들을 개발하고, 대졸자 등 고등교육자들의 실업률을 감소
- ④ 사회발전을 강화
- ⑤ 지식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학습 시스템을 채택
- ⑥ 다양한 지역들의 통합을 강화
- ⑦ 친환경 경제 기반을 확립하고 삶의 질을 개선

한편, 재스민 혁명으로 지난 23년간 장기 집권해오던 벤 알리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해외로 망명함에 따라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2011년 1월에 수립된 과도 정부는 튀니지의 민주적 절차를 완료하는 것, 그리고 사회 갈등의 관리가 급선무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가발전 전략은 과거의 발전패턴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스템, 법과 제도 등을 더욱 선진화하고, 아울러 자유와 정의 그리고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과도정부가 2012년에 수립한 국가 개발전략을 보면 다음 8가지로 발전전략을 재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 ① 좋은 거버넌스와 기업 환경 개선의 기초 확립
- ② 경제 구조의 현대화
- ③ 세계경제로의 통합 강화 및 파트너십 발전
- ④ 금융 시스템의 개발
- ⑤ 인프라의 현대화
- ⑥ 글로벌하고 균형잡힌 지역발전
- ⑦ 인간개발과 사회발전의 공고화
- ⑧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자원의 적정관리

본 전략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좋은 거버넌스와 기업환경 개선의 기초확립을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버넌스는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예산지출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본 발전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 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전자정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경제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비중을 높여 고용창출과 수출증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건립에 노력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하이테크

크 분야에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여기서 하이테크란 바이오, ICT, 환경, 보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울러 관련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은 튀니지가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이전을 더 용이하게 하고, 개발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 전략을 통해 무역을 증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세계경제의 흐름에 튀니지도 참여하여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등 새로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세계경제에 통합하여 더 활발한 무역 및 해외투자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송 및 물류시스템의 확충과 관련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선진 외국과의 개발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금융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화폐정책과 외환관리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험서비스를 개선하며, 이슬람금융과 같이 은행업무를 다양화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도 확충하고자 한다.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해서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를 잇는 마그레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교통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품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국내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하라 사막 부근까지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글로벌하고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간 소득격차와 발전정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빈곤을 축소하며, 고용을 촉진하고, 교육과 보건의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자원을 적정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침식으로부터 해안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발정책을 친환경 체제가 되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정된 수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담수화를 통해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향후 농업용수도 이를 통해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2. 신정부의 국가개발전략 방향

2014년 9월 8일에 개최된 튀니지 투자 국제 컨퍼런스에서 신정부는 향후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음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정의, 연대와 사회통합
- ② 민간 기업과 경제 개방에 유리한 규제 및 법적 환경
- ③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 ④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
- ⑤ 공공 자원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 ⑥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 ⑦ 지방자치 확립

신정부의 국가개발전략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균형적 거시경제로의 점진적 회복: 공공재정 및 국제수지가 점차 기본 균형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수단을 동원한다.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공공지출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컨트롤해 나가며, 국가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도록 한다.

둘째, 성장과 일자리 확대 촉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셋째, 경제개혁: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경제구조를 개혁한다.

넷째, 지역개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달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토 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다섯째, 연대와 사회통합: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회정책을 마련한다.

이상의 개발전략의 방향들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세계경제의 침체, 특히 튀니지가 의존하고 있는 EU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튀니지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부터 구체화된 계획들이 추진되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예산은 기본적으로 튀니지의 재정에 의지해야 하지만, 튀니지의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간 격차와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트너와 우방 국가들의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튀니지 발전계획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외 파트너 국가들의 재정적 기여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3. 분야별 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튀니지의 국가개발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개발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제

- 기업의 설립과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행정 강화와 행정적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무역 자유화는 국제적 추세에 따르며, 이를 위해 비관세 확대, 무역 서비스 효율성 증대, 거래 비용 감축, 전자 절차 시스템 구축
- 투자를 장려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아울러 공평 과세를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추진
- 이슬람 금융의 서비스의 다양화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꾀하고, 아울러 해외 은행 유치를 추진
- 신규사업, 특히 내륙 지역의 프로젝트, 기술 및 혁신 분야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유치 방법의 다양화 등 금융제도 개선
-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새로운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튀니지 연대은행(BTS)을 통해 지원하고, 아울러 저소득 계층을 위한 금융 혜택 확대를 위해 소액 금융기관과 관련 상품의 다양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개발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이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 구축
- 좋은 지배구조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현대화, 공금 관리 투명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그리고 사회적 대화 제도를 강화
- 금융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특화된 ‘Tunis holding’이라는 공공 은행을 창설하고, 동시에 은행 서비스 질 향상, 국제 수준의 은행 투자, 금융시장의 거래 활성화, 자본시장 기능향상,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확보, 보험 분야 발전, 보험회사 수익 강화 등을 추진함

나. 인프라

- 혼잡을 해결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를 개선
-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및 지방 도로 네트워크 개선
- 마그레브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이행과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를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을 통해 마그레브와 튀니지의 통합달성

다. 농업

GDP 대비 농업의 기여도는 평균 약 9%이다. 그리고 현재 인력의 약 16%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 농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장속도를 가속
- 농업보험, 농업관련 연구와 교육, TTA 실시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현대화를 추진
- 농촌 지역의 청년 고용 촉진
- 농촌 및 지역 개발의 활성화

라. 산업/에너지

튀니지 산업은 항공, 자동차, 제약, 섬유/의류 및 음식 등 5개 분야의 유망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이 분야는 혁신시스템, 연구개발 및 국제시장의 개방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인 협력
- 공공 조달 프로세스의 개혁
- 물류 시스템의 개혁
- 인프라 강화(산업 단지, 테크노파크 등)

에너지 영역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마. 관광

튀니지의 관광 부문은 2011년 이후 큰 충격을 겪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전략이 필요하다.

- 관광 관련 프로그램 등 제안의 다양화
- 관광 품질 제고와 관광인력 훈련 시스템 구축
- 관광 브랜딩(Branding) 및 마케팅의 현대화 등

바. 환경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선순위로 녹색경제를 선택
- 도시 지역의 위생 서비스 확충
- 공업 지역의 환경개선, 청정기술의 사용 장려뿐만 아니라 환경 입법을 촉진하여 산업공해 퇴치
-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환경 관련 투자 장려
- 해양 및 연안 생태계와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현
- 해수 담수화 및 수자원의 최적 사용
- 가능한 관개시설과 오아시스와 지하수의 사용을 통해 사막화 방지
- 에너지 강도 표시기 및 신재생 에너지의 광범위한 사용 등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
- 도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확산하고,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여 청정한 개발체제 구현

사. 사회

-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실업자와 관련된 사회적 보호 시스템 확립
- 임금,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한 사회 경보시스템 개발
- 교육 시스템의 질 향상 및 평가기능의 보편화
- 대학교육의 확대와 해외대학과 교류 활성화
- 지역경제 기반의 다양화, 산업·과학기술 중심지 보편화, 고등교육과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
-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외지역 및 지역계획에서 인프라를 강화
- 특히 물과 보건위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
- 동시에 도로와 고속도로 및 고속 통신 네트워크 및 산업 단지의 건설 또는 개선, 대학 캠퍼스, 기술 공원과 병원의 설립 등이 동반되도록 노력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제3장

국제사회의 튀니지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국제사회 지원동향

<표 3-1>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3년 평균)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DAC 회원국	1	프랑스	385.11	344.06	169.16	299.44	24.77
	2	독일	61.01	65.48	82.44	69.64	5.76
	3	일본	108.87	41.27	42.15	64.10	5.30
	4	미국	7.82	109.57	17.62	45.00	3.72
	5	스페인	88.69	1.57	31.08	40.45	3.35
	6	스위스	10.96	17.95	20.98	16.63	1.38
	7	이탈리아	17.18	3.99	21.25	14.14	1.17
	8	영국	8.21	11.70	10.92	10.28	0.85
	9	스웨덴	7.76	4.99	5.95	6.23	0.52
	10	한국	3.46	5.14	6.04	4.88	0.40
		기타 DAC 회원국	17.13	9.40	11.94	12.82	1.06
		DAC회원국 합계	716.19	615.12	419.54	583.62	48.29
DAC 비회원국	1	아랍에미리트	11.21	5.92	5.39	7.51	0.62
	2	쿠웨이트	9.35	4.71	5.50	6.52	0.54
	3	에스토니아	-	-	0.11	0.04	0.00
		DAC비회원국 합계	20.56	10.63	11.00	14.06	1.16
다자 기구	1	EU Institutions	478.26	602.80	503.01	528.02	43.69
	2	Arab Fund	36.28	81.59	81.28	66.38	5.49
	3	OFID	1.21	0.19	15.18	5.53	0.46
	4	GEF	3.34	1.60	2.78	2.57	0.21
	5	UNHCR	-	5.32	-	1.77	0.15
	6	Global Fund	1.47	1.76	1.85	1.69	0.14
	7	UNDP	1.12	0.93	1.09	1.05	0.09
	8	UNICEF	1.36	0.70	1.03	1.03	0.09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9	AfDB	1.27	0.68	0.63	0.86	0.07
	10	UNFPA	0.94	0.74	0.57	0.75	0.06
	기타 다자기구		1.76	1.10	1.18	1.35	0.11
	다자기구 합계		527.00	697.41	608.60	611.00	50.55
ODA 총액			1263.75	1323.16	1039.14	1208.68	100.00

자료: OECD,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국제사회에서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11~2013) 평균 지원액이 프랑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 5년간(2009~2013) 평균 지원액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역시 프랑스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스페인과 독일 그리고 미국 등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난 5년간과 3년간의 평균 지원액 순위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들어오면서 스페인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9-2013 5년 평균)

순위	국가	지원액	순위	국가	지원액
1	프랑스	206.20	9	한국	3.18
2	스페인	78.48	10	벨기에	2.64
3	독일	32.09	11	스웨덴	2.61
4	미국	18.64	12	덴마크	0.90
5	일본	18.55	13	아랍에미레이트	0.87
6	터키	12.56	14	룩셈부르크	0.68
7	스위스	7.08	15	핀란드	0.65
8	영국	5.07		-	

자료: OECD/DAC 내부자료

다자 주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EU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AfDB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국제사회의 다자 주체별 지원현황

(단위: USD 백만)

다자기구	2002-2013(12년)	다자기구	2009-2013(5년)
EU	2,275	EU 기관	1,784
Arab Fund	550	Arab Fund	94
GEF	33	OFID	18
Global Fund	21	Global Fund	15
OFID	18	GEF	13
UNICEF	11	UNHCR	5
UNDP	8	UNDP	4
UNFPA	6	UNICEF	4
AfDB	2	UNFPA	3
WHO	2	AfDB	2

자료: OECD,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튀니지가 지원받은 ODA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는 무상원조 규모가 유상원조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컸으나, 2009년부터 유상원조 규모가 급증하면서, 2011년에는 유상원조 규모가 무상원조 규모를 추월하는 역전현상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무상원조 규모가 유상원조 규모보다 더 커졌으며 그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국제사회는 튀니지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는 무상원조를 위주로 하였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유상원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자금 형태별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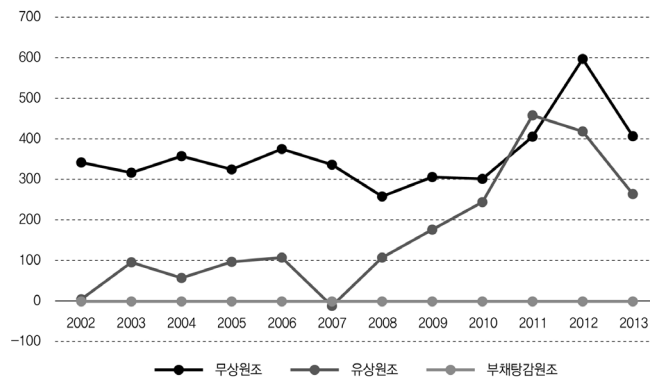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부채탕감 원조
2002	342.97	4.91	0.00
2003	320.02	98.46	0.00
2004	360.22	59.37	0.00
2005	324.68	97.09	0.00
2006	377.50	108.45	0.00
2007	337.79	-9.70	0.00
2008	260.81	107.87	0.00
2009	308.43	176.69	0.00

연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부채탕감 원조
2010	305.57	245.91	0.00
2011	406.75	457.99	0.00
2012	598.25	418.77	0.00
2013	408.13	266.96	0.00

자료: OECD DAC. Aid Flows. <http://www.aidflows.org/>

[그림 3-1] ODA 현황



자료: OECD DAC. Aid Flows. <http://www.aidflows.org/>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제사회의 대 튀니지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면,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비율이 39.5%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이 기타 사회서비스 인프라로 22.5%를 기록하였다.

<표 3-5> 분야별 지원현황

(기간: 5년 2009년-2013년)

분야	할당 비율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39.5%
기타 사회서비스 인프라	22.5%
다부문(multi/cross-cutting)	14.4%
교육	12.1%
생산	7.0%
나머지 분야	2.3%
프로그램 원조	2.2%

자료: OECD DAC. Aid Flows. <http://www.aidflows.org/>

<표 3-6> 對 튀니지 주요 공여국 · 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준: 2011-13년 평균 Gross Disbursement)

		ODA 지원 총액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다부문 • 크로스 커팅
			총계	교육	보건	인구 생식	식수 위생	정부 시민 사회	기타	총계	교통 수송	통신	에너지	은행 금융	사업 기타	총계	농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업	무역 정책 규정	관광업	
1	프랑스	299.44	131.42	82.24	0.18	0.06	44.84	1.67	2.43	24.64	22.18	0.07	0.36	0.98	1.06	21.17	5.51	6.30	-	9.36	117.40
2	독일	69.64	49.03	28.01	0.86	-	10.37	6.09	3.70	9.77	5.20	0.01	1.77	0.88	1.91	5.24	3.88	1.33	-	0.02	5.13
3	일본	64.10	20.68	6.57	0.39	0.23	12.07	1.10	0.32	21.16	20.52	0.13	0.35	0.08	0.07	19.81	10.39	9.13	0.03	0.25	1.91
4	미국	45.00	40.08	-	0.07	0.01	-	40.00	-	2.58	-	-	0.06	0.06	2.45	0.21	0.18	0.00	0.03	-	0.77
5	스페인	40.45	1.65	0.77	0.09	0.00	0.06	0.45	0.28	33.97	-	0.01	33.94	0.01	-	0.99	0.59	0.40	-	-	3.72
6	스위스	16.63	7.64	0.88	-	-	0.89	3.01	2.87	2.99	-	0.07	-	1.35	1.57	1.30	0.02	0.32	0.95	-	0.71
7	이탈리아	14.14	2.78	0.24	0.19	0.00	0.84	1.43	0.08	0.16	-	0.00	0.01	0.03	0.12	3.26	0.18	3.08	-	-	1.10
8	영국	10.28	4.59	1.47	0.11	-	-	2.64	0.36	1.32	-	0.53	-	0.50	0.29	3.18	0.07	2.90	0.21	-	0.04
9	스웨덴	6.24	4.81	0.01	-	-	-	4.73	0.07	-	-	-	-	-	-	-	-	-	-	-	0.03
10	한국	4.88	3.73	0.53	0.06	-	0.71	2.26	0.17	0.52	0.10	0.22	0.13	-	0.06	0.48	0.13	0.32	0.01	0.03	0.13
	DAC 회원국	583.62	274.74	121.36	2.21	0.32	69.87	70.17	10.82	97.80	48.06	1.04	36.63	4.53	7.54	56.05	21.10	24.05	1.24	9.66	131.63
1	EU	528.02	48.04	17.91	0.09	0.26	9.09	15.58	5.11	232.70	36.89	0.20	100.38	92.99	2.23	72.60	0.58	72.02	0.01	-	37.22
2	ArabFund	66.38	8.70	-	-	-	8.38	-	0.31	46.29	6.71	-	39.58	-	-	5.91	5.88	0.03	-	-	5.48
3	OFID	5.52	0.52	0.52	-	-	-	-	-	5.00	-	-	5.00	-	-	-	-	-	-	-	-
4	GEF	2.57	-	-	-	-	-	-	-	-	-	-	-	-	-	0.17	0.17	-	-	-	2.36
5	UNHCR	1.77	-	-	-	-	-	-	-	-	-	-	-	-	-	-	-	-	-	-	-
	다자기구	611.00	62.51	18.55	1.40	2.63	17.65	16.30	5.99	284.00	43.61	0.20	144.97	92.99	2.23	78.85	6.80	72.05	0.01	-	45.60
	총계	1208.68	343.17	142.19	4.35	2.95	89.06	87.80	16.81	386.13	95.97	1.28	181.60	97.52	9.77	134.90	27.89	96.10	1.25	9.66	177.23

주: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하였으며 분야는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및 생산 분야에 한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프랑스²²⁾

1) 현황과 지원전략

프랑스의 ODA 담당기관은 AFD그룹이며 이 그룹은 다음 기관들로 구성된다.

- ① AFD
- ② PROPARCO
- ③ CEFEB(금융경제은행연구소)
- ④ FFEM(세계환경을 위한 프랑스기금)

프랑스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도국들에게 지원한 ODA 규모를 보면 코트 디브와르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라크와 카메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튀니지는 11번째로 많은 규모의 지원을 받는 국가로 나타나 있다. 북아프리카 3국을 보면 모로코에 대한 AFD의 지원이 가장 컸고, 다음이 튀니지 그리고 알제리 순이다.

<표 3-7> 프랑스 ODA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지원금액(2007-2009)

(단위: 백만 유로)

순위	수원국(지원금액)	순위	수원국(지원금액)
1	코트디부아르(309)	11	튀니지(109)
2	이라크(260)	12	알제리(96)
3	카메룬(193)	13	말리(89)
4	중국(167)	14	부리키나 화소(79)
5	모로코(148)	15	마다가스카(78)
6	터키(138)	16	이집트(78)
7	세네갈(120)	17	기네(50)
8	레바논(120)	18	팔레스타인(50)
9	콩고(112)	19	인도네시아(48)
10	베트남(110)	20	브라질(48)

자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et Européennes de France. 2011

22) AfD. 2008. "L'AFD ET LA TUNISIE" Tunisia: AfD. http://www.ffem.fr/webdav/site/ffem/shared/ELEMENTS_COMMUNS/U_ADMIFFEM/Publications_AFD/AFD_tunisie_fr.pdf

AFD는 1992년부터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튀니지를 지원하고 있다.

① 튀니지 기업 수준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AFD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180백만 유로를 120개 기업에게 지원하면서 수준제고를 지원하였다. 이 120개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0,000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15개의 직업훈련소를 설립하였고, 8,000명의 연수생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였다.

②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튀니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이 분야에는 1992년부터 약 731백만 유로를 지원하였는데, 주로 도시와 농촌의 식수와 위생시설을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지하철과 같은 도시교통 부분에 지원하였다. AFD는 튀니지 전국민의 식수공급을 목표로 해당 부문에 많은 지원을 한 바 있으며, 하수시설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하였다. 또한, AFD는 튀니지의 지방분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PROPARGO는 1992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 142백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연평균 100백만 유로를 지원해 왔다.

AFD는 튀니지에 여러 금융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는데,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금, 대출 또는 양허성 금융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지원의 형태는 수원기관이 국가이거나, 공기업이거나, 사기업이거나, 또는 은행인지 그 성격에 따라, 그리고 그 금융지원 결과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AFD는 2008-2011년 사이에도 ① 기업 경쟁력 강화, ② 식수, 위생 및 대중교통 기본인프라 개선을 통해 삶의 질 개선, ③ 식수자원보존, 숲과 토양의 보존 등 지속가능발전의 증진 등과 같은 3가지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였다.

2014-2016년에는 튀니지의 정치와 제도가 이행기를 거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AFD의 협력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다시 수립하였다.

① 고용 증가,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

이를 위해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발전을 클러스터 구축, 소금융 개발,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여 고용을 촉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

도시 재정비 전략을 지원하고 기초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국과 지방공동체를 통해 물, 교통,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천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프랑스 개발청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야이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의 대 튀니지 ODA 지원 추이를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0년에 감소를 했다가 2011년에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2011년에 ODA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유상 ODA의 지원규모가 급증한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동 기간 동안 유상 ODA는 무상 ODA보다 다소 큰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프랑스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ODA 지원금액	무상 지원	유상 지원
2002	115.607	54.395	61.212
2003	135.733	66.313	69.420
2004	174.427	82.746	91.681
2005	198.960	87.701	111.259
2006	231.982	101.418	130.564
2007	229.256	111.402	117.854
2008	249.090	99.984	149.106
2009	255.847	101.284	154.463
2010	213.484	101.838	111.646
2011	385.110	107.306	277.804
2012	344.065	102.260	241.805
2013	169.115	94.695	74.460

자료: OECD DAC. Statistics.

2) 중점지원 분야

프랑스의 대 튀니지 중점지원 분야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이며, 다부문(multisector/cross-cutting)에 그 다음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표 3-9〉 프랑스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단위: USD 백만)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 순위
사회인프라	138.421	142.12	164.783	137.199	92.29	674.813 / 1
경제인프라	27.349	10.656	17.713	27.636	21.187	104.541 / 4
생산 부문	40.891	17.924	35.684	14.813	13.009	122.321 / 3
다부문	45.345	35.458	159.01	159.036	34.156	433.005 / 2
인도주의			0.719	0	0.005	0.724 / 7
행정비용	2.354	2.044	2.286	3.454	3.188	13.326 / 5
비지정	1.487	3.922	1.655	1.435	1.676	10.715 / 6
합계	255.847	212.124	381.85	343.573	165.511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한편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세부분야를 살펴보면 동기간 동안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프랑스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 계획	물· 위생	시민사회 ·치안	기타 인프라
2002	63.552	49.871	2.127	-	8.044	0.513	2.998
2003	71.782	57.710	2.896	-	8.539	0.581	2.055
2004	95.525	72.168	3.292	-	16.217	0.668	3.180
2005	129.351	77.960	3.223	-	24.821	0.702	22.645
2006	161.157	85.402	1.842	-	49.326	0.064	24.524
2007	149.654	100.320	1.082	-	41.311	0.400	6.541
2008	126.077	75.640	0.344	0.001	42.874	1.117	6.102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 계획	물· 위생	시민사회 ·치안	기타 인프라
2009	138.421	108.053	0.274	-	24.769	0.622	4.702
2010	142.120	86.528	0.097	0.042	53.880	0.265	1.308
2011	164.783	84.747	0.191	0.125	74.933	1.257	3.529
2012	137.199	88.973	0.029	0.058	45.598	0.720	1.821
2013	92.290	73.008	0.316	0.007	13.976	3.039	1.944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다음으로 지원 규모가 컸던 다부분의 경우 대부분 환경관련 지원에 해당한다.

<표 3-11> 프랑스의 다부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4.1	37.5	49.3	29.0	27.9	25.7	40.8	45.3	35.5	159.0	159.0	34.2

그리고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서는 교통 및 물류보관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컸는데, 그 규모는 2013년에 약 21.2백만 달러로 같은 해 교육의 지원액인 약 73백만 달러의 1/3도 채 안 되는 규모였다.

<표 3-12> 프랑스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2	2.330	0.282	0.053	0.448	0.939	0.608
2003	14.645	0.123	0.0047	0.386	0.051	14.038
2004	12.933	0.092	0.196	0.215	-	12.430
2005	19.366	15.308	-	0.369	-	3.688
2006	31.414	31.213	-	0.202	-	-
2007	34.673	34.271	-	0.402	-	-
2008	59.401	44.689	0.007	14.690	-	0.014
2009	27.349	12.965	0.007	14.306	-	0.071
2010	12.016	10.656	0.021	0.209	1.077	0.053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11	20.973	17.713	0.050	0.362	0.102	2.746
2012	28.126	27.636	0.043	0.280	0.167	-
2013	24.831	21.197	0.104	0.433	2.666	0.440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은 농업·임업과 산업·광업·건설업이 유사한 비중으로 지원되어 왔음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프랑스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2	12.762	7.839	4.800	0.067	0.055
2003	10.672	8.332	2.340	-	-
2004	10.495	8.922	1.244	0.216	0.113
2005	9.756	8.801	0.955	-	-
2006	9.669	7.604	1.838	-	0.227
2007	15.698	7.295	8.403	-	-
2008	19.607	1.294	3.756	0.043	14.514
2009	40.891	0.737	12.118	-	28.036
2010	17.924	0.967	16.669	0.199	0.059
2011	35.684	0.854	6.976	-	27.854
2012	14.813	9.440	5.183	-	0.190
2013	13.009	6.234	6.743	-	0.032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따라서 프랑스의 대 튀니지 지원을 세부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 분야 그리고 교통 및 물류보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원 방식의 특성

프랑스의 대 튀니지 지원 방식의 특성을 보면 먼저, 튀니지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개발과제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리 접근성격차 해소와 시민의식 고양’이라는 프로젝트를 보면 튀니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협회, 노조, 지방 단체, 기관,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즉 튀니지와 프랑스의 시민사회 단체 38곳 그리고 지방공동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14> AFD의 튀니지 지원 프로젝트

(기간: 2009-15년)

튀니지 프로젝트 명	지원금액 (단위: 유로)	진행 상황	업데이트 날짜
1) 시민권리 접근성 격차해소와 시민의식 고양	499,325	시행	2015.04.15
2) 소외지역 경제활동 촉진 대책	609,44	시행	2014.07.08
3) 노동조합 연대의식 강화	236,000	시행	2014.07.08
4) 사헬(Sahel)지역, 스팍스(Sfax)지역 식수공급	25,000,000	완료	2013.11.14
5) 서민 거주지역 배수시설 개선 프로그램	40,000,000	시행	2013.10.30
6) Lab'Ess :튀니지 시민사회 발전지원	386,289	시행	2013.10.03
7) 마을재생과 지역 종합발전	90,300,000	시행	2013.08.29
8) 농촌 식수공급 프로젝트 2013-2017	20,000,000	시행	2013.08.29
9) Linakoun Faillin 프로그램	293,950	시행	2013.02.28
10)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350,000	시행	2012.11.05
11) 수자원공사의 물 공급과 생산능력 확보	40,000,000	시행	2012.07.04
12) Bizerte 국립엔지니어학교	15,000,000	시행	2012.07.04
13) PRCC 농업수준 개선	1,000,000	시행	2012.07.04
14) 고용, 직업훈련, 금융부문 개선 프로그램	185,000,000	완료	2012.07.04
15)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식량안보)	500,000	시행	2012.07.04
16) 가족지원없는 어린이들의 효율적 관리지원	168,464	시행	2011.08.29
17) 튀니스의 고속전철 건설 부분지원	50,000,000	시행	2009.12.14
18) 연구 및 역량강화기금 no. 2	1,400,000	시행	2009.12.14
19) 물 부문 투자 프로그램 단계 II	46,500,000	시행	2009.09.08
20) 제11회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에서 농촌 중심의 AEP 프로그램	21,400,000	시행	2009.04.09
21) 유역관리 자금	41,500,000	시행	2009.04.08
22)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채널 업그레이드	28,500,000	시행	2009.04.08
23) 도시 재구성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58,700,000	시행	2009.04.08

또한, 프랑스는 AFD내에 여러 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인데 공기업이나 은행, 사기업, 소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 우대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은행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글상자 3-1] 시민권리 접근성 격차 해소와 시민의식 고양

(Réduire les inégalités d'accès aux droits et promouvoir la citoyenneté)

튀니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회, 노조, 지방 단체, 기관,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을 구조화한다.

프랑스 세속주의 연대 국가 위원회(Le Comité National de Solidarité Laïque), 튀니지와 프랑스의 시민 사회 단체 38곳 그리고 지방공동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과 2014년에 시행되었던 'Soyons Actif/Actives(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튀니지 정치 변화를 파악하고, 시민단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중단기적 요구를 파악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권리 접근성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튀니지와 프랑스 간에 노조, 단체, 지방, 기관 차원에서 이뤄져왔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글상자 3-2] 소외지역 경제활동 촉진대책

(Mise place dispositif accompagnement promoteurs
activités économiques en zones défavorisées)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튀니지의 소외지역에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즉, 영세민의 자활을 돕는 것이다.

프랑스 NGO형 소금융 사업 기관으로 직접 대출을 비롯하여 장비대여 지원,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ADIE(Adie International)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소규모 농장 경영주, 소규모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3그룹을 대상으로 튀니지의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원 모듈 각 대상 그룹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지원 모듈이 개발과 테스트를 거친 후 전파되는 결과를 기대한다.

또한 위의 3그룹에 해당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의 질이 향상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튀니지 소금융 기관 Taysir Conseil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

[글상자 3-3] 노조의 연대의식

(La force syndicale au service de la solidarité)

프랑스 노동자조합인 '노동자의 힘 F.O.(Force ouvriere)'와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로, 튀니지 노동자 연맹인 UGTT(Un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 de Tunisie)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UGTT의 회계 및 가입 서비스를 정보화, 가입 시스템 개선 그리고 노조 활동과 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UGTT 책임자들과 가입자들이 노조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진단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UGTT 지역 연맹과 각 도(Préfecture)내에 회계서비스를 정보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가 용이해 질 수 있다. 노조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정보 현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또한 노조 활동의 조직 민첩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글상자 3-4] 사헬(Sahel)지역과 스팍스(Sfax)지역 식수 공급

(Renforcement de l'alimentation en eau potable des régions du Sahel et de Sfax)

사헬지역과 스팍스지역에 식수 공급을 확대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목적은 튀니지 인구의 1/3 가량이 사는 지역에 식수 공급망을 확보하고 강화하는데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관광지이며 물 사용량이 많은 섬유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다.

북부로부터 물길을 만들어 쉰스(Sousse)지역에 물 수송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로를 만들고, 캐루안 지역의 수도관을 사헬지역으로 통하게 만든다. 적당한 물 공급량이 확보되도록 저수지를 확대하고 원활한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로 튀니지 수자원 관리 공사 SONEDE(Société Nationale d'Exploitation et de Distribution des Eaux)가 사헬지역에 다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AFD뿐만 아니라 AFD그룹에 속해 있는 PROPARCO를 통해 기업자본 경영 참여와 투자에 참여하며, CEFEB를 통해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를 만든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ODA를 집행하는 여러 기관을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4)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²³⁾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튀니지 건축분야 효율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프로젝트 기간은 2002년-2009년이였다.

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과 건축분야 종사자들에게 건물의 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분야 종사자들의 인식 고취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있어 효율적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는 건축분야 전문인을 양성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와 열 관련 규제가 공표될 수 있게 되었고, 대중 인식을 환기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촉구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건축 분야 종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였다.

나. 일본²⁴⁾

1) 현황 및 지원전략

재스민 혁명 이후 중요한 선거에 JICA는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언론의 중요성 및 역할, 정치자금 그리고 선거제도 등에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헌국회 선거에서 JICA의 튀니지 사무소장과 직원들은 일본정부의 참관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JICA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23) <http://www.afd.fr/webdav/site/afd/shared/PUBLICATIONS/RECHERCHE/Evaluations/Evaluation-capitalisation/07-evaluation-capitalisation.pdf>

24) <http://www.jica.go.jp/tunisia/english/index.html>

JICA의 튀니지 지원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자원봉사단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500명의 봉사단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였다. 처음 기술협력은 1976년에 시작되었고, 일본은 지금까지 약 1,000명의 튀니지 연수생을 받아왔고, 500명의 전문가를 파견해왔다. 재정지원을 보면, JICA는 지금까지 260억 엔을 지원했는데, 이는 주로 전기, 운송, 식수, 경제기반 확충 등에 지원되었다.

JICA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이끌어 줄 전략적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원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아프리카 지역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를 대상으로 한 지원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튀니지가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튀니지가 항상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JICA가 튀니지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중점 원조 전략 및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 안정화를 도모한다.
- ② 국가의 평화와 부흥을 공고히 한다.
- ③ 이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발전에 기여한다.

<표 3-15> JICA의 튀니지 지원현황

분야	활동
교육	(T) Project on Management of Technopark in Bori Cedria (L) Boji Cedria Science and Technology and Park Development Project
수자원/ 재난관리	(L) Greater Tunis Flood Control Project(PDF/53KB) (D) The Study o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Focused on Flood Control in Mejerda River
운송	(L) Rades-La Goulette Bridge Construction Project (L) El-Jem-Sfax Motorway Construction Project
자연자원과 에너지	(L) Photovoltaic Rural Electrification and Water Supply Project
민간섹터 개발	(D) The Study on the Master Plan for Quality/Productivity Improvement (L) Private Investment Credit Project(PDF/27KB)

분야	활동
농업발전	(L) Water Saving Agriculture Project in Southern Oasis Area(PDF/28KB)
어업	(T) Projec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Fisheries Resources
환경관리	(L) Integrated Reforestation Project(II)(PDF/58KB)
남남협력	(O) South-South Cooperation

주: T) Technical Cooperation, L) ODA Loans, G) Grant Aid, D) Development Study, O) Others

일본의 대 튀니지 ODA 규모의 추이를 보면 프랑스나 다른 공여국과 달리 2011년에 지원규모가 갑자기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상 ODA의 규모가 무상 ODA 규모보다 훨씬 큰데 이러한 격차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다소 누그러지는 형국이다.

<표 3-16> 일본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ODA 지원금액	무상 지원	유상 지원
2002	77.196	7.085	70.112
2003	119.593	11.517	108.076
2004	100.483	8.892	91.591
2005	97.641	9.657	87.984
2006	64.141	8.597	55.544
2007	65.908	8.284	57.624
2008	103.481	5.943	97.538
2009	82.567	6.154	76.413
2010	118.375	21.505	96.870
2011	108.870	7.846	101.024
2012	41.266	11.055	30.211
2013	42.155	14.607	27.548

자료: OECD DAC. Statistics.

2) 중점지원 분야

일본의 대 튀니지 중점지원 분야는 ① 정치 행정 분야, ② 고용창출과 산업 활동 지원분야, ③ 인적자원 개발 분야로 되어 있다. 다음에는 지원규모로 중점지원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7> 일본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 순위
사회인프라	29.222	37.908	27.546	15.525	18.966	129.167 / 2
경제인프라	41.672	63.696	48.516	9.799	5.161	168.844 / 1
생산 부문	10.073	14.476	30.866	12.700	15.865	83.98 / 3
다부문	0.578	1.475	1.879	1.699	2.145	7.776 / 4
인도주의		0.820	0.064	1.543	0.018	2.445 / 5
비지정	1.023					1.023 / 6
합계	82.568	118.375	108.871	41.266	42.155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일본은 튀니지에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지원규모가 크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중에서 교통 및 물류보관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큰데, 최근 들어서 점점 그 규모가 적어지는 추세이다. 이런 이유로 2013년에 교통 및 물류보관 지원액은 사회 인프라에 속하는 식수위생 지원액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18> 일본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2	4.704	-	4.704	-	-	-
2003	13.452	0.942	11.877	0.054	-	0.579
2004	16.716	1.531	14.348	0.080	-	0.757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5	31.871	24.097	7.001	-	-	0.773
2006	26.316	22.051	3.239	-	0.011	1.015
2007	29.360	26.790	1.711	0.135	-	0.724
2008	75.743	72.620	1.580	0.901	0.018	0.624
2009	41.672	23.761	17.188	0.302	0.096	0.325
2010	63.696	60.430	2.015	0.737	0.318	0.197
2011	48.516	47.485	0.155	0.692	0.151	0.032
2012	9.799	9.181	0.155	0.290	0.072	0.100
2013	5.161	4.909	0.066	0.075	0.027	0.084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19> 일본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계획	물· 위생	시민사 회·치안	기타 인프라
2002	5.000	0.200	-	-	3.794	-	1.006
2003	8.262	3.240	0.179	0.346	3.355	0.287	0.853
2004	13.591	2.088	0.091	0.316	10.036	0.257	0.803
2005	23.717	2.150	0.203	0.011	20.270	0.053	1.031
2006	14.797	0.882	0.249	0.010	12.943	0.189	0.524
2007	18.286	1.654	0.281	0.070	15.839	0.036	0.406
2008	23.977	1.393	0.441	0.021	21.34	0.125	0.658
2009	29.222	1.682	0.58	0.04	26.132	0.145	0.643
2010	37.908	1.943	0.407	0.141	34.703	0.229	0.485
2011	27.546	7.745	0.224	0.15	19.08	0.09	0.256
2012	15.525	6.647	0.769	0.407	6.871	0.403	0.429
2013	18.966	5.327	0.183	0.123	10.268	2.798	0.266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20> 일본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2	9.193	9.193	-	-	-
2003	9.545	8.014	1.493	0.037	-
2004	6.573	5.610	0.905	0.058	-
2005	9.080	8.179	0.821	0.080	-
2006	7.200	6.141	0.920	0.139	-
2007	8.467	6.551	1.731	0.168	0.018
2008	3.063	1.245	1.500	0.273	0.045
2009	10.073	5.409	4.622	0.042	-
2010	14.476	9.204	5.256	0.015	-
2011	30.866	17.642	13.142	0.024	0.058
2012	12.700	6.109	6.472	0.023	0.096
2013	15.865	7.432	7.776	0.058	0.599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21> 일본의 다부문 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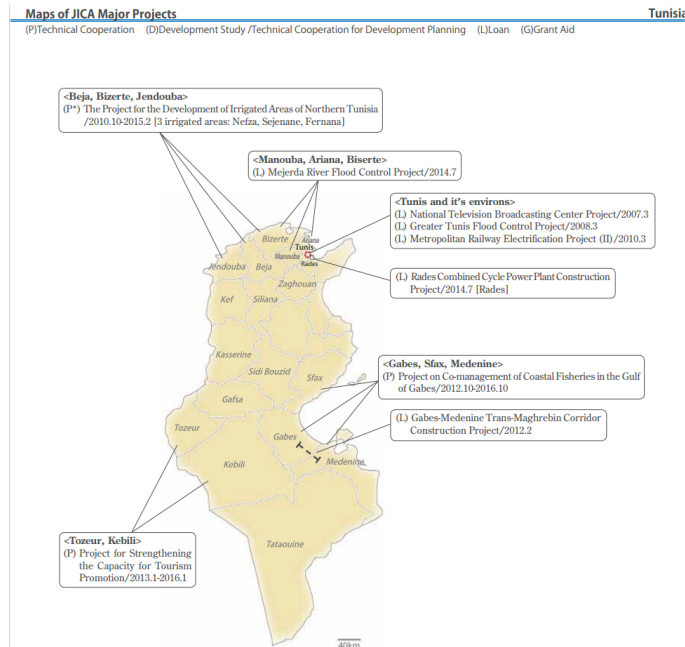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전체	환경교육·훈련	기타 다부문
2002	0.687	-	0.687
2003	0.870	0.381	0.489
2004	0.999	0.375	0.624
2005	0.557	0.287	0.271
2006	0.610	0.499	0.110
2007	0.616	0.373	0.243
2008	0.252	0.065	0.187
2009	0.578	0.507	0.07
2010	1.475	0.394	1.081
2011	1.879	0.402	1.477
2012	1.699	0.427	1.272
2013	2.145	0.237	0.252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JICA는 물·위생, 산업·광업·건설업, 농업·임업·어업, 교육 순으로 지원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JICA 프로젝트 진행현황 그림을 보면 JICA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내륙보다는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JICA 프로젝트 진행 현황



3) 지원 방식의 특성 및 분석

일본의 지원방식의 특성은 유상 ODA가 무상 ODA에 비해 그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들어 교육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튀니지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올 수 있게 장학금을 주는 등 튀니지 젊은이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75년부터 일본 청년 해외 협력대의 파견 프로젝트로 개발협력이 시작되었고 봉사자들이 튀니지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했으며, 1976년에 기술원조로 첫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튀니지 연수생들을 일본으로 초청하거나 전문가들을 튀니지로 파견했고 재정협력은 차관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튀

니지와 개발협력 사업을 해왔으나 아직까지도 불어권이라는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튀니지 관련 ODA사업을 현지 튀니지 사람들을 고용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JICA 튀니지 사무소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들이고 일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4)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

대표적 성공사례로서 ‘농촌 물 공급 프로젝트(1·2차)’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년도는 2002년이었고, 평가년도는 2012년-2013년이였다. 평가주체는 일본 컨설팅 회사 OPMAC Corporation이었다.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튀니지 20개 주에 소규모 물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농촌 지역에 물 공급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튀니지 국가개발정책과 일본 ODA 정책의 목적이 서로 부합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만족(satisfactory)이었다. 2011년 재스민 민주혁명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로 이 프로젝트의 이행 및 관리를 맡은 단체인 물 이용자 협회인 GDA(Groupement de Developpement Agricole, Water User's Association)의 조직 관리와 역량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보면, JICA는 튀니지 농업부와 협력이 요구되며 독일 개발은행 KfW(German Development Bank)이 진행 중인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물 이용자 협회 GDA 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원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독일²⁵⁾

1) 현황 및 지원 전략

독일과 튀니지의 개발협력관계는 1960대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독일의 튀니지 지원 분야는 환경보호와 자원보전 그리고 수자원,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 재스민 혁명 이후 독일 경제협력개발연방정부(BMZ)는 튀니지의 평화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튀니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하였다.

최근에는 농업발전과 고용증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독일 국제협력 공사(GIZ)의 대 튀니지 개발협력은 다음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지역의 경제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발전시키며,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자나 독립노동자들을 위한 소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②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와 과도한 개발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한다. 천연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공공행정, 민간분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쓰레기처리 계획수립이나 공동저수지 사용을 논의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한다.

25) http://www.bmz.de/en/what_we_do/countries_regions/naher_osten_mittelmeer/tunesien/zusammenarbeit.html

③ 지역·거버넌스·민주주의 발전 도모

아랍의 봄 이후, 민주적인 행정 구조를 확립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한다.

독일의 대 튀니지 ODA 지원규모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로 증가해왔다. 2002년의 약33백만 달러부터 2007년의 약71백만 달러까지 매년 상승해왔다. 반면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61백만 달러에서 약82백만 달러 사이에서 변화를 거듭했다. 독일은 튀니지에게 유상 ODA보다는 무상 ODA를 더 많이 지원했는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단 한해도 유상 ODA 지원규모가 무상 ODA 지원규모를 추월한 적이 없었다.

<표 3-22> 독일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ODA 지원금액	무상 지원	유상 지원
2002	32.533	17.995	14.538
2003	44.259	29.407	14.851
2004	41.635	29.435	12.200
2005	55.657	36.592	19.062
2006	68.321	42.899	25.422
2007	70.782	42.172	28.611
2008	62.061	46.195	15.866
2009	70.471	50.485	19.987
2010	62.188	48.096	14.093
2011	61.006	46.679	14.327
2012	65.478	53.026	12.452
2013	82.444	59.670	22.774

자료: OECD DAC. Statistics.

2) 중점지원 분야

독일은 튀니지의 사회 인프라 부문에 중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독일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단위: USD 백만)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 순위
사회인프라	50.932	40.585	40.940	54.354	51.787	238.598 / 1
경제인프라	11.494	7.303	5.704	3.260	20.349	48.11 / 2
생산 부문	3.338	9.066	9.345	2.264	3.742	27.755 / 3
다부문	4.707	5.233	4.253	4.560	6.566	25.319 / 4
인도주의			0.765	0.679		1.444 / 5
합계	70.471	62.187	61.007	65.117	82.444	

자료: OECD DAC. Statistics.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에 그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이행되어 진행 중인 GIZ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총 22개로 농촌개발 4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5건,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 6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7건이다.

한편 세부 지원분야별로 보면, 독일은 교육에 가장 집중지원을 하고 있으며 식수위생, 정부 시민사회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와 교통 및 물류보관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지원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표 3-24> 독일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계획	물· 위생	시민사 회·치안	기타 인프라
2002	6.831	0.375	-	-	5.373	0.416	0.667
2003	25.538	15.480	-	-	8.980	0.295	0.782
2004	24.124	17.613	-	-	5.365	0.317	0.829
2005	34.282	21.737	-	-	11.533	0.152	0.860
2006	39.028	23.372	-	-	14.628	0.044	0.984
2007	46.499	27.751	-	-	17.463	0.061	1.223
2008	42.590	31.203	-	-	11.230	0.010	0.146
2009	50.932	31.994	-	-	18.718	0.024	0.195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계획	물· 위생	시민사 회·치안	기타 인프라
2010	40.585	30.286	-	-	10.047	-	0.253
2011	40.940	29.002	-	-	10.595	1.139	0.204
2012	54.354	29.036	1.207	-	13.211	7.862	3.038
2013	51.787	25.994	1.367	-	7.308	9.261	7.858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25> 독일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2	11.436	-	-	-	11.436	-
2003	7.831	-	-	0.140	7.662	0.029
2004	8.638	-	-	0.476	7.108	1.055
2005	13.767	-	-	0.436	12.931	0.399
2006	20.707	-	-	0.551	19.757	0.399
2007	12.518	-	-	0.950	11.099	0.469
2008	12.170	-	-	1.446	8.327	2.397
2009	11.494	-	-	1.580	7.300	2.614
2010	7.303	-	-	1.509	2.239	3.555
2011	5.704	-	0.021	2.289	1.310	2.084
2012	3.260	-	-	1.470	0.522	1.269
2013	20.349	15.600	-	1.548	0.814	2.387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26> 독일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2	2.132	1.986	0.146	-	-
2003	5.381	4.451	0.93	-	-
2004	3.187	2.365	0.821	-	-
2005	3.175	2.225	0.951	-	-
2006	3.923	2.877	1.047	-	-
2007	4.522	3.025	1.497	-	-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8	2.017	1.468	0.548	-	-
2009	3.338	2.272	1.002	0.064	-
2010	9.066	7.368	1.572	0.126	-
2011	9.345	7.979	1.366	-	-
2012	2.624	1.295	1.329	-	-
2013	3.742	2.37	1.308	-	0.064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27> 독일의 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체	환경교육·훈련	기타 다부문
2002	12.055	1.959	10.096
2003	5.480	2.355	3.125
2004	4.348	3.079	1.269
2005	4.397	3.377	1.020
2006	4.633	3.788	0.844
2007	7.227	5.489	1.738
2008	5.284	4.864	0.420
2009	4.707	4.567	0.140
2010	5.233	4.558	0.675
2011	4.253	4.162	0.091
2012	4.560	3.799	0.761
2013	6.566	5.766	0.800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3) 지원 방식의 특성²⁶⁾

독일의 대 튀니지 지원방식의 특징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즉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독일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역 및 분야별 대화망을 구축하여 튀니지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정책자문으로 튀니지의 정책 및 행정적 발전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위해 공공분야, 민간분야, 시민 사이의 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26) <http://www.giz.de/en/worldwide/22600.html>

4)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²⁷⁾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산업 및 상업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industrial zones and business parks)’라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행기간은 2008-2014년이었고 수원기관은 튀니지 산업부이다.

프로젝트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튀니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산업 및 상업 구역이 인프라와 관리 문제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 폐기물이나 위험물질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체적 관리 시스템(GMC)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단지의 관리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첫째, 10개의 산업단지에서 250개의 개선책이 이행되었고 관리자들이 전문 교육을 받았다.

둘째, 30개의 산업단지에서 관리직이 임명되었다.

셋째, 2008년 이래로 30개의 산업단지에서 자체 관리 시스템(GMC)이 만들어졌다.

넷째, 24개의 주지사들에게 산업단지에 지역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했다.

다섯째, 자체적 관리협회와 각 부처사이에 대화를 재개하는데 기여했다 등이다.

27) <http://www.giz.de/en/worldwide/19751.html>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EU

1) 현황 및 지원전략²⁸⁾

2007년부터 EU는 튀니지의 재정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10년에는 경제 거버넌스와 경쟁력 구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 투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고용촉진을 위해 협력예산을 할당하였고 경제회복, 시민사회, 민주적 사회로의 이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원조 성과와 평가(1985-2008년)²⁹⁾를 보면, EU는 튀니지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개발전략 프로그램과 EU협력 전략의 일치를 통하여 튀니지의 경제적 성장과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유럽의 다양한 개입을 통해 긴밀한 협력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개혁을 지원하는데 협력하였으나 구체적 조치와 프로그램의 이행까지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 다양한 수준(초·중·고)에서 국가 교육 시스템 개혁과 MDG달성을 위한 직업교육분야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다.

EU는 튀니지에 유럽근린기금(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ENI)과 그 이외의 EU 재정수단으로 개발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유럽근린기금(ENI)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재정 지원 수단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럽 근린파트너십기금(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ENPI)아래 개발원조를 이행했다.

28) https://ec.europa.eu/europeaid/countries/tunisia_en

29) http://ec.europa.eu/europeaid/how/evaluation/evaluation_reports/2011/1287_docs_en.htm

① 2007년 - 2013년 협력 전략:

- 민주주의와 경제 거버넌스 발전
- 튀니지 민주화 이행 지원(선거 지원, 법치주의 강화, 튀니지 국가제헌의회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NCA) 지원)
- 사회 불평등 해소와 지역 및 지방 개발 지원
- 튀니지 시민 사회 역할 강화와 인권 분야의 발전 지원

② 2014년-2015년 협력 전략의 우선순위

- 포괄적 성장,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 개혁
- 민주주의 근본 요소 강화
- 지역 및 지방의 지속적인 개발
- 이 외에도 역량 강화나 시민 사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EU의 대 튀니지 ODA 지원 추이를 보면 2010년 지원규모에 비해 2011년에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미미하던 유상 ODA 지원이 2011년부터 갑자기 약 300백만 불 수준으로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2011년 이전에는 항상 무상 ODA 규모가 유상 ODA 규모보다 컸었다.

<표 3-28> EU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ODA 지원금액	무상 지원	유상 지원
2002	-	-	-
2003	1.116	1.116	-
2004	-	-	-
2005	109.563	103.348	6.214
2006	163.483	119.552	43.931
2007	134.297	134.297	-
2008	82.957	82.957	-
2009	108.086	108.086	-
2010	92.301	92.301	-
2011	478.26	181.281	296.979
2012	602.799	189.303	413.497
2013	503.011	117.512	-

자료: OECD DAC. Statistics.

2) 중점지원 분야

EU는 모로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 내에서는 에너지와 금융서비스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생산부문의 지원규모가 큰데, 규모 상 경제 인프라의 에너지 및 금융서비스 지원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3-29〉 EU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단위: USD 백만)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 순위
사회인프라	57.217	18.357	62.275	37.755	44.077	219.681 / 4
경제인프라	1.944	37.935	77.254	337.577	283.272	737.982 / 1
생산 부문	10.056	10.495	29.998	73.300	114.505	238.354 / 3
다부문	5.285	1.509	13.557	72.829	25.266	118.446 / 6
필수품 원조	33.546	23.935	96.590	81.288	33.192	268.551 / 2
행정비용	0.012					0.012 / 7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0〉 EU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2	-	-	-	-	-	-
2003	-	-	-	-	-	-
2004	-	-	-	-	-	-
2005	4.627	0.314	-	-	-	4.313
2006	1.792	-	-	-	-	1.792
2007	1.633	-	-	-	-	1.633
2008	1.641	-	-	-	-	1.641
2009	1.944	-	0.035	1.253	0.057	0.598
2010	37.935	37.149	0.083	-	0.467	0.236
2011	77.254	1.404	0.402	20.954	53.660	0.834
2012	337.577	64.267	0.128	160.668	112.396	0.117
2013	283.272	45.008	0.073	119.530	112.908	5.753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31> EU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계획	물· 위생	시민사 회·치안	기타 인프라
2002	-	-	-	-	-	-	-
2003	1.116	0.971	0.078	-	-	0.068	-
2004	-	-	-	-	-	-	-
2005	24.710	6.531	0.201	-	16.350	0.996	0.633
2006	90.930	47.235	24.727	-	17.689	1.251	0.028
2007	59.506	57.678	0.096	-	0.015	1.717	-
2008	63.577	17.796	28.642	0.416	0.072	16.507	0.144
2009	57.217	27.695	0.165	-	11.141	18.050	0.166
2010	18.357	0.135	0.295	0.563	0.029	16.932	0.404
2011	62.275	23.851	-	0.786	14.182	22.062	1.394
2012	37.755	0.722	0.213	-	13.076	10.180	13.563
2013	44.077	29.144	0.061	-	-	14.486	0.387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32> EU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2	-	-	-	-	-
2003	-	-	-	-	-
2004	-	-	-	-	-
2005	13.491	-	13.221	0.270	-
2006	8.519	-	7.111	1.408	-
2007	6.759	-	6.476	0.283	-
2008	15.099	-	14.554	0.545	-
2009	10.056	-	9.821	0.235	-
2010	10.495	0.065	10.069	0.360	-
2011	29.998	0.059	29.935	0.003	-
2012	73.300	0.865	72.423	0.012	-
2013	114.505	0.803	113.702	-	-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33> EU의 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체	환경교육·훈련	기타 다부문
2002	-	-	-
2003	-	-	-
2004	-	-	-
2005	11.97	-	11.97
2006	18.165	-	18.165
2007	1.018	-	1.018
2008	2.322	0.706	1.616
2009	5.285	1.973	3.312
2010	1.509	0.882	0.627
2011	13.557	10.599	2.959
2012	72.829	5.863	66.967
2013	25.266	5.516	19.75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이상의 관련 자료를 통해 2013년 기준 EU는 튀니지의 에너지, 산업·광업·건설업, 금융서비스, 교통·물류보관, 그리고 교육 순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원 방식의 특성³⁰⁾

EU는 튀니지에게 유럽근린파트너십 기금(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ENPI) 및 유럽근린기금(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ENI) 이외에도 각 분야별 기금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유럽기금(the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EIDHR), 국가 안정화를 위한 기금(the Instrument for Stability; IfS), 비국가적 행위자와 지방 정부(Non-State Actors and Local Authorities; NSA/LA), 이민자와 망명자를 위한 투자기금 등을 지원한다.

30) https://ec.europa.eu/europeaid/countries/tunisia_en

2007년에서 2013년에 튀니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교류를 지원하는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프로그램과 고등 교육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템퍼스(Tempu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이 두 프로그램은 2014년 초에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프로그램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4)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³¹⁾

프로젝트 명은 유럽-튀니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이행지원 프로그램이고 이행 기간은 2003-2009년이다.

본 프로젝트는 경제와 금융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까지 EU와 튀니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EU는 튀니지의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EU-튀니지 연합협정(AA)을 이행하도록 지원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무역 활성화, 교류의 다양화를 위해서 관세장벽을 낮추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조건 및 사회보장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담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튀니지의 관세정책이 현대화되었다. 3년 동안에 1,800명의 세관원이 직업 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과 세관원의 역량과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나.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AFESD: Arab Fund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 현황 및 지원 전략³²⁾

튀니지는 AFESD의 회원국으로 경제 및 사회개발 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AFESD는 기초 서비스 제공, 생산 역량 향상, 투자 환경 향상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회원국에 제도적 지원과 트레이닝 제공, 긴급 프로그램

31) http://ec.europa.eu/europeaid/documents/case-studies/tunisia_econ-dev_fr.pdf

32) Arab Fund 홈페이지

시행, 세미나 및 컨퍼런스 조직, 타당성 조사나 프로젝트 사전 준비와 같은 포괄적 연구 및 조사 진행을 목표로 회원국에 무상원조를 할당하였다.

AFESD는 튀니지의 농업, 에너지, 산업, 사회 서비스, 교통, 물 관련(댐, 하수)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 ODA 지원이 대부분이며, 튀니지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상원조는 경제 인프라 분야의 도로 프로젝트(the Regional Roads and Rural Tracts(Phase III))에 할당되었다. 도로 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생산과 소비지역 사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표 3-34> 아랍펀드의 주요 지원 분야 프로젝트 투입금액

분야(투자 이행 년도)	금액(백만 디나르)
농업(1980-2006년)	124,283
에너지(1974-2010년)	130,793
산업 및 채굴(1977-2000년)	32,224
그 외 분야(1985-2012년)	20,273
사회 서비스(1996-2012년)	64,747
전기통신(1981-1982년)	4,697
교통(1981-2011년)	203,123
수자원 및 댐(1979-2002년)	54,088

자료: <http://www.arabfund.org/Default.aspx?pageId=357&Cr=TUNISIA>

<표 3-35> AFESD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ODA 지원금액	무상 지원	유상 지원
2008	102.612	-	102.612
2009	94.892	0.460	94.432
2010	153.669	1.510	152.159
2011	36.276	0.088	36.187
2012	81.595	4.966	76.629
2013	81.283	4.765	76.519

자료: OECD DAC. Statistics.

2) 중점지원 분야

〈표 3-36〉 AFESD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단위: USD 백만)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 순위
사회인프라	13.209	14.459	12.954	5.470	7.662	53.754 / 2
경제인프라	71.211	128.667	14.127	70.645	54.110	338.76 / 1
생산 부문	10.472	10.544	9.195	5.480	3.058	38.749 / 3
다부문					16.454	16.454 / 4
합계	94.892	153.67	36.276	81.595	81.284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AFESD는 ODA 지원금의 대부분을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에너지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3-37〉 AFESD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8	71.514	32.870	-	38.644	-	-
2009	71.211	51.717	-	19.494	-	-
2010	128.667	22.047	-	106.620	-	-
2011	14.127	6.472	-	7.655	-	-
2012	70.645	3.415	-	67.229	-	-
2013	54.110	10.250	-	43.860	-	-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38> AFESD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계획	물· 위생	시민사회· 치안	기타 인프라
2008	12.278	-	-	-	11.703	-	0.575
2009	13.209	-	-	-	12.722	-	0.487
2010	14.459	-	-	-	13.929	-	0.529
2011	12.954	-	-	-	12.535	-	0.419
2012	5.470	-	-	-	5.393	-	0.077
2013	7.662	-	-	-	7.214	-	0.448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39> AFESD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8	18.821	18.821	-	-	-
2009	10.472	10.012	0.1	-	0.361
2010	10.544	9.034	0.036	0.873	0.602
2011	9.195	9.107	0.088	-	-
2012	5.48	5.48	-	-	-
2013	3.058	3.058	-	-	-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40> AFESD의 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체	환경교육·훈련	기타 다부문
2008	-	-	-
2009	-	-	-
2010	-	-	-
2011	-	-	-
2012	-	-	-
2013	16.454	-	16.454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3) 지원 방식의 특성 ³³⁾

중·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특별 회계(special account)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시행 업체에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을 위한 차관과 무상원조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제공하기도 한다.

다. OPEC 국제개발기금(Th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FID)³⁴⁾

1) 현황 및 지원 전략

OPEC 국제개발기금은 1978년 농업프로젝트로 튀니지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현재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다음으로는 교통 분야와 교육 분야의 투자가 뒤를 잇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수스(Sousse) 지역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도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식량 안보, 산업 활성화와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2013년에 약 15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액 유상지원이었다.

<표 3-41> OPEC의 對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ODA 지원금액	무상 지원	유상 지원
2009	2.364	-	2.364
2010	-	-	-
2011	1.212	-	1.212
2012	0.185	-	0.185
2013	15.176	-	15.176

자료: OECD DAC. Statistics.

33) <http://www.arabfund.org/Default.aspx?pageld=514&mid=297>

34) <http://www.ofid.org/COUNTRIES/Africa/Tunisia>

2) 중점지원 분야

〈표 3-42〉 OPEC의 對 튀니지 원조 지원분야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 순위
사회인프라	2.096		1.212	0.185	0.169	3.662/2
경제인프라					15.006	15.006/1
생산부문	0.268					0.268/3
합계	2.364		1.212	0.185	15.175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43〉 OPEC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물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2013	15.006	-	-	15.006	-	-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44〉 OPEC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계획	물· 위생	시민사회 ·치안	기타 인프라
2009	2.096	2.096	-	-	-	-	-
2010	-	-	-	-	-	-	-
2011	1.212	1.212	-	-	-	-	-
2012	0.185	0.185	-	-	-	-	-
2013	0.169	0.169	-	-	-	-	-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45> OPEC의 생산부문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생산	농업· 임업·어업	산업· 광업·건설업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2009	0.268	0.268	-	-	-
2010	-	-	-	-	-
2011	-	-	-	-	-
2012	-	-	-	-	-
2013	-	-	-	-	-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4. 국제사회의 ODA 특징 비교 및 시사점

가. 중점지원 분야

프랑스와 독일은 교육과 식수위생에 중점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교통과 물류 및 식수위생, 미국은 시민사회(거버넌스), EU는 에너지와 은행 금융분야, 아랍펀드는 에너지와 식수위생 등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여파로 시민사회(거버넌스)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에너지와 식수위생에 대한 지원도 큰 편이다.

<표 3-46> 對 튀니지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순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물 위생	시민사회 (거버넌스)	기타
	A: 2(2) B: 1(1) C: 1(1) D: 0(0)	A: 0(0) B: 0(0) C: 0(0) D: 1(1)	A: 0(0) B: 5(4) C: 0(0) D: 0(0)	A: 3(3) B: 0(0) C: 1(1) D: 1(1)	A: 0(0) B: 1(1) C: 0(0) D: 0(0)
프랑스	A		B		
독일	A		B	C	
일본			B		
미국	-	D		A	
스페인	B			D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물 위생	시민사회 (거버넌스)	기타
	A: 2(2) B: 1(1) C: 1(1) D: 0(0)	A: 0(0) B: 0(0) C: 0(0) D: 1(1)	A: 0(0) B: 5(4) C: 0(0) D: 0(0)	A: 3(3) B: 0(0) C: 1(1) D: 1(1)	A: 0(0) B: 1(1) C: 0(0) D: 0(0)
스위스				A	B
한국	C		B	A	
EU					
ArabFund			B		

자료: 연구진 작성

주1: 양자 및 다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를 A, 다음 순위는 B, 그 다음은 C, D로 표기

주2: 괄호안 숫자는 다자 주체를 제외한 양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를 의미

<표 3-47> 對 튀니지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순위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교통 수송	에너지	은행 금융	사업 기타	농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A: 1(1) B: 0(0) C: 2(1) D: 2(1)	A: 3(1) B: 0(0) C: 0(0) D: 0(0)	A: 0(0) B: 1(0) C: 0(0) D: 1(1)	A: 0(0) B: 1(1) C: 1(1) D: 0(0)	A: 0(0) B: 0(0) C: 3(3) D: 1(0)	A: 0(0) B: 0(0) C: 1(0) D: 2(1)	A: 0(0) B: 0(0) C: 0(0) D: 1(1)
프랑스	C						D
독일	D						
일본	A				C	D	
미국				B	C		
스페인		A			C		
스위스			D	C			
한국						D	
EU	D	A	B			C	
ArabFund	C	A			D		

자료: 연구진 작성

주1: 양자 및 다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를 A, 다음 순위는 B, 그 다음은 C, D로 표기

주2: 괄호안 숫자는 다자 주체를 제외한 양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를 의미

나. 주요 시사점

DAC회원국이 튀니지에게 지원하는 ODA 총액의 1/2이상을 프랑스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지원액이 다자기구의 지원총액의 약 1/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튀니지의 ODA지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또한 프랑스는 튀니지 사회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튀니지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개발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권리 접근성격차 해소’와 ‘시민의식 고양’이라는 프로젝트가 좋은 예이다. 이 프로젝트는 튀니지와 프랑스의 시민 사회단체 38곳 그리고 지방공동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튀니지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불어권 아랍 국가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불어권 아랍국가의 문화와 사업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불어권 국가와의 협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튀니지의 ODA 사업을 보았을 때, 프랑스의 AFD는 KOICA의 좋은 협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AFD는 튀니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다각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아울러 튀니지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AFD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ICA와 AFD의 협력가능성과 협력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프랑스 인구의 약 6-9%정도가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출신이라고 추정되고 있고, 이들 튀니지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않고 자신들의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어서 프랑스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만일 제3국이 프랑스의 대 튀니지 ODA사업에서 튀니지인 대상 연수나 훈련을 대신 하겠다는 제안을 해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FD와의 협력분야는 AFD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에서의 연수와 훈련이다.

ODA사업 역사가 오래되어 많은 경험이 축적된 공여국들은 대부분 서유럽국가이며 이들 서유럽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근접해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낮기 때문에 ODA 사업방식도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AECID는 무상원조만을 하는데 자국의 ODA 전문가들이 튀니지에 상주하면서 자국이 추진하는 ODA 사업의 장단기 계획 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튀니지의 NGO나 노동조합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관련 연구를 동반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KOICA가 튀니지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역량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에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튀니지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무상 ODA 사업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가 고려할 만한 신규 사업이 있다면, 이는 대부분 현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므로 먼저 튀니지와 불어권 국가에서의 사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초역량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현지 사무소 직원채용 시스템, 예를 들면, 한국인 불어권 전문가 양성이나 튀니지인 채용확대 등에 대한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서유럽 국가들의 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우리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한-튀니지 협력현황³⁵⁾

우리나라와 튀니지의 영사관계 수립은 1968년 5월 17일에 이루어졌으며,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은 1969년에 이루어졌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튀니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경제·통상 등 분야에서의 실질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현재 KOICA를 통해 기술협력과 원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양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8> 한-튀니지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출	126,825	344,789	185,610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
수입	18,904	34,885	42,658	의류, 알루미늄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2. KOICA의 지원현황

우리나라의 튀니지에 대한 ODA 비중 및 타 공여국 들과의 비교를 보면 한국은 튀니지의 9위 공여국임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주한 튀니지 대사관 '한국과의 협력관계' 참고

<표 3-49> ODA 공여주체별 튀니지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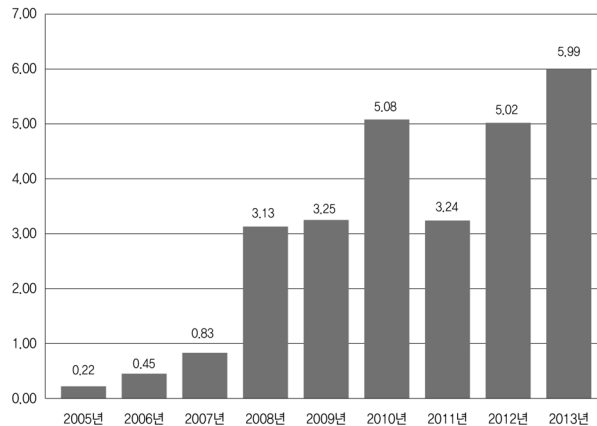
순위	국가	지원액	순위	국가	지원액
1	프랑스	206.20	9	한국	3.18
2	스페인	78.48	10	벨기에	2.64
3	독일	32.09	11	스웨덴	2.61
4	미국	18.64	12	덴마크	0.90
5	일본	18.55	13	아랍에미리트	0.87
6	터키	12.56	14	룩셈부르크	0.68
7	스위스	7.08	15	핀란드	0.65
8	영국	5.07		-	

자료: OECD/DAC 홈페이지

한국의 대 튀니지 지원 역사 및 동향³⁶⁾을 보면 1973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KOICA 지원으로 태권도 사범 정부파견 사업이 시작되었고 프로젝트 형 협력사업(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범사업,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국민 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3] KOICA의 튀니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36) <http://tun.mofa.go.kr/korean/af/tun/policy/relation/index.jsp>

KOICA의 튀니지에 대한 원조 추이는 2011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까지의 누적된 총 지원금액은 약 2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1-2010년 사이 주요사업은 Cenafiff 국립직업훈련센터 자동화실 지원사업, 태권도회관 건립사업,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양잠개발사업, 패류양식 기술지원 사업(남동부 해안), 코르크 참나무 숲 쇠퇴원인 분석 및 지속가능개발, 대기오염 모니터링 능력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범사업,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이다. 그리고 1997년에 유상원조 형태로 올림픽스타디움 건설사업을 위해 3,0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2014년도 사업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기타 분야에서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범사업,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배전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 역량강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표 3-50〉 사업 유형별 지원 실적

사업 형태		사 업 내 용(사업기간 / 지원규모)
프로젝트	종료	Cenafiff 직업훈련원 Amira실 지원사업('94-'95/40만 불)
		태권도 회관 건립사업('97-'99/65만 불)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97-'00/83만 불)
		양잠개발사업('04-'07/75만 불)
		코르크 참나무숲 쇠퇴원인 분석 및 지속가능개발사업('07-'10/60만 불)
		패류양식 기술지원 사업('08-'10/160만 불)
		대기오염 모니터링 능력강화사업('08-'10/250만 불)
		고용정보시스템 개선사업('09-'10/300만 불)
	계속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범사업('10-'15/363만 불)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시범사업(2014-2018/200만 불)
	사후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사업('11-'13/570만 불)
		패류양식 기술지원 사업('08-'10/160만 불)
	신규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2015-2017/500만 불)
개발조사	종료	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조사('96-'97/18만 불)
		배전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 역량강화사업('13-'15/200만불)
	사후관리	갑사 테크노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사업('12-'13/53만 불)

사업 형태		사 업 내 용(사업기간 / 지원규모)		
물자 지원	종료	차량, 컴퓨터 등 12건 67만 불(1991-2014)		
국내 초청 연수	종료	513명(1991-2014/308만 불)		
글로벌 연수	신규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아프리카)	6명	121.5백만 원
		개발협력정책(아프리카 중동)	2명	
		조달 공무원 역량강화	1명	
		무역진흥(아프리카)	6명	
국별 연수	신규	과학기술혁신정책	15명	121.5백만 원
		기술연계정책 및 성공사례분석	15명	121.5백만 원
봉사단 파견	종료	172명(1991-2014/765만 불)		
	신규	45명(2015/1,943백만 원)		
전문가 파견	종료	9명(1991-2014/15만 불)		
태권도 사범	종료	2명(1991-2014/113만 불)		

위 도표에서 프로젝트 중 계속사업인 ‘전기전자장비 재활용시범사업(2010-2016/ 363만 불)’은 국가차원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스템(법과 제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즉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재활용센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법제도 및 주민의식 증진을 위해 전문가 파견과 국내초청연수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튀니지 측 수원기관은 환경부 산하 폐기물관리청(ANGed)이다.

‘배전신뢰도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 역량강화사업(2013-2015/200만불)’은 튀니지의 전력수요가 매년 평균 6.7%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최적 전력수요 관리기법 컨설팅, 300kW급 축냉식 시스템(cool storage) 시범구축, 전력수요관리 및 배전신뢰도 향상에 관련된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한 튀니지 측 수원기관은 산업부 산하 튀니지전기가스공사(STEG)이다.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2014-2018/200만불)’은 KOICA가 이미 지원한 ‘코르크 참나무 숲 쇠퇴원인 분석 및 지속가능개발사업(2007-2011/65만불)’의 후속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활동을 수행하여 생태계 복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00ha 면적의 참나무 숲 시범식목, 10ha 맹아갱신, 양묘장 개선 및 종자저장소 설치, 참나무 묘목 보호 및 인근 농가소득 증대사업(양봉) 실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실무자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양묘장 현대화, 종자저장소 설치, 기자재 통관 및 현지구매, 식목 및 양묘장 현대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 수원기관은 튀니지 농업부 산하 국립산림수자원연구원(INGREF)이다.

‘국민 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2015-2017/500만 불)’은 튀니지 정부가 민원 및 부패신고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즉 민원 및 부패신고 관련 법제도 조사, 요구분석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 국민 홈페이지 및 업무처리시스템 개발(10개 기관 시범), 그리고 민원처리 정책 및 운영관련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튀니지 총리실 전자 정부국(e-government unit)이 수원기관으로 되어있다.

UNDP 튀니지 민주주의 및 안정화 지원사업(2016-2019/357만불)은 2016년 후보사업으로 국민신문고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신문고 주요 사용기관인 반부패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반부패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튀니지 시민단체 역량강화(ICT 활용, 책임성 제고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2015년에는 예비조사 실시와 함께 KOICA-UNDP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수원기관은 튀니지 반부패위원회(ACRC)이다.

초청연수는 글로벌연수(다국가) 4개 과정(15명), 국별연수 2개 과정(30명) 등 총 45명 추진 예정이다. 여기서 글로벌 연수는 무역진흥(6명), 수자원(6명), 조달(1명), 개발협력정책(2명)이고, 국별 연수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 국별연수를 2개 과정(각각 15명) 개설하여 수원국 우선순위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는 석사과정(20개)가 과정별로 추천을 접수받고 선발을 하는데, 2014년에는 튀니지 공무원 3명이 선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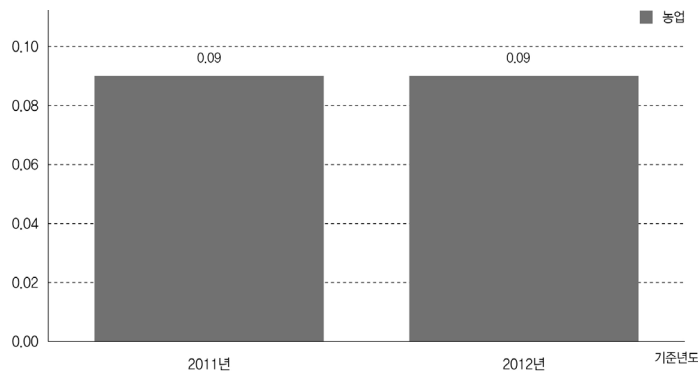
고, 이들은 부경대, 고려대, 한국외대에서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다. 봉사단파견은 중장기자문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견분야는 컴퓨터, 한국어교육, 건축, 사회복지, 체육교육, 음악교육, 요리교육, 태권도, 환경 등이다.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가.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각 부처별 튀니지 개발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농림수산물협력지원단을 구성하여 튀니지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튀니지 농림 수자원수산부장관과 산림협력 MOU를 체결하고,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참나무 숲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 양국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산림분야 이외에도 농업통계, 생굴양식 등 농수산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림 3-4] 농촌진흥청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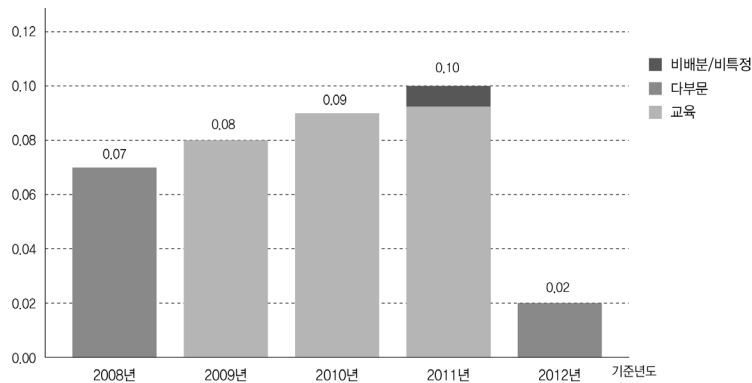


자료: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나. 교육부

교육부의 경우 2008년 연구/과학기관 지원 및 2009-2011년(연보라)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전문대, 대학(원) 교육,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비지정 분야에도 투자하였다.

[그림 3-5] 교육부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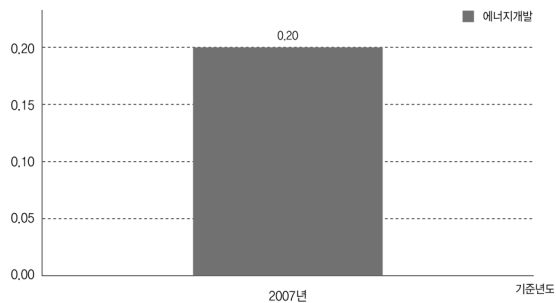


자료: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송전 및 배전 발전을 위한 무상원조를 하였다.

[그림 3-6] 산업자원부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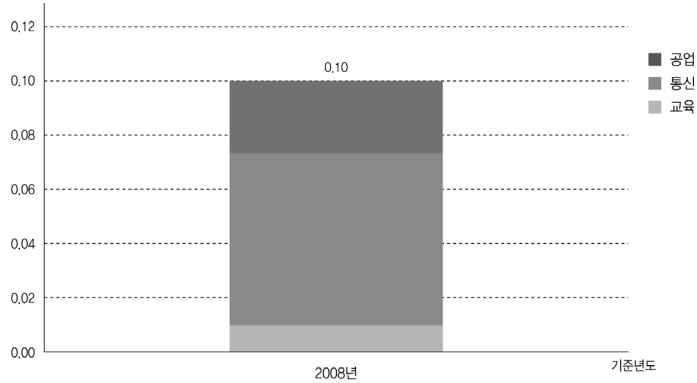


자료: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연구 개발과 전문대, 대학(원)교육에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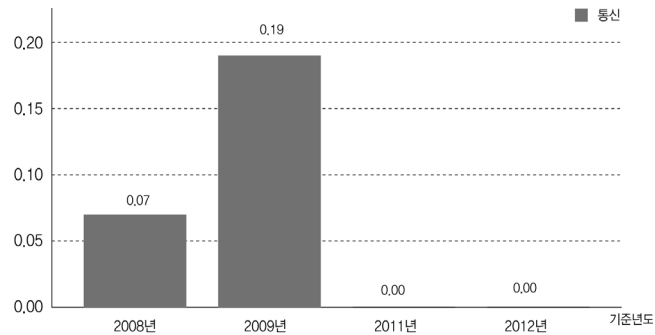
[그림 3-7] 미래창조과학부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자료: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마. 방송통신위원회

[그림 3-8] 방송통신위원회의 對 튀니지 원조 추이



자료: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바. 유상원조

유상원조로는 1997년에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사업을 위해 30백만 불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업은 2001년 튀니지 개최 지중해 연안국 국제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것으로 주경기장(60,000석), 3개 보조경기장, 진입로, 주차장등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한 지원이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제4장

KOICA의 튀니지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튀니지의 개발과제 및 특징

가. 민주화 추진과 정치·경제 불안

튀니지는 2015년 2월 4일 새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정권 이행 과정이 완료되었다. 재스민 혁명으로 독재에서 민주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침체와 정치 및 치안 불안이 새 정권의 최대 과제이다.

나. 지역 간 큰 격차는 심각한 사회 불안요소

튀니지는 심한 지역 간 소득불평등이 큰 사회적 문제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는데 튀니지의 2011년 전체인구 중 66.3%는 도시에, 33.7%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에 개발이 집중된 데서 기인한다. 지역 간의 큰 격차는 사회적 안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불안의 핵심이 되고 있으므로 해소방안이 시급하다.

다. 높은 실업률과 불투명한 경제성장

튀니지의 실업률은 2013년에는 15.9%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로코의 9.2%(2013), 알제리의 9.8%(201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15-24세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더 심각한데 튀니지가 42.3%, 모로코 18.6%, 알제리 22.4%로서, 튀니지 실업자의 3분의 1은 젊은 대졸자인 것이 현 실정이다. 튀니지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과 서비스분야(보건, 항공, 통신)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방향전환과 무역 통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해외무역과 외국인투자는 튀니지의 성장 동력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 튀니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제정책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라. 국제사회는 교통 및 물류, 물 위생, 에너지 등 인프라와 교육에 지원집중

프랑스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규모가 비슷하고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과 환경, 교통과 물류보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유상 ODA의 무상에 비해 그 비중이 2배 가까이 더 커지고 있으며,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물 위생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은 무상이 유상보다 3배가량 많으며, 교육과 물 위생, 교통 및 물류보관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EU는 에너지, 금융, 산업·광업·건설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AFESD의 중점지원 분야는 에너지와 교통 및 물류보관이며 거의 유상 ODA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을 놓고 볼 때, 국제사회는 튀니지의 교육과 교통 및 물류, 물 위생, 에너지 등에 중점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언어와 문화 차이로 협력사업 어려움

튀니지는 아랍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로서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접근 및 활동이 어려운 국가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사고 차이와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따라서 협력사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종종 봉착한다. 따라서 현지 인력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여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바. 튀니지는 중요한 ODA사업 대상국

내수중심의 OECD/DAC회원국은 ODA를 선택과 집중, 수출중심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여러 나라에 ODA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후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 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튀니지에서의 ODA 사업 활동은 향후 불어권 국가들과의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튀니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아랍국가중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서구화된 국가이다. 따라서 튀니지는 향후 불어권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불어권 국가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이들 불어권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국가이다.

2. 튀니지 지원 기본방향

앞에서 서술한 튀니지의 국가적 과제 및 특징을 고려할 때, KOICA에서는 튀니지의 민주화 및 지역불균형 해소지원을 협력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 국가와의 개발협력 확대를 위하여 교육수준과 개방성이 뛰어나고 유럽과의 접근성이 높은 튀니지를 전략적으로 활용, 인력양성 기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프랑스 등 현지 경험이 풍부한 공여국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튀니지의 민주주의 정착 및 사회안정 회복 지원

재스민 혁명 이후 성공적인 헌법 개정 및 안정적인 신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이후 공공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 및 경제회복, 민주주의 정착 등의 국가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안전(Security)과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에 중점을 둔 국가개발전략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KOICA의 경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튀니지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 정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지원

튀니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소득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소외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련자 능력배양을 위해 무역/경제 교육, 직업훈련 등의 지원, 그리고 관련 산업 에너지 관리능력 경험전수 등이 필요하다.

다. 선진 공여국들과의 협력사업 확대

튀니지 현지에 있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여국들과의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ODA신흥국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국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원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튀니지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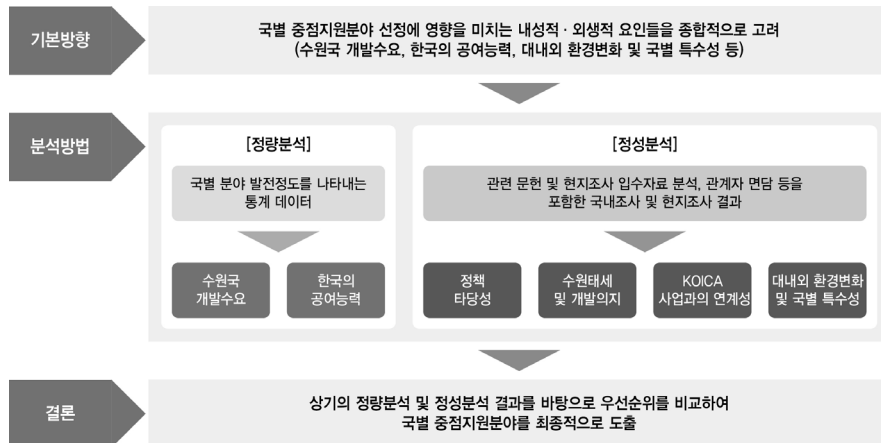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국의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선별·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총 6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이는 KOICA의 사업분야³⁷⁾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산업에너지의 경우,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고 있어 이 중 인프라(교통, 통신 등)은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범분야와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모든 분야 및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함께 고려하였다.

상기의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지표를 선정하고,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정량 분석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를 측정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산한 분야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별 중점지원 분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37) KOICA 7대 사업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성평등, ICT, 인권), 기후변화대응이다.(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나. 정량분석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 활용된 정량분석 방법론은 아프리카 협력분야 선정 관련 기존 선행연구³⁸⁾에서 사용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수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역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적 협력분야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간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gap)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존 ODA관련 타 연구들과는 달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8)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우선 상기 6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분야별 지수값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야별 지수값은 벤치마킹 국가의 지수값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 격차 및 핵심 성장요인으로서의 잠재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역시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비교하여,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 차이를 분석했다.

2) 분야별 지표 및 비교대상국 선정

박영호 외(201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환경수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그리고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ex, 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6개 분야별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분석에 사용된 지표의 선정 근거와 각 지표별 자료 출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상세한 지표구성 및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1> 분야별 지표선정 근거 및 데이터 출처

분야	지표 선정 근거	데이터 출처
교육	교육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파악	GCI, HDI
보건의료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파악	GCI, HDI, WHO
농림수산	관개화율, 농업 생산성과 경제 기여도 파악	GCI, WDI, FAO
공공행정	정부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안정성 파악	GCI
산업에너지	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에너지 수급 환경 파악	GCI, WDI, UNIDO
인프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보급률 및 발전 정도 파악	GCI, WDI, ITU

한편,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있기에, 분야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데이터를 같은 범위로 표준화하고 이를 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그 외 데이터들 역시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야별 발전정도는 수원국 대비 다음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 국가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상대적 발전 격차를 측정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경쟁력지수(GCI)보고서』를 통해 국가들의 경제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국 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구분	1단계: 요소주도 경제단계 (1.0)	이행단계: 1단계 → 2단계 (1.5)	2단계: 효율성 주도 경제단계 (2.0)	이행단계: 2단계 → 3단계 (2.5)	3단계: 혁신주도 경제단계 (3.0)
국가 (예시)	방글라데시, 브룬디, 차드, 세네갈, 에티오피아, 인도,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앙골라, 볼리비아, 보츠와나, 가봉, 온두라스, 몽골, 필리핀, 리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자메이카, 요르단, 모로코, 페루, 태국, 튀니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브라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터키, UAE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 싱가포르, 스웨덴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4)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분석대상국가(발전단계)	비교대상국가(발전단계)
알제리(1.5)	이집트(2.0), 자메이카(2.0), 모로코(2.0)
모로코(2.0)	UAE(2.5), 터키(2.5), 오만(2.5)
튀니지(2.0)	UAE(2.5), 터키(2.5), 오만(2.5)
세네갈(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코트디부아르(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3) 수원국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우선 수원국 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벤치마킹 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1]을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때, 벤치마킹 대상국이 2개국 이상이므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 간의 이질성에 따른 이상 값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발수요 지수값은 벤치마킹 대상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해당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부문이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N_{ci} = \left(\frac{G_{ci} - \overline{E_c}}{\sigma_c} \right) + 4$$

G_{ci}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대상국가 i 분야 지수의 값

$\overline{E_c}$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대상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값의 합
(협력가능 분야 개수)

σ_c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국가 간 6개 협력가능 분야 값의 표준편차

다음으로 한국 공여능력 지수값 산출을 위해, 연구대상국의 지수값과 한국의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2]를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여능력 지수값은 수원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이는 분야별 한국의 상대적 공급역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S_{ci} = \left(\frac{G_{ci} - \overline{E_c}}{\sigma_c} \right) + 4$$

G_{ci} =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i 분야 지수의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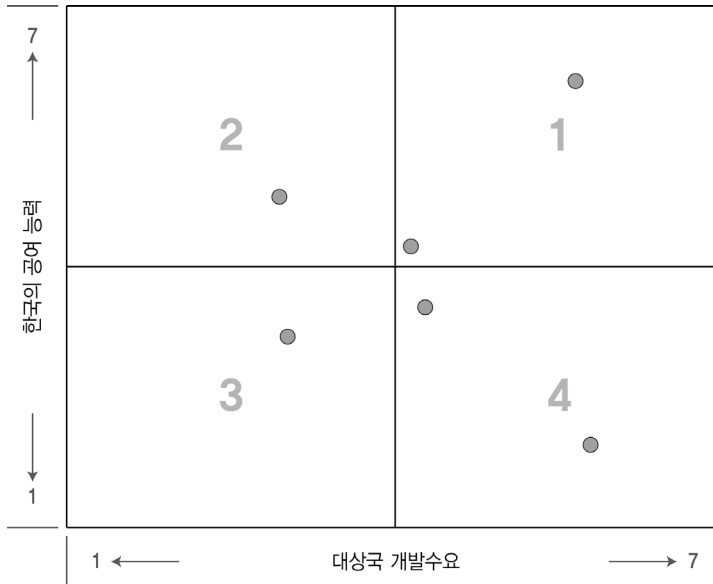
$\overline{E_c}$ =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값의 합
(협력 가능 분야)

σ_c = 연구대상국과 한국 간 6개 협력가능분야 값의 표준편차

4) 중점지원 분야 도출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중점지원 분야란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이 동시에 충족되는 영역으로, 상기 산식을 통해 산출된 연구대상국의 개발 수요 지수값과 한국의 공여능력 지수값을 동시에 비교하여 도출 가능하다. 이는 [그림]과 같은 사사분면 공간 배치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후 최종 중점지원 분야 선정 시 정성분석 결과와의 합산을 위해, 개발 수요 지수값과 공여능력 지수값에 각각 가중치 50%를 곱해 합산한 최종 지수값 결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측정한다.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주: 제1사분면: 최적 개발협력 분야

제2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는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

제3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도 없으며 한국의 역량도 없는 분야

제4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 충족에는 필요하나 한국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

다. 정성분석

1)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 자료로 쓰인 분야별 데이터들이 과거 특정 시점에만 집중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만으로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국의 개발수요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량분석을 통해서는 분야별 상대적 발전격차만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수요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연구대상국의 정책적 의지 및 수원태세, 실제 분야별 개발 수요와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헌조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및 개발의지 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분석만으로는 KOICA와 연구대상국 간의 기존 협력관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없다. 연구대상국에 대한 KOICA의 원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미 현지 대사관 및 주재원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협력관계 및 사업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공여능력을 기 검증한 결과일 뿐 아니라, 향후 KOICA의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국의 개발의지나 우리와의 기존 협력관계와 별개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정세 변화 등 국별로 ODA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구대상 국별로 고려한 특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연구대상국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알제리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수요
모로코, 튀니지	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	사헬(Sahel) 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량분석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량분석과의 결과 합산 및 편의를 위해 분야별 점수를 계량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분석 대상

우선 수원국 정책타당성은 국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야별 발전의 중요성 및 정책 반영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KOICA 지원의 지속가능성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발전전략(NDS)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섹터별 전략, 지역협력기구 전략 및 정책적 담화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평점을 주었다. 다음으로는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의 경우, 현지조사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지 정부 부처별 실제 지원요청 여부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KOICA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사업 추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OICA와의 사업 연계성은 기존 지원현황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평점을 매겼다.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와의 면담과 입수자료를 통해 분야별 기 진행 사업 및 예정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된 분야를 분석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검증된 분야도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및 KOICA 사업과의 연계성과는 별개로, ODA 사업 진행 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국제적 환경 변화 및 특수 요소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 중점지원 분야 도출

상기 4개에 대한 분야별 점수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수행한 국별 연구진이 리커트 5점 척도³⁹⁾를 사용하여 평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했다. 더불어 각 지표마다 본 연구에 고려해야할 필요성 및 중요도가 다르므로 지표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 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과소·과대평가의 가능성을 보완하여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표별 평점 및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점수를 결과로서 도출하고, 분야별로 최종 값을 비교하여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게 되었다. 아래 [표]는 정성분석에 사용된 지표 및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분석 지표	가중치
국가발전계획(NDS) 및 정책과의 부합성(정책 타당성) - 국가발전계획(NDS) 및 주요 현안 - 섹터별 전략 - 지역협력기구 전략	0.25
해당부처 지원요청 및 수원태세 정도(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 결과	0.1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 기존 지원현황 - 향후 지원계획	0.40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예: 알제리-북아프리카 민주화, 국내기업 진출수요 튀니지/모로코-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사헬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0.20

39)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척도로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채택된 방법이며, 1점(매우 낮음)과 5점(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한다.

라. 종합결과 분석 및 중점지원 분야 최종 도출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은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정량 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7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되었으나, 정성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5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는 등 척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두 분석 결과를 종합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값을 각각 5점 기준으로 표준화⁴⁰⁾하였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간 가중치는 각각 30:70으로 산정하여 합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정량분석이 과거의 한 시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 데 반해, 현지 방문을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실제적인 수요, 기존 KOICA 추진사업 및 계획과의 연계성, 국별 특수성 등 현지의 최신 동향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분석의 특성 상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 활용 시, 분야별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최종 지수값이 산출되며, 이를 비교하여 분야 간 우선순위를 도출해낼 수 있다.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text{분야별 최종 지수값} = (\text{분야별 정량 표준지수} \times 30\%) + (\text{분야별 정성 표준지수} \times 70\%)$$

2. 분석 결과

가. 정량분석 결과

수원국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의 경우, 농림수산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공공행정, 인프라, 산업에너지 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개발수요는 교육, 보건의료 순이었다.

40) 7점 기준의 값을 α 라고 했을 때, 산식 $(2\alpha+1)/3$ 을 통해 5점 등간척도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

한국의 공여능력을 보면 산업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인프라, 농림수산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공공행정, 보건의로 순이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한국의 절대적인 공공행정 분야의 역량, 기술력은 높으나 타 분야보다 상대적인 갭의 격차가 작으므로 점수가 낮게 산출되었다.

수원국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국 개발수요도 높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높은 분야는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그리고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정량분석 결과

구분	정량 분석				30%
분야/지표	정량 지표		총계		우선순위
	수원국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능력	평점	표준화지수	
	50%	50%		5점 기준	
교육	3.25	3.93	3.59	2.73	5
보건의료	3.45	3.27	3.36	2.57	6
농림수산	5.15	4.59	4.87	3.58	2
공공행정	4.69	2.79	3.74	2.83	4
산업에너지	4.53	5.42	4.97	3.65	1
인프라	4.58	4.91	4.75	3.50	3

자료: 연구진 분석

나. 정성분석 결과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와의 사업연계성 및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별 특수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행정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산업에너지, 교육 순이었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재스민 혁명 이후 국민의 민주행정 요구가 증대하였고 공공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자정부 구축에 뛰너지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는 등 정책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현지조사 시 총리

실, 국제협력부 및 해당 부처에서 전자정부 사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등 수원 태세 및 개발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KOICA에서 기 지원한 “전자조달시스템 시범구축사업(2011-2013/570만불)” 및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신문고) 구축사업(2015-2017/500만불)” 등, KOICA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도 고려가 되었으며, 재스민 혁명에 따른 국별 특수성 측면에서도 민주주의 정착 및 사회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튀니지 정부가 산업에너지 개발을 통한 성장을 제고 및 고용기회 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높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타당성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총리실 및 국제협력부와 산업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감사 테크노파크의 구축 및 해당 지역의 종합발전에 대한 KOICA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희망의사를 표하는 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가 상당히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 추진 사업인 “튀니지 감사 테크노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사업(2012-2013년/53만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했을 때, KOICA 사업과의 연계성도 중상 정도로 평가되었고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과 관련하여 최근 EU 등 국제사회에서 재정원조를 확대하고 있고, 조만간 FDI 유입분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재스민 혁명 이후 사회 안정화 필요와 실업률 감소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 현지조사 면담 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높은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를 나타냈는데 고등교육과학기술부는 Gafsa 지역 공과대학 Master Planning, T-KAIST 설립을 위한 기술협력을 KOICA 이사장에게 직접 요청한 바 있다. KOICA는 Cenafiff 직업훈련원 Amira실 지원사업(1994-1996 /42만불)과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1997-2000/83만불)을 기 추진한 바 있어, KOICA 사업과의 연계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7> 정성분석 결과

구분	정성 분석						70%
분야/지표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총계		우선 순위
					평점	표준화지수	
						5점 기준	
교육	4	5	4	4	4.15	4.15	3
보건의료	2	3	1	1	1.55	1.55	6
농림수산	3	5	5	1	3.7	3.7	4
공공행정	4	4	5	5	4.6	4.6	1
산업에너지	5	5	3	5	4.2	4.2	2
인프라	3	1	2	1	1.9	1.9	5

자료: 연구진 분석

다. 종합분석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함께 본 최종 종합평가를 보면 공공행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산업에너지, 교육 순으로 도출되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정량분석 결과, 공급능력 측면에서 한국과 튀니지와의 상대적인 개발격차가 적어 4위로 평가되었으나, 정성분석 시 모든 부문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된 결과 1위로 도출되어 종합분석 결과 1순위로 선정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정량분석 상 개발수요는 중간이나 공급능력이 높아 1위로 선정되었고 정성분석에서는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의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평가되어 종합분석 결과 2순위로 도출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정량분석 상 개발수요 및 공급능력은 낮게 평가되어 5위로 선정되었고 정성분석에서는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3위로 평가되어 종합분석 결과 3순위로 도출되었다.

<표 4-8> 종합분석 결과

구분	정량 분석(30%)		정성 분석(70%)		최종종합	100%
분야/지표	평점 (1-7)	표준화지수 (5점 기준)	평점 (1-5)	표준화지수 (5점 기준)	최종종합 (정성:70%+ 정량:30%)	우선 순위
교육	3.59	2.73	4.15	4.15	3.72	3
보건의료	3.36	2.57	1.55	1.55	1.86	6
농림수산	4.87	3.58	3.7	3.7	3.66	4
공공행정	3.74	2.83	4.6	4.6	4.07	1
산업에너지	4.97	3.65	4.2	4.2	4.03	2
인프라	4.75	3.50	1.9	1.9	2.38	5

자료: 연구진 분석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1. 공공행정

튀니지는 2015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정치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튀니지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슬람국가들 중에서 가장 유럽화된 국가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 상당히 크다. 또한 많은 튀니지 인들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어서 튀니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여과 없이 튀니지에 들어오고 있다. 즉 튀니지 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도 강하지만 그 요구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튀니지 정부는 2012년에 발표한 8가지 국가발전전략 중 첫 번째인 “좋은 거버넌스와 기업 환경 개선의 기초 확립”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 및 공공행정 서비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고 그 핵심에는 범부처적인 전자정부의 구축이 있다.

튀니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선진국으로 되어있다. 또한 양국 간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바가 없어 정보유출의 우려가 낮아 튀니지 정부의 입장에서 프랑스나 유럽국가 보다는 한국과 협력해서 공공행정의 투명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인이 있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은 KOICA가 튀니지에서 기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자조달 시스템 지원 사업을 심화 확대발전하는 것으로서, 향후 현지의 수요가 높은 통관, 조세, 연기금 관리 등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은 총리실, 외교부, 개발투자국제협력부 등 다양한 부처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사업으로서 특히 총리실 내 전자정부국(e-government unit)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사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영향력(impact)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UNDP에서 “튀니지 민주주의 및 안정화 지원사업(2016-2019/357만불)”을 2016년 후보사업으로 검토 중인바, 동 사업은 KOICA의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신문고)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제고가 가능할 예정이다. 즉, KOICA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구축, 시스템 개발 및 부처 역량강화, UNDP는 활용자 측면에서 반부패위원회 및 시민단체의 역량강화(ICT 활용, 책임성 제고 등)를 지원하도록 하면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UNDP 외에도 USAID, EU, AFD에서 민주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관련 지원을 해 온 바,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시 제도/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이해관계자 분석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있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재스민 혁명을 경험한 마그레브 국가들은 튀니지와 유사한 정치적 상황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민주화가 진행 중이고, 공공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거버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KOICA는 튀니지 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향후 주변 마그레브 국가에 유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에너지

튀니지는 2004년부터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에너지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튀니지의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던 에너지 소비를 완화시켰고, 카본의 농도는 낮출 수 있게 되었다. 튀니지 정부의 산업에너지 장기발전 전략에 따르면 향후 항공, 자동차, 제약, 의류,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연구네트워크, 물류기지 등의 산업인프라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경제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 에너지 수요관리 현대화, 수자원 관리 개선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튀니지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KOICA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어진다면 튀니지 산업에너지 개발역량의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테크노파크 및 지역 산업발전 지원

현재 튀니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전국에 8개의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내륙 소외지역 5개소를 포함, 총 13개의 테크노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제9차('97-'01) 및 제10차('02-'07) 튀니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그 목표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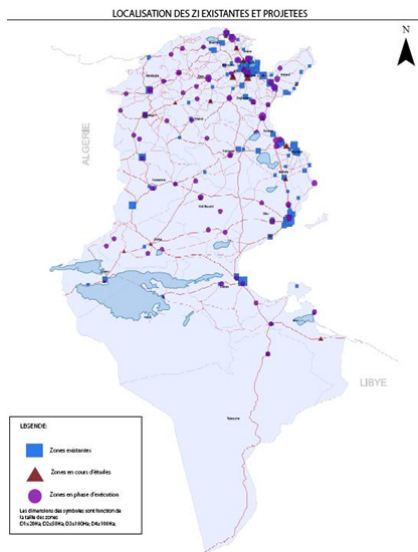
- 목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 창출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
- 목적: 1) ICT, 전자,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수자원 및 환경, 의류, 농산업 및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 향상
2)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의 혁신 기업들과 산업 간 연관관계 형성
3)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직업훈련기관들의 역량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4)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자극
5) 창업보육 및 창업기업들의 성숙과 spin-off 장려
6)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과 지역 근착을 위한 경제플랫폼 구축

튀니지 테크노파크 조성의 정량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15,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정부예산 3백만 디나르를 투입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테크노파크 조성
- 1,500ha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및 40만㎡의 산업구조물 건축

튀니지 정부는 향후 100개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은 산업단지를 표시한 것인데 지도에서 ■는 이미 가동 중인 산업단지를 의미하며, ▲은 설립을 위해 계획 중에 있는 산업단지, ●는 실행단계에 들어간 산업단지를 나타낸다. 아울러 튀니지 정부는 향후 7개의 테크노파크를 건설할 계획인데, 아래 지도에 ◆로 표시된 부분이 미래 테크노파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집중할 산업은 섬유, 제약, 재생에너지 등이며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산업기관과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내 고용기회 창출과 인력양성의 기능을 확충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현황



테크노파크 예상지



자료: 튀니지 산업부

KOICA에서는 튀니지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중 갑사 지역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 및 갑사 주정부로부터 테크노파크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방안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갑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심 기관인 갑사 공과대학(엔지니어링 스쿨) 및 종합기술연구소, 기술훈련센터 등의 세부 요소를 확정하고, 관련기관의 설립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갑사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PCG의 테크노파크 조성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DEEP) 및 자문관 파견이 시급히 필요하다.

기타 가베스(Gabes) 등 소외지역의 경우에도 테크노파크 조성을 계획 중이며, 기존 수스(Sousse), 스팅스(Spax) 등 해안가의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운영역량의 강화가 시급한 바,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테크노파크와의 협의를 통하여 테크노파크 개발의 기

본계획 수립 또는 역량강화의 추진이 가능하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산업개발 계획이 부재한 경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DEEP)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련 유사경험이 풍부하며, 선행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개발컨설팅(DEEP) 또는 프로젝트 형태의 KOICA 단독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튀니지의 산업화 및 산업단지 개발 관련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GIZ와의 상호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녹색경제실현을 위한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튀니지 정부는 섹터별 개발전략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선순위로 녹색경제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 해양 및 연안 생태계와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현
- 해수 담수화 및 수자원의 최적 사용
- 가능한 관개시설과 오아시스와 지하수의 사용을 통해 사막화와의 싸움
- 에너지 강도 표시기 및 신재생 에너지의 광범위한 사용 등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에너지 관리 합리화
- 도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확산하고,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여 청정환 개발체제 구현

에너지 부문에서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원의 발굴이 요구된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총전력 생산의 3%에 불과하나, 튀니지는 남부 사하라 사막 지대를 중심으로 높은 햇빛 비율(연평균 1,400에서 1,600시간)등 비교 우위가 있어 태양에너지 개발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를 위해 전력송배전 효율화 관련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부분은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을 통하여 한전/민간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을 중심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권역에 다양한 실증시범단지 등을 구축하고 있는 바, 관련분야의 한국의 공급능력은 국제적인 비교우위가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튀니지는 물부족 국가로서 수자원관리 타당성 조사와 해수 담수화 및 수자원의 최적 사용, 가능한 관개시설과 오아시스와 지하수의 사용, 해양 및 연안 생태계와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우리나라와 기술협력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에너지 및 수자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 관련 유사경험이 풍부하며, 국내에 GCF, GGGI와 같은 국제기구가 있으므로, 이들과 협력하여 개발컨설팅(DEEP) 또는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역 특산품 개발사업(DEEP, 연수)

튀니지 정국불안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튀니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튀니지의 관광산업은 4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2010년 관광객 수가 771만 5,000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545만1,000명으로 격감했다.

튀니지 서비스산업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에서 막상 구매할 지역 특산품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추가적인 소득증대를 못하고 있어 튀니지 정부 및 관광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시급하게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 튀니지 정부는 2011년 이후 큰 충격을 겪은 관광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였다.

- 제안의 다양화
- 품질과 훈련
- 브랜딩 및 마케팅의 현대화

KOICA를 통해 제안하는 사업은 관광지 당 하나 이상의 특산물을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튀니지의 경우, 올리브, 대추야자, 가죽제품, 도자기류, 카페트, 타일 모자이크 등 지역별로 상품화 할 수 있는 특산품이 상당히 존재하며, 로마 및 카르타고 유적지, 사하라 사막관광, 국토를 따라 조성된 긴 해변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튀니지의 관광 경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지역별 특산물 지정과 이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 또는 DEEP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튀니지 관광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 구성하여 튀니지 관광지역을 순방하며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튀니지 기업들과 지역 특산물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 이전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

튀니지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튀니지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의 경우, 고용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교육훈련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튀니지의 실업 및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지원의 경우, 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창업지원을 통해 실업 및 빈곤을 퇴치하고, 소득 증대, 자생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자동차, 전자제품 수리 및 항공 등 튀니지에서 취·창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직업교육이 권고된다.

또한 다른 공여기관이 진행하듯이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Microcredit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용하여 실제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부분과 관련해서 AFD가 현지의 Microcredit 기관인 Taysir Conseil 등과 협력하는 내용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상자 4-4] 소외지역 경제활동 촉진대책

(Mise place dispositif accompagnement promoteurs activités économiques en zones défavorisées)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튀니지의 소외지역에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영세민의 자활을 돕는 것이다.

프랑스 NGO형 소금융 사업 기관으로 직접 대출을 비롯하여 장비대여 지원,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ADIE(Adie International)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소규모 농장 경영주, 소규모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세 그룹을 대상으로 튀니지의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원 모듈 각 대상 그룹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지원 모듈이 개발과 테스트를 거친 후 전파되는 결과를 기대한다.

또한, 위의 세 그룹에 해당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의 질이 향상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튀니지 소금융 기관 Taysir Conseil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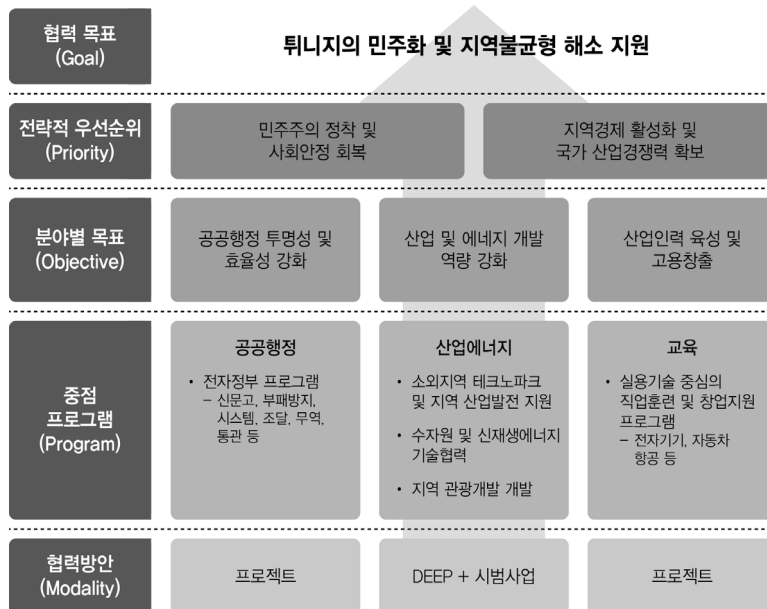
동 사업은 지역적 고려가 중요한데, 특히 내륙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점을 고려, 직업훈련센터를 저소득 밀집지역인 남부지역 등에 신설하여 저소득지역 주민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센터는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생산품 직거래 판매 장소를 제공하고, 우수 교육이수자에게 취·창업지원을 하며 창업 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직업훈련센터가 관리함으로써 직업훈련센터가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센터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과 소외지역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생활환경 및 식수위생 환경개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수 교육이수자에게 주택을 개량해주는 지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보건위생을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도 연계하는 것을 권고한다.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튀니지의 국가적 과제, KOICA의 기본 협력방향 및 중점지원 분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협력 프레임워크의 도출이 가능하다.

[그림 4-3] KOICA-튀니지 간 협력 프레임워크



튀니지는 민주화 정착과 지역불균형 해소지원을 협력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우선 순위는 1)민주주의 정착 및 사회안정 회복과 2)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둘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에 따라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교육 분야가 도출되었다. 우선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공공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KOICA가 기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자조달 시스템 지원 사업을 통관, 조세, 연금금 관리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산업 및 에너지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산업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산업분야의 경우, 소외지역 테크노파크 및 지역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이 필요하다. 튀니지는 가베스 등 여타의 소외지역의 경우에도 테크노파크 조성을 계획 중이다. 또한, 관광분야 마케팅 현대화를 위하여 지역별 관광특산물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을 제안한다.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의 경우, 수자원관리 타당성 조사와 해수 담수화 및 상하수도 처리 등의 사업을 기술협력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를 위해 전력송배전 효율화 관련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산업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실용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을 통해 실업 및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튀니지에서 취·창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에게 Microcredit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튀니지의 개발환경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튀니지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 틀을 도출하는데 있다. 또한 KOICA가 수행하고자하는 튀니지와의 협력사업이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국제기구 및 다른 지원 공여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공조 가능 분야도 가늠해 보아, KOICA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KOICA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가능성 타진도 연구 목적의 하나였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큰 혼란이 있었고 현재도 민주화를 향해 어려운 걸음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튀니지 정부는 민주화 추진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고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의 지원은 튀니지에 단순한 개발협력 지원이 아니라 발전에 성공한 국가가 튀니지에게 희망을 주는 효과를 동반한 지원이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전자조달 시스템 및 신문고 지원사업 등은 튀니지에게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OICA도 그동안 시도하는데 다소 부담스러웠던 민주주의 관련 ODA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처럼 KOICA가 수행하고자 하는 튀니지와의 협력사업은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 등과는 달리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과 영국은 튀니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ODA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편이다. 이는 지금까지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아직 민주화가 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범적인 관점에서 튀니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튀니지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공조 대상으로는 먼저, 프랑스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가 튀니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보다 세부적인 협력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불어권 아랍국가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사용하

는 튀니지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AFD는 KOICA의 좋은 협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조가능 분야로는 AFD가 중점지원하는 분야에서 연수와 훈련에 대해 공조하면서 단계적으로 협력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적절하다.

KOICA가 ODA 사업 역사가 오래되어 많은 경험이 축적된 공여국들과 공조를 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다.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KOICA에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인 불어권 ODA 전문가 양성이나 튀니지인 채용확대 등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서유럽 국가들의 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KOICA가 중장기적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성규. 2013. 『개도국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ODA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김중관. 2007. 「튀니지의 경제정책의 평가와 예측에 관한 연구: 통상환경과 투자유인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 9권. 제 2호. pp. 1-24.
- 김중관. 2012. 「북아프리카 지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실증연구 -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9권 3호
- 김창건. 2014. 「마그레브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및 공적개발원조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2014권2호
- 김창건. 2014. 튀니지 ICT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원)생 창업의지 설문. Unpublished 내부 보고서. 튀니지: 엘가젤라 테크노파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국가정보: 튀니지』, KOTRA
- 박복영, 김준연, 이흥식. 2014. 「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국제통상연구』. 19권 2호 2014년 6월
- 이명원. 2008. 「마그립 지역 영화를 통해 본 아랍인의 의식구조 연구」. 『중동연구』. 27권1호
- 이브 라코스트 외. 2011. 『마그레브, 북아프리카의 민족과 문명』, 한울
- 이순학, 이흥식. 2012.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2012년 9월

<국외문헌>

- Achy, Lahcen. 2010. "Trading High Unemployment for Bad Jobs: Employment Challenges in the Maghreb." Carnegie Papers. No. 3.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AFD. 2010. Capitalisation des Demarch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projet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as de la Tunisie et du Maroc.
- AfDB. 2012. Jobs, Justice and the Arab Spring. Tunisia: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 AfDB. 2013. AfDB in the North Africa 2013.
- AfDB. 2013. Tunisia, Interim Country Strategy Paper 2014-2015.

- AfDB. 2014. Socio-Economic Database 2014.
- AfDB. 2014. African Economic Outlook,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4.
- AfDB. 2014. “Tunisie: Document de Stratégie Pays Intérimaire”. Abidjan: AfDB.
(http://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roject-and-Operations/2014-2015_-_Tunisie_-_Document_de_strat%C3%A9gie_pays_int%C3%A9rimaire.pdf)
- Ali Chelbi, Yves Ficatier. 2010. Capitalisation des démarch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projet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as de la Tunisie et du Maroc, AFD
- Ambassador Terry Miller, Anthony B. Kim, Kim R. Holmes, PhD.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 Angel-Urdinola, Diego F, A. Senglali, and S. Brodmann. 2010. “Non-Public Provision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in Arab-Mediterranean Countries: An Inventory of Youth Program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55673. Washington, DC: World Bank.
- Auer, Peter, Umit Efendioglu and Janine Leschke. 2008.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round the World: Coping with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2nd Edition. Geneva: ILO.
- BAfD. 2011. “La pauvreté et l'inégalité en Tunisie, au Maroc et en Mauritanie.” BAfD Note Economique
-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1. Tunisie, Document de stratégie intérimaire 2012-2013
-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2. Etude comparative sur les politiques d'exportation de l'Egypte, du Maroc, de la Tunisie et de la Corée du Sud.
-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3. “La recherche d'une croissance inclusive en Afrique du Nord : une approche comparative.” Note économique.
-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4a. La recherche d'une croissance inclusive en Afrique du Nord, Le Groupe de la BAD en Afrique du Nord 2014
-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4b. Le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en Afrique du Nord, Le Groupe de la BAD.
- Banque Mondiale. 2006. Mémoire économique pays: Promouvoir la croissance et l'emploi par la diversification productive et la compétitivité, Rapport No. 32948-MOR, Mars, Washington D.C.

- Banque Mondiale. 2011.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dans le Monde: Conflits, Sécurité et Développement, Washington D.C.
- Banque Mondiale. 2013. L'emploi pour une prospérité partagée: le moment pour l'action au Moyen-Orient et en Afrique du Nord, Washington D.C.
- Banque Mondiale. 2013. L'emploi pour une prospérité partagée: le moment pour l'action au Moyen-Orient et en Afrique du Nord, Washington D.C.
- Boughzala, Mongi. 2013. "Youth Employment and Economic Transition in Tunisia."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Working Paper 57.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Breisinger C., O. Ecker, P. Al-Riffai et Y. Bingxin. 2012. Beyond the Arab Awakening: Policies and Investments for Poverty Reduction and Food Security, Institut international de recherche sur les politiques alimentaires (IFPRI), Washington D.C.
- Broecke Stijn. 2012. Tracking Graduate Unemployment through Employment Subsidies: An Assessment of the SIVP Programme in Tunisia. Working Paper Series. No. 158. Tunisia: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 Campante, Filipe R. and Davin Chor. 2012. "Why was the Arab World Posed for Revolution? Schooling, Economic Opportunities, and Arab Spr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6. No. 2. pp. 167-188.
- Coordination Sud. 2012.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Solidarité Urgence Développement.
- Cour des comptes. 2012. La politique française d'aide au développement, Rapport public thématique, juin 2012
-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 2014.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unisia, Country Report 2013. Bonn and Eschborn:GIZ.
- Dutta S. et B. Lanvin. 2013.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3, The Local Dynamics of Innovation, Cornell University, INSEAD, WIPO.
- Economic Research Forum. 2013. "Can Labor Mobility Spark Employment in Tunisia?" Policy Perspective no.7 May 2013.
- EU. 2005. EU-Tunisia ENP Action Plan
- EU. 2005. Tunisia, Strategy Paper 2007-2013 &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7-2010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 FEMI SE. 2013. Mobiliser le capital humain sur l'innovation en Méditerranée, FEMIP.

- Fourati, H. 2008. Consultation de la jeunesse et désir d’émigrer chez les jeunes en Tunisie 1996-2005, Technical Report, San Domenico di Fiesole (F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Gatti, Roberta, Diego F Angel-Urdinola, Joana Silva and Andras Bodor. 2011. The Challenges of Informalit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Overview.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Washington. DC: World Bank.
- Gita Subrahmanyam and Vincent Castel. 2014. Labour market reforms in post-transition North Africa, AfDB Economic Brief.
- IBRD & IFC. 2012. Interim Strategy Note for the Republic of Tunisia for the Period FY 13-14, May 17, 2012. Report no. 67692-TN
- ILO. 2012. “Jobs and Livelihood at the Hear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LO Concept Note. Geneva: ILO.
- Keller, Jennifer and Mustapha K. Nabli. 2002. The Macroeconomic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MENA Over the 1990s: How Growth Has Failed To Keep Pace With A Burgeoning Labor Market,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Washington. DC: World Bank.
- Kim, Joong-Kwan. 2011. 「An Analysis on the Sectoral Business Opportunity of the Tunisian Industries for the Promotion of FDI」. 『중동연구』 30권 1호
- Mahjoub, A. 2010. “Labor Markets Performance and Migration Flows in Tunisia,” in “Labor Markets Performance and Migration. Flows in Arab Mediterranean Countries. Determinants and Effects” Occasional Papers Vol. 60
- Malik, Adeel and Bassem Awadallah. 2013. “The Economics of the Arab Spring.” World Development. Vol. 45. pp
- Marc, Francois. 2013. Rapport General, no. 156 SENAT
- Miller, Ambassador Terry, Anthony B. Kim, Kim R. Holmes, PhD.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index/pdf/2014/book/index_2014.pdf)
-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et Européennes de France. 2011. Stratégie 2011, Document Cadre,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u Développement et des Partenariats.
-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Tunisie. 2014. Agenda de développement de l’après 2015. Note Conceptuelle

-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et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2010.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unisia 2010-2014, Towards an Enovation and Creation based Growth, September 2010
-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of Tunisia. 2012.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ew Tunisia
- Mo Ibrahim Foundation, 2013. 2013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SUMMARY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2. Tunisia Foreign Trade.
- Nations Unies. 2014. Tunisie, Rapport National de Suivi 2013
- PNUD. 2013.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2013 -L'essor du Sud : Le progrès humain dans un monde diversifié, 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éveloppement.
- Premand, Patrick, Stefanie Brodmann, Rita Almeida, Rebekka Grun and Mahdi Barounni. 2012. "Entrepreneurship Trining and Self-Employment among University Graduates: Evidence from a Randomized Trial in Tunisi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285. Washington, DC: World Bank.
- Republic of Tunisia. 2010.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in 2010-2014
- Said, Mona. 2001. "Public Sector Employment & Labor Merkets in Arab Countries: Recent Developments & Policy Issues". D. Salehi-Isfahani, ed. 2001. Labor and Human Capital in the Middle East: Studies of Labor Markets and Household Behavior. Reading, UK: Ithaca Press.
- Subrahmanyam, Gita. 2011. "Tackling Youth Unemployment in the Maghreb." North Africa Policy Series. Tunisia: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 Ufiem Maurice Ogbonnaya. 2013. "Arab Spring in Tunisia, Egypt and Libya: A Comparative Analysis of Causes and Determinants."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2, No. 3, Fall 2013.
- UNDESA. 2011. Country Study: The Republic of Tunisia, UN.
- World Bank. 2008. The Road Not Traveled: Education Reform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13. Building Effective Employment Programs for Unemployed Youth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13. Jobs for Shared Prosperity: Time for Ac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13. The World Bank Group and Tunisia, A Country Study, Bank Information Center March 2013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Yousef, Tarik M. 2004. "Development, Growth and Policy Reform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ince 1950."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8. No. 3. pp. 91-116.

<인터넷 홈페이지>

AFD, Tunisie. <http://www.afd.fr/home/pays/mediterranee-et-moyen-orient/geo/tunisie>

AFD, Tunisie. L'AFD et La Tunisie.

http://www.ffem.fr/webdav/site/ffem/shared/ELEMENTS_COMMUNS/U_AD_MIFFEM/Publications_AFD/AFD_tunisie_fr.pdf

AfDB, Tunisia Economic Outlook

<http://www.afdb.org/en/countries/north-africa/tunisia/tunisia-economic-outlook/>

Chef du Gouvernement. <http://www.pm.gov.tn>

EU, Europeaid, Tunisia. https://ec.europa.eu/europeaid/countries/tunisia_en

ILO, Key Indicators of Labor Market

http://www.ilo.org/empelm/what/WCMS_114240/lang--en/index.htm

JICA, Tunisia. <http://www.jica.go.jp/tunisia/english/>

Knoema, Tunisia. <http://knoema.com/atlas/tunisia>

Ministère de l'Agriculture. <http://www.onagri.nat.tn>

Ministère de l'éducation. <http://www.education.gov.tn/index.php?id=380&lan=2>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http://www.emploi.gov.tn>

Ministère de l'intérieur. <http://www.interieur.gov.tn/>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http://www.portail.finances.gov.tn>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http://www.mes.tn>

Ministère de l'équipemen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http://www.equipement.tn>

Ministère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s mines. <http://www.industrie.gov.tn>

Ministère de la Culture. <http://www.culture.tn>

Ministère de la défense nationale. <http://www.defense.tn>

Ministère de la jeunesse, des sports, de la femme et de la famille. <http://www.sport.tn>

Ministère de la justice,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justice transitionnelle.
<http://www.e-justice.tn>

Ministère de la santé publique. <http://www.santetunisie.rns.tn>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http://www.diplomatie.gov.tn>

Ministère des affaires religieuses. <http://www.affaires-religieuses.tn>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http://www.social.gov.tn>

Ministère du tourisme. <http://www.tourisme.gov.tn>

Ministère du Transport. <http://www.transport.tn>

Ministre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http://www.commerce.gov.tn>

OECD, Tunisia: Aid at a Glance.

<http://www.oecd.org/countries/tunisia/TUN.JPG>

Proparco, Appui au secteur privé en Tunisie.

http://www.proparco.fr/Accueil_PROPARCO/Publications-Proparco/Source-co-verflow-home/L-AFD-et-le-secteur-prive-en-Tunisie

World Bank Group, Enterprise surveys. www.enterprisesurveys.org

World Bank, Tunisia. <http://www.worldbank.org/en/country/tunisia>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튀니지

부 록



[부록 1] 정량분석 방법의 분야별 지표 및 지표 출처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교육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Internet access in schools	
	Availability of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Extent of staff training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Mean years of schooling	Human Development Index
	Expected years of schooling	
보건 의료	Tuberculosis cases/100,000pop.*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	
	HIV prevalence, % adult pop.*	
	Business impact of HIV/AIDS	
	Infant mortality, deaths/1,000 live births*	
	Life expectancy/years*	
	Density of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HO
	Density of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per 1,000 population	
	Health expenditure, public (of GDP)	World Bank
	Mortality rate, under-5 (per 1,000 live births)	
	Maternal mortality ratio (national estimate, per 100,000 live births)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of population with access)	
	Hospitals per 10,000 population	
	Improved water source, rural (% of rural population with access)	
	Improved water source, urban (% of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농림수산	GCI Agricultural policy cost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3)
	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 / Total L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Machinery & Equipment area of Agricultural area	
	Agriculture, value added (of GDP)	World Bank
	Fertilizer consumption (per hectare of arable land)	
	Cereal yield (kg per hectare)	
공공행정	Property right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iversion of public funds	
	Public trust in politicians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Judicial independence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gregs.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Business costs of terrorism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Organized crim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Ethical behavior of firms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0-10 (best)*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산업 에너지	산업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UNIDO(2010)
		Share of Medium and High-Tech Activities in Total MVA	
		Industry, value added	World Bank
	에너지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Electricity productio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1)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2010)
		Alternative and nuclear energy	
인프라	교통 인프라	Quality of road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Quality of rail road infrastructure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Airtransport,registeredcarrierdeparturesworldwide	World Bank
	통신 인프라	Fixed telephone lin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lecommunication /ICT Indicators(2013)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Internet users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부록 2] 튀니지 정성분석 상세결과

지표	분석 내용	결과
[공공행정]		4.6
정책타당성 (25%)	- 재스민 혁명 이후 국민의 민주행정 요구 증대 - 공공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성 대두 - 전자정부 구축에 튀니지 정부 의지표명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전자조달시스템과 같은 행정역량 강화 와 행정의 정보화 등의 사업 지원희망 - 튀니지 총리와 개발투자국제협력부는 신문고(e-people) 등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KOICA 이사장에게 직접 요청	4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전자조달시스템 시범구축사업(2011-2013/570만불) -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신문고) 구축사 업(2015-2017/500만불)	5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공공행정의 투명화는 민주화의 첩경 - 튀니지가 북아프리카 지역 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공공행정 투명화가 적극 필 요할 전망	5
[산업에너지]		4.2
정책타당성 (25%)	- 재스민 혁명 이후 산업에너지 정책 재정비 필요 - 산업에너지 개발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실업률 감소 에 높은 정책적 의지 - 국제사회도 산업에너지 개발 적극권고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튀니지 갑사 테크노파크 관련하여 적극적 협조요청과 후속 Technical meeting 및 세부 자료를 제공하여 KOICA와의 협력의지 표명 - 튀니지 총리와 개발투자국제협력부는 수자원 및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신규협력사업 추진 및 Gafsa 테크노 파크의 구축지원과 해당지역의 종합발전을 KOICA 이 사장에게 직접 요청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DEEP] 튀니지 갑사 테크노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사 업(2012-2013년/53만불)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이후 산업에너지 관련 해외투자 감소 - EU 등 국제사회에서 재스민 혁명이후 튀니지 산업에 너지 유상원조 확대	5

지표	분석 내용	결과
[교육]		4.15
정책타당성 (25%)	- 재스민 혁명 이후 사회안정화 필요 - 실업률 감소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 - 국제사회도 빈곤률 감소정책 적극권고 -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높은 정책의지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적극적인 협조 통해 높은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를 나타냄 - 고등교육과학기술부는 Gafsa 지역 공과대학 Master Planning, T-KAIST 설립을 위한 기술협력을 KOICA 이사장에게 직접요청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Cenafiff 직업훈련원 Amira실 지원사업(1994-1995 /40만불) -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1997-2000/83만불)	4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 이후 높은 실업률 지속은 사회불안의 큰 요인 - 튀니지가 북아프리카에서 최초 민주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업문제 완화를 통한 사회안정 달성 지원이 필요	4
[농림수산]		3.7
정책타당성 (25%)	- 농림수산이 GDP에서 그리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 농업발전 및 농촌지역 발전 정책의지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농림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 - 후속 Technical meeting과 세부 자료를 제공하여 KOICA와의 협력의지 표명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패류양식 기술지원사업(2008-2010) -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시범사업(2014-2018)	5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 이후 농림수산 분야에 큰 영향 없음 -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및 패류양식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외에 KOICA와 큰 연관 없음	1

지표	분석 내용	결과
[인프라]		1.9
정책타당성 (25%)	- 재스민 혁명 이후 인프라 투자 감소 -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필요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인프라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최근 10년 간 추진사업 내 동 분야 관련 사업 없음 - 향후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 이후 인프라 투자 감소 - 우리나라 ODA 지원과는 큰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	1
[보건의료]		1.55
정책타당성 (25%)	- 재스민 혁명 이후 인프라 투자 감소 -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선 필요	2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보건부와 협력관련 회의 없었으나 - 세부 자료를 제공	3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최근 10년 간 추진사업 내 동 분야 관련 사업 없음 - 향후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큰 영향 없음	1

Etude du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en Tunisie et Etablissement de Plan de Coopération

Consultant Local:

Professeur Maher Gassab
(Université de Manouba. Tunisie)

Les Difficultés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Après la révolution de 2011, la Tunisie s'est engagée dans un processus de réformes économiques visant le rétablissement des équilibres macroéconomiques et la réalisation d'une croissance intelligente, durable et inclusive favorisant l'autonomie des citoyens grâce à un taux d'emploi élevé et une répartition équitable de la richesse. Ces défis auxquels fait face l'économie tunisienne sont certes considérables, et laissent penser qu'ils sont insurmontables en raison de la conjonction de nombreux facteurs parmi lesquels le processus de transition politique, la persistance de l'instabilité sécuritaire et sociale, le manque de prévisibilité des investisseurs, l'érosion de la marge budgétaire et la fragilité du système financ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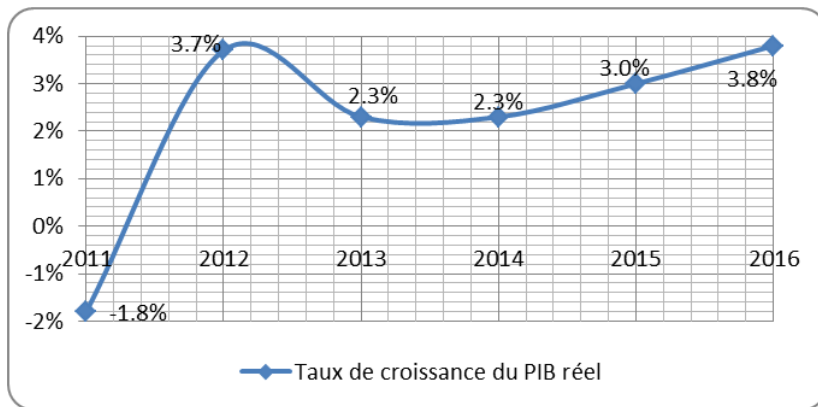
Pour relever ces défis au cours de ces quatre années de transition, les autorités tunisiennes ont adopté un programme cohérent et complet de stabilisation macroéconomique à court terme dans un environnement difficile marqué par une instabilité politique et la succession de cinq gouvernements provisoires. Les principaux axes de ce programme national sont : (i) Corriger les déséquilibres budgétaires et extérieurs par le biais des mesures budgétaires, monétaires et de change appropriées ; (ii) Promouvoir une croissance économique inclusive par la lutte contre les vulnérabilités du système bancaire et l'amélioration du climat d'investissement ; (iii) assurer la mise en place des filets de protection sociale en faveur des groupes de population les plus vulnérables. D'autres mesures connexes sont venues s'ajouter à ce programme de stabilisation, en l'occurrence la réduction graduelle des subventions à l'énergie dans le but de générer des ressources budgétaires pour financer d'autres dépenses d'investissement ayant un impact direct sur le bien être des groupes vulnérables et sur le comportement du secteur privé.

En fait, après quatre années de transition démocratique qui avaient abouti à la mise en place d'une nouvelle Constitution (Janvier 2014) et d'un gouvernement élu par le peuple (Octobre 2014), les fondamentaux de l'économie traduisent encore la persistance des déséquilibres économiques, financiers et sociaux caractérisant le contexte de développement du pays. Cependant, « la confiance et la croissance devraient se rétablir en Tunisie grâce à l'achèvement de la transition politique, mais l'aggravation des déséquilibres extérieurs, la persistance des facteurs de vulnérabilité dans le secteur bancaire et les tensions sécuritaires pèseront sur l'activité économique » (IMF, Avril 2015)

La croissance économique

Au cours de la période 2011-2014, la croissance économique est demeurée anémique et en deçà des attentes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e chômage. Des études ont montré qu'une croissance de 1% du PIB durant deux années consécutives ne parviendrait à augmenter l'emploi que de 0,3% par an. Comme le montre le graphique ci-dessous, une croissance moyenne aux alentours de 2,5% est une première dans l'histoire économique de la Tunisie qui n'a jamais connu une période aussi longue de croissance faible.

Figure 1. La croissance économique : réalisations et proj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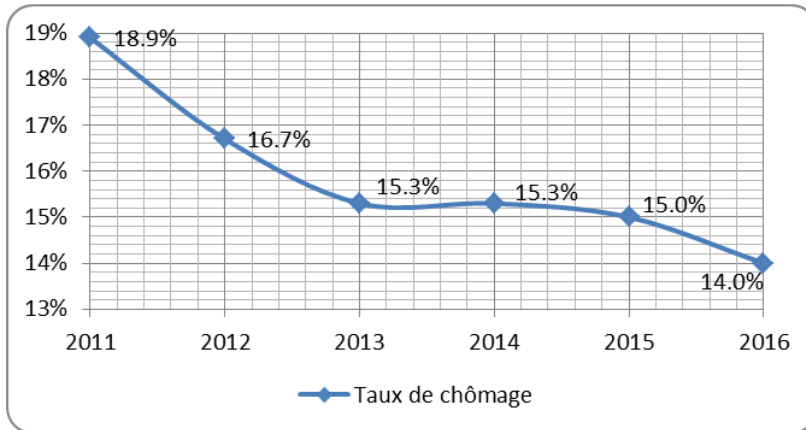


Le ralentissement de l'activité économique en 2013 et 2014, comme le montre le figure est du notamment à une mauvaise performance du secteur agricole, la régression des industries non manufacturières et la décélération perçue au niveau des services marchands, particulièrement le tourisme et le transport. Ce ralentissement s'accompagne naturellement par une aggravation du chômage et limites les recettes de l'Etat alors que les revendications sociales et les dépenses publiques continuent leur développement. Les prévisions faites par le FMI, publiées dans un rapport intitulé Perspectives économiques mondiales, sont relativement prometteuses indiquant des taux de croissance de 3% en 2015 et 3.8% en 2016. Dès lors, cette croissance reste tributaire : (i) de la relance attendue de l'activité touristique dont l'image est troublée davantage par les effets collatéraux de l'attentat terroriste meurtrier perpétré le 18 mars 2015 au musée du Bardo ; (ii) de la reprise souhaitée du niveau de la production des phosphates du bassin minier de Gafsa et des exportations du Groupe chimique tunisien de Gabès ; (iii) de la réussite des consultations des partis politiques

et des organisations nationales et professionnelles et de la société civile qui ont généré en 2014 trois accords cadres : le premier stipule le démarrage des négociations sociales sur les majorations salariales dans le secteur privé, le deuxième porte sur la production et la productivité tandis que le troisième accord concerne le pouvoir d'achat et les prix.

Les réalisations et les projections de création d'emplois sur cette période de post révolution montrent que le taux de chômage diminue progressivement passant de 18.9 % en 2011 à 14% prévu pour l'année 2016 (figure 2, mais il demeure élevé en raison : (i) de la lenteur de l'évolution des structures productives et à un schéma de développement traditionnel axé sur des secteurs à faible valeur ajoutée et qui connaissent un manque de qualifications, (ii) la dominance dans le tissu économiqu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ont une grande partie a un caractère familial et reste, par conséquent, relativement fermée à l'innovation ; (iii) d'une perspective d'une croissance économique anémique, et (iv) d'un déséquilibre quantitatif et qualitatif structurel entre l'offre et la demande d'emploi et l'absence de dispositif efficace de valorisation des compétences, qui vise l'adéquation entre le produit du système éducatif (enseignement supérieur et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les besoins en emploi du système productif. Ainsi, le nombre des diplômé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meure assez élevé et se situe à environ 242 mille chômeurs sur 610 mille chômeurs de l'économie, soit un taux de chômage correspondant à 31.9 % en 2013 contre 23.3 % en 2010. Cette situation alarmante traduit une sous-utilisations accrue des ressources humaines du pays eu égard aux dépenses publiques consacrées à l'éducation de cette catégorie de la population active.

Figure 2. Le chômage: réalisations et proj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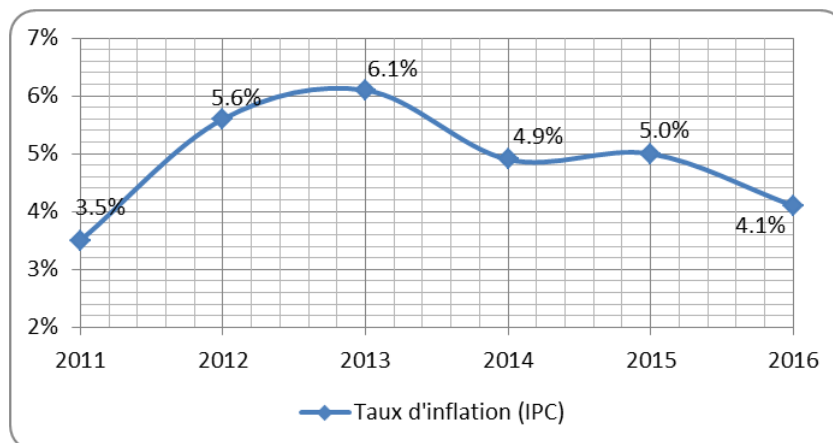
Pour relever le défi du chômage et donner l'occasion au citoyen d'améliorer ses conditions de vie et de se faire valoir, plusieurs mesures ont été prises notamment :

- En 2011, la création d'environ 35 mille postes d'emploi dans le secteur public et 20 mille dans le secteur privé, ainsi que le développement des opportunités d'emploi à l'étranger. En outre, le Programme « AMAL » mis en place au profit des diplômés pour la recherche active de l'emploi a profité à 144 mille bénéficiaires avec un coût total de 340 MDT. (BCT, 2011)
- En 2012, un programme « d'encouragement au travail » a été créé remplaçant le précédent programme « AMAL » et ce, dans le but d'inciter les demandeurs d'emploi à s'engager activement dans la recherche d'un emploi en tant que salariés ou créateurs de projet. En outre, une loi de recrutement de 25 mille demandeurs d'emploi dans la fonction publique a été promulguée en juin 2012. Aussi, un décret fixant les nouveaux programmes du fonds national de l'emploi a-t-il été décidé en octobre de la même année. En outre, suite à un Congrès national pour l'emploi (juin 2012), une **Stratégie nationale de l'emploi** a été élaborée suivant une démarche à la fois multidisciplinaire et participative et ayant pour objectif l'instauration d'un nouveau modèle de développement axé principalement sur l'emploi et le travail décent et s'étalant sur une période de quatre années (2014-2017). (BCT, 2012)
- En 2013, des modifications ont été apportées au décret relatif aux programmes du Fonds national de l'emploi ayant trait, en particulier, à la simplification des

procédures et des conditions d'adhésion au programme d'encouragement au travail ainsi qu'à la régularisation de la situation des bénéficiaires du contrat emploi-solidarité dans le cadre des travaux d'utilité publique sur la base de critères objectifs fondés sur les indicateurs de développement régional. En particulier, l'indemnité mensuelle qui leur est accordée a augmenté de 120 à 200 dinars. En outre, un programme national pour le financement des microentreprises a été lancé à travers la signature de quatre accords de coopération entre le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la Banque Tunisienne de Solidarité (BTS) dont l'objectif est de promouvoir le travail indépendant par l'intensification des mesures d'accompagnement des promoteurs de petites entreprises. (BC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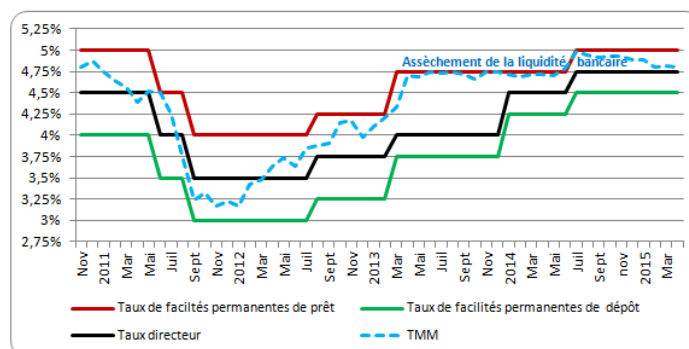
Quant à l'inflation, qui avait culminé à 6.1% en 2013, les projections faites par le FMI en Avril 2015, font apparaître un reversement de la tendance comme le montre le graphique 3. Les pressions inflationnistes grandissantes jusqu'à 2013 pourraient être attribuées à : (i) l'assouplissement monétaire poursuivi en 2011 et au début de 2012, dont l'objectif consistait à soutenir l'activité économique et couvrir les besoins en liquidité du système bancaire, (ii) la dépréciation du dinar tunisien et l'augmentation des prix des produits de base importés, notamment les denrées alimentaires, (iii) la non-maîtrise et les distorsions des circuits de distribution ; (iv) les augmentations salariales revendiquées par les employés

Figure 3.L'inflation: réalisations et projections



Le reversement de la tendance résulte d'un durcissement de la politique monétaire par le relèvement continu du taux directeur qui a été révisé à la hausse à quatre reprises par des décisions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Banque centrale du taux directeur à quatre reprises. C'est ainsi que ce taux évoluant dans un corridor déterminé par un taux plafond et un taux plancher a été porté de 3.5% en Aout 2012 à 4.75% en Juin 2014.

Figure 4 Evolution des taux d'intérêt sur le marché monét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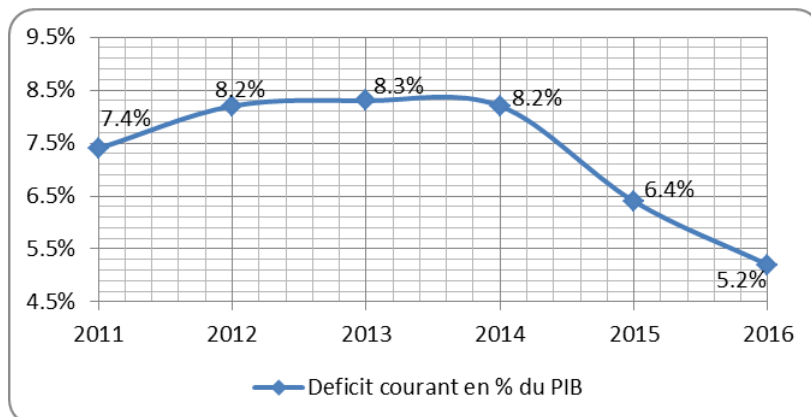


Dans le but de contenir les tensions inflationnistes, la conduite de la politique monétaire consiste à assurer la stabilité des prix, tout en favorisant les conditions d'une reprise de la croissance de manière saine et durable.

Pour ce faire, la Banque centrale a envisagé une amélioration de sa stratégie de communication, en explicitant les motifs qui sous-tendent les décisions de politique monétaire, qu'il s'agisse d'actions sur le taux directeur, le corridor, la réserve obligatoire ou les collatéraux, dans le but d'ancrer les anticipations des marchés. (BCT, 2013)

A la lumière des perspectives relativement optimistes considérées par le FMI, le même reversement de la tendance d'aggravation des déséquilibres extérieurs serait observé en 2015 et 2016, en témoigne la basse tendancielle du déficit courant décrite par le graphique 5.

Figure 5. Déséquilibres extérie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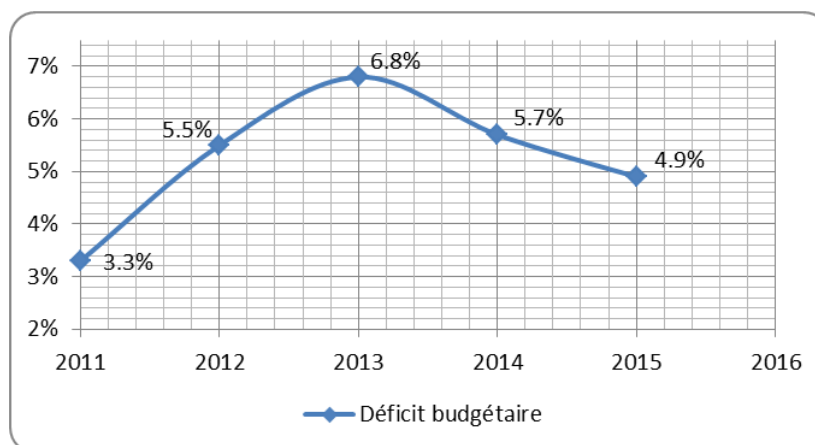
La période de transition politique 2011-2014 s'est accompagnée d'une aggravation des déséquilibres extérieurs avec un déficit courant qui atteignait des niveaux record jamais réalisés dans l'histoire économique du pays. Malgré la légère évolution favorable des recettes touristiques et du revenu extérieur de travail durant cette période, la persistance des déséquilibres extérieurs est attribuée principalement à un déficit commercial qui se creuse en raison : (i) de l'accélération des importations des produits énergétiques, des biens de consommation et des biens d'équipement, (ii) la décélération des exportations notamment pour les secteurs des industries mécaniques et électriques et des industries textiles, habillement, cuirs et chaussures, en liaison avec le repli de la demande extérieure provenant des pays partenaires européens ; (iii) le recul des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en raison d'un manque de visibilité. Par groupes de produits, il convient de constater essentiellement la détérioration de la balance énergétique et celle des produits alimentaires dont le déficit correspondant représentait à peu près le un tiers du déficit commercial total.

En conséquence, malgré la mobilisation accrue des crédits extérieurs à moyen et long terme et l'encouragement accordés aux IDE, la contrainte du déficit courant pèse lourdement sur l'équilibre général de la balance des paiements dont les soldes ont été négatifs à deux reprises au cours de cette période, soit -2.347 MDT en 2011 et -1.095 MDT en 2013. Dans le même cadre, les entrées nettes de capitaux (l'équivalent de 112 jours d'importation en 2014) restent en deçà des réalisations de 2010 (l'équivalent 147 jours d'importation). Pour faire face à ces déséquilibres, la Banque centrale a intensifié ses interventions sur le marché des changes pour limiter

la volatilité du taux de change et calmer les anticipations des intervenants. De même, en 2014, la Tunisie et les bailleurs de fonds internationaux (FMI et BM) se sont accordés sur le modèle de développement qui doit être mis en place pour assurer la continuité du soutien financier.

Quant aux déséquilibres budgétaires, l'accentuation sur la période 2011- 2014 est due principalement aux répercussions à la mise en œuvre du Programme économique et social pour faire face à des pressions politiques et sociales ayant un caractère révolutionnaire. Ce programme s'est traduit par une politique budgétaire expansive dont les effets sur l'économie se font avec retard, c'est pourquoi le déficit budgétaire a culminé en 2013 à 6.8 % comme le montre le graphique 6. La gravité de la situation budgétaire est décrite par une solde primaire négatif depuis 2011 qui se creuse et se maintient pour atteindre le montant de -3163MDT selon les chiffres publiés par la Banque centrale, ce qui implique un montage financier partiellement à la Ponzi

Figure 4. Evolution du déficit budgét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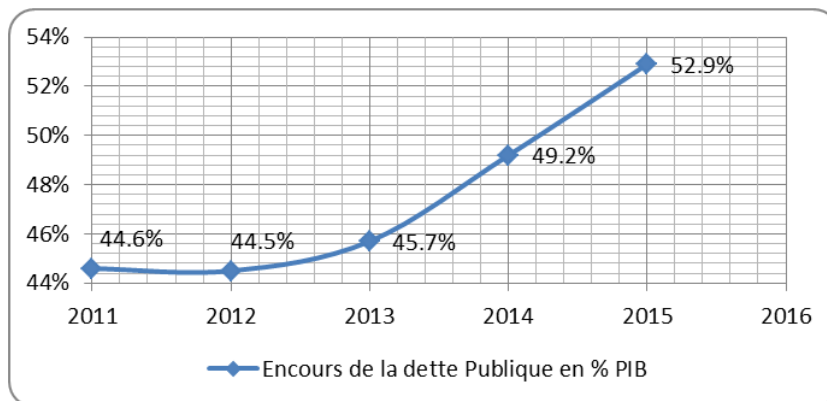


Le reversement de tendance résulte de la mise en place d'un gouvernement élu par le peuple et le vouloir faire des autorités en matière d'amélioration du système de recouvrement et la rationalisation des dépenses publiques. Particulièrement, il s'agit de : (i) la rationaliser les dépenses de fonctionnement et la maîtrise de la consommation d'énergie, (ii) repenser la répartition de des transferts sociaux dont les études ont montré que les personnes vulnérables visées par ces dépenses ne perçoivent que 12% de l'enveloppe totale des subventions alimentaires alors que 20% de la catégorie

la plus aisée bénéficient de 70% du montant global de ces subventions (iii) envisager l'abandon des barèmes et taux non rentables (notamment le régime forfaitaire), la réduction de 30 % à 25 % du taux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l'imposition des dividendes au taux de 5 %, la création d'un taux réduit à 10 %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totalement exportatrices, l'objectif étant d'aboutir à terme à un taux unifié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de 20 % .

Corrélativement, la persistance des déficits budgétaires sur la période post révolution s'est traduite par tendance haussière de l'endettement public passant, comme le montre la figure 6, de 40% en 2010 à 52.9 % prévu pour cette année, et ce, malgré l'importance des ressources de trésorerie et revenus de privatisations et dons qui représentait 52% du financement total du déficit budgétaire en 2013.

Figure 5: Endettement public



Soucieuses de la soutenabilité de la dette publique même dans un contexte sociopolitique difficile, les autorités ont engagé un travail d'audit sur l'endettement public et une campagne diplomatique pour obtenir l'annulation de quelques dettes et leur conversion en projets d'investissement et de développement.

Section 3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1.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NDS)

La transition démocratique amorcée depuis janvier 2011, n'a pas facilité la définition d'une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Sept gouvernements se sont succédé en quatre ans avec comme priorité, l'achèvement du processus démocratique et la gestion des tensions sociales. Ceci étant dit, nous pouvons détecter un certain consensus sur des priorités nationales ou plutôt des grandes orientations pour les prochaines années et décennies, au travers les programmes des partis politiques ou bien les différents rapports préparés par certains gouvernements. Ces grandes orientations s'articulent autour de sept (07) points :

- L'instauration des fondements de la bonne gouvernance et l'amélioration du climat des affaires.
- La conséc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et le renforcement du développement régional.
- La modernisation de la structure économique.
- La consolidation de la productivité,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e l'innovation et la réforme de l'éducation.
- Le renforcement de l'intégration de la Tunisie dans l'économie mondiale.
- Le développement du système de financement.
- La consolidation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l'orientation progressive vers l'économie verte.

1- L'instauration des fondements de la bonne gouvernance et l'amélioration du climat des affaires

L'instauration des fondements de la bonne gouvernance vise l'approfondissement des principes de la démocratie, en facilitant aux citoyens l'accès à l'information et en renforçant par là-même leur participation dans le processus de prise de décision. L'objectif est de donner plus d'efficacité aux interventions de publics, en se rapprochant mieux des préoccupations des citoyens et de consolider la concurrence loyale pour soutenir l'activité du secteur privé et stimuler ainsi l'initiative.

Une politique de bonne gouvernance repose sur plusieurs piliers :

- ***La modernisation de la fonction publique*** : Cette modernisation vise à améliorer l'efficacité et l'efficience de la fonction publique, en offrant des services de haute qualité, rapides et peu coûteux, de manière à contribuer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du pays. Il s'ensuit une simplification des procédures administratives nécessitant en particulier le développement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Il va sans dire que la modernisation des services publics ne peut réussir sans le développement de l'éthique et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évaluation de tels services. Cette modernisation nécessite l'instauration des systèmes d'information intégrés dans les divers départements administratifs, facilitant ainsi, l'échange d'information et consolidant les capacités d'analyse. En outre, il faudrait améliorer la gestion des ressources humaines, avec un système fondé sur le mérite et la compétence.

- ***La transparence au niveau de la gestion des fonds publics*** : Il s'agit de généraliser le système de gestion budgétaire par objectif et de renforcer le système de contrôle des dépenses publiques sur la base de l'évaluation de l'efficacité et de l'efficience.

- ***La révision du cadre réglementaire régissant les marchés publics*** : Cette révision vise à améliorer l'efficacité et la transparence de ses procédures sans compromettre la qualité.

- ***La promotion de la concurrence sur le marché intérieur*** : Il s'agit de simplifier et les procédures administratives et de réduire les obstacles réglementaires qui violent les règles de la concurrence loyale dans tous les secteurs de l'économie. Cela implique également la facilitation de l'accès au financement, l'amélioration de la logistique et du transport et la promotion de la formation

- ***La refonte du code d'incitation à l'investissement*** : Cette refonte vise à simplifier ce code pour le rendre plus transparent sur la base de la liberté de l'activité et de l'impact de l'investissement sur le développement à l'échelle nationale et régionale.

- *Le renforcement des mécanismes et des institutions de dialogue social* : Il s'agit de renforcer les fondements de la pratique syndicale pour améliorer le climat social et promouvoir le dialogue et la concertation entre les partenaires sociaux. Cela consiste également en le développement du système contractuel ainsi que l'harmonisation de la législation nationale avec les normes internationales.

2- La conséc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et le renforcement du développement régional

Depuis la promulgation de la nouvelle constitution en janvier 2014, la décentralisation est devenue un choix constitutionnel. Les prerogatives des autorités régionales et locales seront ainsi renforcées. De ce fait, les conseils régionaux et locaux pourront jouer un rôle très important dans le processus du développement en participant activement dans l'élaboration des politiques nationales. Cela nécessitera le renforcement de la notion de démocratie locale par la reconstruction de la légitimité des établissements publics à partir de son environnement local. Il faudra aussi définir les contours de cette décentralisation institutionnelle en précisant la redistribution des compétences et des ressources entre l'Etat central et les régions. Au niveau budgétaire, il y aura probablement le renforcement des prerogatives des régions.

Cette décentralisation est une condition sine qua non pour mener efficacement une politique de développement régional se fondant sur la réalisation d'un développement équitable dans les différentes régions, le développement de leurs capacités compétitives, la réduction de la pauvreté et le renforcement de l'emploi. Il s'ensuit que les investissements publics doivent être distribués sur la base de critères objectifs tenant compte des taux de pauvreté et de chômage, des services collectifs disponibles et de l'infrastructure. Elle se fondera aussi sur les plans de développement régionaux adoptés par les conseils régionaux.

La politique de développement régional est face à deux défis : le renforcement des infrastructures dans les régions défavorisées et l'aménagement des territoires.

Concernant le premier défi, l'effort se concentra s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des habitants notamment dans les zones défavorisées, en généralisant les réseaux d'électrification, de l'eau potable et de l'assainissement et en offrant les services collectifs nécessaires pour assurer une vie décente pour tous les citoyens. Il s'agit aussi de développer des réseaux des routes et des autoroutes et du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à haut débit et l'édification ou l'amélioration des zones industrielles, des campus universitaires, des technopoles et des hôpitaux.

Toutefois, tout effort d'investissement restera inefficace sans définir une politique claire d'aménagement des territoires. Cette politique jouera un rôle important dans la mise en place d'une répartition harmonieuse des activités et de la population. Il faudra aussi lutter contre l'urbanisation anarchique des villes et veiller à assurer un équilibre entre les zones urbaines et les zones rurales d'une part, et entre les régions côtières et les régions de l'intérieur, d'autre part.

3- La modernisation de la structure économique

La modernisation de l'infrastructure permet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la création de postes d'emploi, l'augmentation du revenu et par suite l'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a vie et la réalisation d'un développement durable et global. Dans ce cadre, la modernisation du secteur du transport et la consolidation des zones industrielles et touristiques apparaissent comme des actions prioritaires. Dans ce sens, certaines mesures sont nécessaires :

- Maintenir l'infrastructure du transport ferroviaire afin de favoriser le transport collectif et consacrer le transport ferroviaire comme choix stratégique pour résoudre l'encombrement et assurer la fluidité de la circulation.
- La consolidation du réseau des routes nationales, régionales et locales en aménageant et renforçant des parties de ces routes en vue de garantir une circulation plus fluide entre les centres de production et les centres de consommation.
- Mettre en place une infrastructure moderne se basant sur la liaison entre les zones logistiques et les centres de production et de distribution, avec la construction d'une

nouvelle génération de ports (le port en eau profonde d'Enfidha) et la modernisation des ports maritimes selon leurs spécificités techniques et les besoins de la région.

- Initier les négociations avec l'Union Européenne en vue de conclure un accord visant la création d'un espace aérien commun.

- Développer le cadre institutionnel et législatif de coopération entre les secteurs public et privé et fournir les mécanismes de financement nécessaires pour encourager le secteur privé à financer les projets d'infrastructure.

- La consolidation de l'intégration de la Tunisie dans l'espace maghrébin à travers la poursuite de l'exécution des autoroutes maghrébines et la création de chemins de fer reliant la Tunisie, l'Algérie et la Lybie.

- Veiller à instaurer les conditions d'un transport durable et vert.

- La création d'une nouvelle génération de zones industrielles tenant compte des spécificités régionales et ce, dans le cadre d'une vision globale afin de créer une chaîne de valeur des produits locaux.

- Poursuivre le diagnostic et la détermination des fonciers industriels.

- L'aménagement des circuits touristiques pour lier les différents sites archéologiques et les paysages naturels, et l'aménagement des espaces pour le camping surtout dans les régions sahariennes et ce, dans le cadre de la diversification du produit touristique ainsi que l'aménagement des zones touristiques spécialisées pour appuyer le tourisme écologique et saharien.

4- La consolidation de la productivité,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national de l'innovation et la réforme de l'éducation

Il existe un certain consensus sur le modèle de développement qui devrait être ciblé. C'est un modèle qui se fonde sur le développement des politiques sectorielles, misant sur les secteurs à forte valeur ajoutée basés sur l'innovation permettant ainsi

L'intensification des créations d'emploi et la promotion des exportations.

Il faudrait ainsi intensifier la création davantage de pôles technologiques pour attirer les investissements dans les secteurs à fort contenu technologique tels que les industries alimentaires, la biotechnologie,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s communications, les industries électroniques, du textile et de l'environnement, la santé et l'énergie renouvelable.

Il faudrait aussi poursuivre les efforts au niveau des programmes de mise à niveau et de modernisation industrielle en encourageant l'investissement dans les secteurs innovants,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la consolidation des systèmes de qualité et la modernisation de l'infrastructure afin de généraliser les pôles de développement et les centres industriels et technologiques dans toutes les régions.

Il est nécessaire enfin de réhabiliter le secteur des services par la libéralisation des activités de ce secteur par le soutien des services prometteurs dans les domaines des TIC et de l'outsourcing.

Parallèlement, les efforts doivent se poursuivre pour la modernisation des secteurs traditionnels en exploitant leurs potentialités et leurs avantages comparatifs

De même, les réformes doivent être orientés vers développement d'un système national de l'innovation à travers l'intégration du facteur innovation dans le processus de production, ce qui nécessite une utilisation intensive de la technologie et l'investissement dans le capital humain ainsi que le développement de la recherche et développement par la création de pôles de compétitivité dans les secteurs prometteurs ainsi que le développement de partenariats entre l'université, l'entreprise et les centres de recherche .

Tout cela est conditionné par la nécessité d'intensifier les efforts pour développer davantage le système de l'éducation,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n consacrant les fonctions de certification et d'évaluation dans le système éducatif et la promotion des spécialités prometteuses, en particulier les spécialités techniques et scientifiques qui répondent aux besoins des entreprise et des grands projets ainsi que l'amélioration de l'efficacité du systèm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l'intensification de la formation pratique.

5- Le renforcement de l'intégration de la Tunisie dans l'économie mondiale

L'intégration dans l'économie mondiale est un choix stratégique pour la Tunisie pour booster la croissance, créer de nouveaux postes d'emploi, assurer le transfert de la technologie, bénéficier de l'expertise et drainer le financement pour le développement.

Ainsi, les domaines de coopération bilatérale et multilatérale seront renforcés, avec la conclusion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avec de nouveaux pays de l'Afrique, de l'Asie et de l'Amérique.

Les réformes seront aussi poursuivies pour renforcer la libéralisation du compte du capital afin de garantir les ressources de financement extérieur nécessaires pour l'économie nationale, favoriser l'attraction des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Pour promouvoir davantage l'exportation, les efforts seront intensifiés pour réduire le coût des transactions et faciliter le commerce extérieur à travers la réduction davantage des tarifs douaniers, l'amélioration du cadre réglementaire, le renforcement de l'intégration dans les réseaux de distribution mondiaux et l'encouragement de l'accès aux nouveaux marchés. Ces mesures seront appuyées par le développement de l'infrastructure portuaire, notamment la construction d'un port en eau profonde, ainsi que la création d'un réseau national intégré pour les plateformes logistiques et la mise en place d'un programme de formation pour les agents intervenant au niveau des services logistiques.

Parallèlement, les négociations avec l'Union Européenne concernant le statut avancé seront poursuivies. Ces discussions, qui constituent une opportunité pour dynamiser la coopération bilatérale, permettront le développement du partenariat sur la base d'intérêts mutuels et d'avenir commun. Cela favorisera aussi la croissance des échanges commerciaux et financiers, la facilitation du déplacement des personnes et le rapprochement de la législation dans certains domaines.

6- Le développement du système de financement

Il s'agit d'améliorer l'efficacité des politiques financières à travers la mise en oeuvre d'une politique monétaire de ciblage de l'inflation, la consécration davantage de flexibilité à la politique de change, la généralisation de la gestion budgétaire par

objectif, la promotion du partenariat public privé et des conditions appropriées pour la mobilisation adéquate des ressources financières externes.

La réforme du système de financement consiste également en la révision des systèmes fiscal et douanier en vue d'instaurer l'équité fiscale, d'alléger les charges aux entreprises, d'inciter davantage l'investissement, de promouvoir l'initiative économique et d'améliorer le climat des affaires.

L'amélioration des performances du secteur financier suppose en outre une meilleure efficacité de l'intermédiation bancaire, une dynamisation du marché financier, un renforcement du financement participatif et une amélioration de services de l'assurance.

Par ailleurs, les efforts doivent être orientés vers l'assainissement des portefeuilles des banques, la restructuration du secteur bancaire en plus de la consolidation des capacités financières et techniques des banques de la place, la modernisation des modes de gestion et de gouvernance, l'amélioration de qualité et la diversification des prestations bancaires à l'instar de la finance islamique et l'attraction des banques internationales.

La prochaine période sera également marquée par la diversification des modes de financement en relation avec la dynamisation de l'activité du marché financier et l'enrichissement des valeurs mobilières à travers la diversification des émissions, l'introduction en Bourse des nouvelles entreprises, la caisse des dépôts et de consignation se chargera principalement du financement des projets d'infrastructure dans les régions de l'intérieur, des investissements nouveaux dans les domaines technologiques et innovants

En ce qui concerne l'accès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les réformes préconisées doivent viser le développement des sociétés et fonds d'investissement à capital développement, la diversification de ses interventions pour assurer le financement les différentes phases d'investissement et la création des activités prometteuses et de restructuration.

Parallèlement, le financement des petits projets sera davantage soutenu par le renforcement des interventions de la Banque Tunisienne de Solidarité (BTS) et la restructuration de l'activité de la micro-finance en instaurant le nouveau cadre juridique et institutionnel. L'action portera ainsi sur la création de nouvelles

institutions de micro-finance et la diversification des instruments et prestations financières adressées aux catégories à faible revenu.

Enfin, la consolidation du rôle du secteur des assurances vise le renforcement de la capacité de rétention du secteur, l'amélioration des performances des compagnies, la promotion des régimes des assurances ayant un potentiel d'épargne et l'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s prestations offertes.

7- La consolidation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l'orientation progressive vers l'économie verte

La consolidation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l'orientation progressive vers l'économie verte est une orientation stratégique nécessitant de nombreuses actions nécessaires, nous nous limitons à quelques unes :

- L'adoption du choix de l'économie verte comme priorité dans le modèle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ce à partir de la mise en oeuvre de stratégies nationales et régionales.
- La généralisation des services d'assainissement en milieu urbain.
-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industrielle par l'incitation à l'utilisation des techniques propres, l'amélioration de la situation environnementale dans les zones industrielles, ainsi que la promotion du cadre législatif de l'environnement.
- La mise à niveau du système d'exploitation et de gestion des dépôts contrôlés et la fermeture progressive ainsi que la remise en état des dépôts sauvages et la promotion de la coopération inter municipale dans ce domaine.
- L'incitation des investissements privés dans le secteur environnemental, notamment dans le domaine de la gestion des déchets via l'exploitation et l'élargissement des dépôts contrôlés.

- La concrétisation du programme de protection du littoral contre l'érosion maritime et la protection des écosystèmes maritimes et littoraux et les zones sensibles.
- La poursuite des efforts visant la mobilisation et l'exploitation optimale des ressources disponibles en eau, en encourageant l'utilisation des ressources non traditionnelles à savoir le dessalement de l'eau de mer et l'eau traitée outre la rationalisation de l'utilisation des eaux dans le secteur agricole.
- La lutte contre la désertification à travers l'utilisation des eaux souterraines disponibles et la création de zones irriguées et de nouveaux oasis ainsi que la préservation des systèmes écologiques et de la biodiversité.
- L'amélioration du système de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en énergie et la diversification de ses sources grâce à la rationalisation de la demande dans le but d'améliorer l'indicateur d'intensité énergétique et de généraliser l'utilisation des énergies renouvelables.
- L'exploitation optimale des nouveaux mécanismes disponibles à l'instar du fond des technologies propres et le mécanisme du développement propre outre la mise en oeuvre des projets pilotes se basant sur les nouvelles technologies en matière d'énergie solaire dans les domaines du chauffage et de la climatisation, le développement de l'utilisation des énergies photovoltaïques dans les régions urbaines, et ce en plus du renforcement de la consommation du gaz naturel et l'amélioration de l'efficacité énergétique dans les nouveaux bâtiments.

2. Les stratégies sectorielles

1- Le secteur agricole

La contribution de l'agriculture dans le PIB se situe autour de 9% en moyenne. L'investissement agricole représente 8% en moyenne des investissements totaux. Les opérateurs privés contribuent actuellement à hauteur de 56% dans les investissements agricoles. Le secteur occupe actuellement environ 16% de la population active. La main d'œuvre agricole est essentiellement familiale avec un niveau d'éducation faible.

- L'accélération du rythme de la croissance par la consolidation des activités les plus valorisantes des ressources mais aussi des produits dits stratégiques ou de base.
- La promotion d'un environnement favorable à l'activité agricole et à sa modernisation à travers l'amélioration des services d'appui au secteur (le financement, l'assurance agricole, la recherche, la formation, la vulgarisation, le TTA,...).
- La réduction de l'effet des contraintes structurelles du secteur dont notamment les problèmes fonciers, les ressources humaines et l'organisation de la profession.
- La promotion de l'emploi des jeunes en milieu rural.
- Assurer une meilleure participation dans la dynamisation des zones rurales et du développement régional.

2- Le secteur industriel et de l'énergie

Le secteur industriel tunisien est un secteur tourné vers l'international avec plus de 2000 partenariats. Il est constitué de 5625 entreprises. Ses exportations dépassent les 20 milliards de dinars. Il repose sur cinq activités porteuses : l'aéronautique, l'automobile, les produits pharmaceutiques, le textile-habilleement et l'agroalimentaire.

Ce secteur bénéficie de plusieurs atouts, au niveau du système d'innovation, la Recherche et Développement et l'ouverture sur des marchés internationaux. Cependant, son développement nécessite l'engagement d'une stratégie fondée sur un ensemble de réformes comme :

- L'instauration d'un nouveau code d'investissement.
- La mise en place d'un partenariat durable entre le secteur public et privé.
- La réforme du processus d'attribution des marchés publics.
- La réforme du système logistique.
- Le renforcement de l'infrastructure (Zones industrielles, Technopoles...)
- Développement des filières de production en valorisant les ressources locales et en renforçant les systèmes de formation des régions (marbre, matériaux de construction, plantes médicinales...).

L'objectif à moyen terme est de créer plus de 100 nouvelles zones industrielles et l'aménagement de plus de 1500 Hectares réparties sur toutes les régions, avec une forte implication du secteur privé.

Certes, l'on a constaté en Tunisie une perte de sa compétitivité industrielle. Cependant cette perte n'est que conjoncturelle. Les fondamentaux demeurent solides. A ce niveau, l'objectif consiste à retrouver rapidement l'ancien classement de la Tunisie ; c'est-à-dire parmi les 40 pays les plus compétitifs dans le monde.

En ce qui concerne le secteur de l'énergie, l'on constate le creusement du déficit énergétique et l'évolution des subventions qui sont passées de 550 MDT en 2010 à 3700 MDT en 2013. Cette aggravation du déficit est due à l'accroissement de la consommation, à la baisse de la production nationale suite à l'absence de découvertes importantes et à la diminution de la redevance perçue sur le gaz algérien. Cette situation a nécessité la rationalisation de la consommation de l'énergie ; la création du Fond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et le lancement de nouveaux projets d'énergies renouvelables. L'objectif à moyen terme est l'engagement d'une réelle transition énergétique avec 30% de l'électricité produite à partir des énergies renouvelables.

3- Le secteur des services

a- Education, enseignement supérieur et formation professionnelle

Le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en Tunisie est un secteur clé qui affecte tous les autres secteurs de l'économie. Sa stratégie est transversale et devrait être en cohérence avec la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t les stratégies des autres secteurs.

Dans le secteur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on décèle quatre grands objectifs :

- Promouvoir la qualité de la formation et l'employabilité des diplômés.
- Appuyer la recherche et l'innovation
- Améliorer la gouvernance universitaire.
- Revoir la carte universitaire.

En somme, les grandes lignes de la stratégie visent à faire face à deux défis nationaux : le chômage des diplômés et les disparités régionales.

Le secteur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stitue également un appui complémentaire pour l'économie nationale en visant quatre grands objectifs :

- Préparation des qualifications intermédiaires.
- Equilibre de la pyramide des qualifications.
- Diminution des taux de chômage.
- Amélioration de la productivité des entreprises.

b- Le Tourisme

Le secteur touristique tunisien a accusé un choc important depuis 2011. Le secteur n'a pas encore atteint les résultats de l'année de référence 2010. La situation sécuritaire dans la région aggrave davantage la situation. Malgré toutes ces difficultés, le ministère essaie de définir une vision pour les prochaines années fondée sur quatre axes :

- Diversification de l'offre.
- Qualité et formation.
- Branding et Marketing.
- Modernisation du secteur.

c- Le secteur des Technologies d'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TIC)

La vision digitale Tunisie 2018 a comme objectif de rendre la Tunisie une référence numérique internationale et faire des TIC un levier important pour le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Elle concerne les usagers, le gouvernement et l'innovation. Il est prévu ainsi la création de l'Agence Tunisienne de la Promotion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afin de mettre à bonne fin ladite stratégie.

3. Évaluation et implications de la politique

Le soulèvement populaire de janvier 2011 a mis en exergue certaines défaillances des anciennes stratégies et plans de développement. Même si de tels

plans sont techniquement bien élaborés, ils sont entachés de nombreux biais. En premier lieu, l'on note le manque de concertation au niveau des choix économiques et sociaux. Ensuite, l'absence de la transparence lors de la mise en oeuvre de ces plans entrave leur bonne exécution et ne permet pas d'atteindre les objectifs tracés au préalable. Il s'est en suivi en particulier l'aggravation du problème du chômage et l'accentuation des disparités régionales.

Depuis janvier 2011, les différents gouvernements ont fonctionné sans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et se sont limités globalement à gérer les affaires courantes et les tensions sociales, avec une seule priorité : l'avancement dans le processus démocratique ; le seul garant de l'élaboration dans le futur d'une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concertée et viable. Ce processus démocratique n'est pas encore achevé ; en effet, les élections municipales sont prévues en 2016. A cela s'ajoutent les problèmes d'ordre géopolitique de la région, avec la prolifération des actes terroristes et la quasi-guerre civile en Libye.

Au total, la situation politique fragile en Tunisie et dans la région rend difficile à court terme toute réflexion stratégique. Les différents gouvernements ont essayé de lancer des séries de concertations nationales comme l'emploi en 2013, la fiscalité en 2014, l'éducation en 2015...

Mais comme cela a été évoqué auparavant, la communauté politique et la société civile sont d'accords sur des grandes orientations dont certaines ont même été amorcées avant 2011.

Section 3 Perspectives de coopération future avec la Corée

La transition démocratique a entraîné l'accroissement de l'aide internationale pour la Tunisie. Ainsi des institutions internationales comme la Banque mondiale ou le FMI ont considérablement augmenté leur aide. (1,25 et 1,7 milliards de dollars respectivement). Cela concerne également les autres bailleurs de fonds comme la JICA, l'AFD et la KOICA...

La Corée du Sud a constamment soutenu le développement en Tunisie depuis plusieurs années. Après la révolution, la relation s'est davantage renforcée avec la multiplication des projets de coopération. Les deux pays maintiennent de bonnes relations diplomatiques et économiques depuis une cinquantaine d'années

(l'établissemen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es deux pays en 1969). En particulier, la coopération s'est focalisée sur le renforc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et des technologies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Après 2011, l'on a noté l'intensification de cette coopération pour concerner des activités comme le commerce, la culture, la gouvernance publique. Il s'agit en particulier de renforcer les capacités des ressources humaines dans la fonction publique et l'amélioration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e-gouvernement). A ce niveau les attentes du gouvernement tunisien sont importantes en souhaitant le renforcement de ces projets.

Bien entendu, la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concerne de nombreuses autres activités comme l'agriculture et l'industrie.

Au niveau de l'agriculture, l'on note un dynamisme de coopération depuis 2005. Cette coopération s'articule autour de trois axes :

- Quotas annuels de bourses et des stages de formation octroyés dans des différentes disciplines agricole;
- L'affectation des volontaires coréens dans les établissements de recherche agricole;
- Les Projets de Coopération Techniques;

La Corée constitue un partenaire important pour la Tunisie en matière de Transfert Technologique Agricole et la conserva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Le Know-how et l'appui apporté au secteur agricole demeure très bénéfique pour la Tunisie.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souhaite maintenir et renforcer cette coopération dans le futur et l'élargir à d'autres domaines agricoles, Notamment:

- ▶ mener une deuxième phase du projet de la Conchyliculture.
- ▶ Projet de maîtrise des techniques post-récoltes des fruits.
- ▶ Projet de promotion et mise à niveau d'activités des cultures sous-serres à travers la diffusion des technologies en hors-sol.
- ▶ Pêche et aquaculture.
- ▶ Aménagements hydrauliques et irrigation.
- ▶ Le développement forestier et la promotion des femmes rurales et des groupements de développement agricole dans les zones rurales et forestières.

Au niveau de l'industrie et en matière d'investissement industriel coréen, quatre entreprises à participation coréenne sont établies en Tunisie à savoir Cyclo Industrie (Motocycles) avec 26 postes d'emploi à Sousse ; Yura Corporation Tunisia (fils et câbles isolés) avec 2000 emplois à Kairouan. Korea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 avec 40 emplois ; et la société Platuco dans le domaine de la gestion des déchets avec 20 emplois.

Les principaux produits exportés sont : Cuir et chaussures, produits des industries mécaniques et électriques, textiles, huile d'olive.

Les Principaux produits importés sont : les produits des industries mécaniques et électriques, matières plastiques, produits chimiques et pharmaceutiques, textiles.

La Coopération technique: concerne aussi l'envoi de volontaires coréens

Au niveau **de l'énergie**, la STEG a signé Le 28 juillet 2006, un accord de Coopération avec la société KDN Korean Data Network. L'accord a permis d'engager la coopération au niveau des volets suivants:

- Projet d'assistance technique pour limiter la perte sur le réseau de la STEG (STEG/KEPKO (société mère de la KDN),
- Projet d'assistance technique pour la mise à niveau du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 de la STEG. Ce projet a été financé par la société KDN d'un montant de 200.000 dollar, et l'Etude a été récemment finalisée.

En 2011 La corée a lancé un projet d'appui au pôle de compétitivité de Gafsa.

Enfin, en mars 2013, il y a eu la signature d'une convention avec la KOICA pour la réalisation d'une étude de faisabilité sur la maîtrise de la demande d'électricité et d'un projet pilote de climatisation avec le stockage du froid.

Le ministère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s mines souhaiterait développer des projets des activités suivantes :

- Assistance technique au profit du technopôle de Gafsa
- Renforcement des efforts de développement des centres techniques tunisiens notamment le CETIME;
- Les énergies renouvelables: mix énergétique-
- L'efficacité énergétique: éclairage efficace; appareil électroménager; transport (conduite efficace), cogénération, promofrigo...

Dans le domain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des TIC, La coopération est bien établie avec de nombreux projets dans le domaines des sciences et de le technologie.

Au total, les attentes du gouvernement tunisien sont grandes pour renforcer la coopération entre les deux pays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5-13-170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튀니지**

발 행 2015년 8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트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XX-XXXXXXX-XXXXXXX-XX